

북한 교육권에 대한
합동 애드보커시
컨퍼런스

Joint Advocacy Conference
on Education Rights
in North Korea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대회의장) 11층
UNESCO HALL 11F,
Myeongdong, Seoul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15:00 - 17:30
Thursday, November 30, 2023
15:00 - 17:30

북한의 교육접근성에서 바라본 인권문제: 법과 현실의 괴리

A Human Rights Challenge in Access to Education in North Korea: Contradiction between Laws and Reality

공동 집필

데일리 엔케이 Daily NK

통일아카데미 Unification Academy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지원

국제민주연구소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2023년 11월 30일

November 30, 2023

목차

서론	2
워킹 그룹	
북한 교육 접근권의 구조적 장벽	5
요약	
서론	
국제규약에 따른 교육권	
북한의 교육 정책	
북한 교육 접근권의 차별적 요소	
- 지역에 따른 차별	
- 성분 및 계층에 따른 차별	
- 경제력에 따른 차별	
- 여성에 대한 차별	
북한 교육 접근권 실태 조사	32
요약	
서론	
부문별 실태 점검 결과	
- 의무 교육 기간 확대 정책의 도입과 실태	
- 학교 교육 내용 질과 보완 방안	
- 무상 교육 실태	
- 교육 접근권 보완 방식에 대한 질문	
-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결론 및 제언	60
참조 문헌	64
표 및 그림	65
부록: 2023 북한주민 대상 설문조사지	154

서론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제 26조는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이 중요한 여러 명백한 이유들이 있지만, 특히 개인의 권리 보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데 있어 교육은 중요하다. 북한은 모든 북한 주민에게 평등한 교육접근이 주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 북한은 헌법상 전 주민 대상 12년 무상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¹ 비준 국가이지만, 본 보고서는 구조적 장벽으로 인한 현 실태가 북한의 국내 및 국제법 의무와 상충됨을 보여주고 있다.

두 섹션으로 구성된 본 보고서는 통일아카데미와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데일리 엔케이의 연구·조사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접근을 제한하는 북한의 구조적 장벽과 현재의 차별적 실태를 보여준다. 특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교육권이 아동과 여성에 대한 차별, 강제노동, 성분 및 계층² 등 다른 인권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보고서는 북한의 불평등한 교육접근과 교육권 개선을 위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북한 당국을 향한 실질적인 제언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제안한다.

오랜 기간 북한사회를 연구해 온 통일아카데미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2017에서 2021년 사이 탈북한 탈북민과 북한의 교육 시스템·행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실시했고, 북한의 사회 구조에 대한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해 제언을 도출했다. 데일리 엔케이는 북한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코로나 시기 북한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통일아카데미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보고서는 국제민주연구소(NDI)가 지원하는 합동 애드보커시 활동의 일환으로 데일리 엔케이, 통일아카데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교육 실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북한주민을 위한 평등한 교육접근의 옹호 노력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¹ 세계인권선언 26조는 또한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국제규약 제 13조는, “기회의 균등”이 교육서비스 제공의 이행 원칙이 되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² 북한은 당이 부여한 사회적 신분, 출신 성분, 정치적 성향 및 종교를 고려해 주민의 계급을 분류한다.

ICYMI: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DPRK: <https://seoul.ohchr.org/en/node/547>

워킹 그룹

NDI 지원하에, 5개의 북한인권단체가 모여 합동 애드보커시를 위한 워킹 그룹을 조성했다. 데일리엔케이(Daily NK), 나우(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 SR 프로덕션(SR Production), 통일아카데미(Unification Academy), 북한민주화네트워크(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로 구성된 워킹 그룹은 북한의 교육 접근권을 합동 애드보커시의 주제로 정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콘텐츠 제작, 조사·연구, 캠페인을 통한 합동 애드보커시 활동을 해 왔다. 본 보고서의 도출 내용은 캠페인과 콘텐츠 제작을 포함해 다른 워킹 그룹 단체의 애드보커시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워킹 그룹 소속 단체의 간략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데일리엔케이 Daily NK


데일리엔케이는 세계 최초의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으로 2004년 12월 창간 이후 북한 사회 내부 뉴스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왔다. 데일리엔케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편집 기조로 하며 한국 정부의 올바른 대북정책과 외교·안보환경 조성, 통일시대 준비에 기여하고 있다.

통일아카데미 Unification Academy (UA)

통일아카데미는 자유시장경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며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 교육 및 활동가 양성, 북한정보자유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새로운 북한인권 아젠다, 통일 방안에 대한 담론을 발굴, 연구, 조사하고 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NKnet)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한국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주요 인물들이 창립한 단체이다. 북한민주화 네트워크는 정책수립 및 애드보커시 활용을 목적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 현재 김정은 정권 까지 북한의 변화와 주민의 의식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나우 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 (NAUH)

2010년 설립된 나우(NAUH)는 남북한, 그리고 전세계 청년과 함께 북한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 나우(NAUH)는 ‘행동하는 목소리 voices in action’로서 보편적 인권과 세계 평화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 캠페인, 민주주의 교육, 탈북민 정착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SR 프로덕션 SR Production

SR 프로덕션은 시각 매체를 통해 북한의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다룬다. 탈북민이 결성한 SR 프로덕션은 구성원들의 북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 시각을 전달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 단체의 의견이며,
국제민주연구소(NDI)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음을 밝힌다.

북한 교육 접근권의 구조적 장벽:

사회 구조적 차별로 발생하는 교육 접근성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통일아카데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공정한 교육기회 또는 교육 접근권을 저해하고 차별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조명했다.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1) 지역, (2) 성분과 토대 등 사회적 계층, (3) 학부모의 경제력, 마지막으로 (4) 성별로 세분화하고, 이러한 장애 요인이 학교 시스템 내외에서 발생시키는 문제점들을 짚어 보았다. 교육 영역에서 발견되는 이 네가지의 장애요인들은 북한 사회 전반에서 발견되는 차별 및 인권유린의 구조적 원인으로, 교육부문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아동 대상 인권유린 및 교육 기회 박탈의 결과를 낳았다.

정치적, 사회적 관행 및 가부장적 사고의 편향으로 인해 여성과 적대계급 출신의 개인이 정치 사회적 지도자급으로 승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유리 천장' 현상을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유리 장벽' 현상은 학부모의 직업 분류와 중학교 졸업생의 출신 지역에 따라 직업배치 지역이 제한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농촌지역 또는 지방의 중학교 졸업생들이 평양 등 대도시의 고등 교육 기회가 현저히 떨어지며 또한 도시 노동자로 직장배치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교사인건비와 학교 운영 관리 비용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교사의 생계를 학생들의 학부모가 책임지는 관행 그리고 학교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재정 및 물자지원도 학생들의 노동과 '사회적 과제'의 제출에 의지한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편의 집안 자녀들은 학교생활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학우들과 교사의 질타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 같은 사회적 과제 제출 부담과 노력동원 요구로 인해 학교교육을 스스로 거부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5%에서 많게는 10-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계층별, 성별 차이로 인한 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즉, 북한 교육 부문의 다각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다루었다. 교육부문을 중요시하는 관행은 북한의 오랜 정치적 가치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김정은 정권은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교육발전'을 강조하며,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교육부문의 역할이라며 교육부문의 발전을 당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세우고 있다. 이 같은 북한당국의 정책적 가치와는 별개로, 북한 사회에 오랫동안 고착된 가부장적이며 전근대적 관행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12년 무상 의무교육 서비스의 효과가 무색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능력있는 지방의 일반 중학교 학생들의 중앙대학 입학 기회를 늘리고, 대학교 졸업생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직장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학생 입학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교사의 월급 외의 기타 외부 수입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사 인건비의 인상안을 제안 했다. 지방 중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어와 과학교육 분야에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 원조를 통한 농업 기계화 프로젝트로 북한의 농업지원을 위한 중학생의 노동력 동원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여성에게 행정 및 당적 지도자 역할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것 그리고 북한 사회 전반에서 여성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중학교부터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시작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서론

교육부문에 대한 북한당국의 지대한 관심은 북한의 주요 회의 내용과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북한의 문건과 보고서, 노동신문 등에 잘 나타난다. 2023년 6월 중 진행된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8차 전원회의는 북한의 교육사업 발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말 노동신문에 소개된 전원회의의 결과에 대한 기사는 “나라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라는 김정은 총비서의 인용으로 시작했다.

교육학자들은 공교육이 ‘전근대적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험의 획득 혹은 배분에 있어서 차등주의적 장벽을 허무는데 중요한 역할³했다’고 인지한다. 즉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다⁴.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당국이 최근 주력하는 교육부문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북한 공교육이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만큼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지 짚어볼 예정이다. 특히 북한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차별적 요소들이 교육 영역에서는 발현되지 않는지 점검하고, 공교육의 역할인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한 개선점들을 모색해 볼 계획이다.

북한은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도입을 결정하고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행한다. 이후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교육발전’에 대한 북한당국의 강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대부분 인권 주제에 있어서 이중성을 띄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부문 또한 당국의 주장과 현실간의 상당한 괴리가 발견된다. 다시말해, 12년제 의무교육 기간의 교육 기회는 북한의 학령기 아동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원리이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특성, 오래된 사회적 관행이나 학생의 가정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 등에 따라서 교육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현상들이 만연하다. 이는 교육의 핵심적 가치이자 목적인 ‘기회의 사다리’로써 역할을 방해하고, 따라서 권력과 경제력에 있어서 계층화, 계급화가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그대로 대물림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 같은 관행은 세계인권선언 및 북한이 가입 비준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등에 명시한 교육권, 교육의 보편적 권리 등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북한이 1990년에 가입 비준한 아동권리협약(CRC)의 28조 1항(c)는 모든 사람들이 역량에 기초해 고등 교육에 접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북한당국은 외면하고

³ 공교육제도의 형성, (2019. 9. 4), 교육문화연구소, <https://www.edulabkorea.com/reference/general.php?ptype=view&idx=810&page=1&code=general>

⁴ 공교육, (2023. 9. 18),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B5%EA%B5%90%EC%9C%A1>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에서 교육접근 기회의 공정하고 균등한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구상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28조에 명시한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교육 접근권’이라고 인지하고, 교육접근권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요인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하부 요인을 세분화했다.

- (1) 지역에 따른 차별: (a) 평양-지방, (b) 도시-농촌
- (2) 성분 및 계층에 따른 차별
- (3) 경제력에 따른 차별: (a) 사회적 과제와 노력동원, (b) 학교 운영 재원의 학생 부담, (c) 교사생계 책임, (d) 사교육 기회
- (4) 성별에 따른 차별

본 연구를 위해 북한에서 고급중학교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탈북민 8명의 자문을 받았고, 인터뷰 대상자는 여성 3인, 남성 5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교사 출신자 2인과 학부모 4인의 자문을 통해 학교생활을 지원한 부모의 관점에서 본 주제를 조명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고급중학교 졸업시기는 2017년 졸업자 4명, 2018년 3명과 2013년과 2015년 각 1명이다. 김정일 시기에 졸업한 인터뷰 대상자도 2명이다.

- 인터뷰 대상자 분류

	증언자	탈북 연도	출신지역	학교	졸업연도	대학교	부모직업
1	M01	2018	양강도 보천군	고급중학교	2018	-	모: 어릴때 사망 부: 노동자
2	M02	2014	함경남도 신포	제1고급중학교 ⁵	2007	공업대학교	모: 강사 부: 노동자
3	F03	2019	양강도 대흥단군	고급중학교	2017	농업간부학교	모: 간호사/밀수 부: 농장원
4	F04	2019	양강도 혜산시	고급중학교	졸업하지 않음	-	모: 장사 부: 노동자
5	M05	2019	양강도 혜산시	고급중학교	2015	군복무	모: 석탄유통 부: 모름

⁵ 김지수,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 29-30, “북한의 수재교육기관으로 1984년 평양에 제1고등중학교를 수재학교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1986년 이후 각 도 소재지에 12개의 제1고등중학교를 설립하여 수재교육을 실시했다.”

6	M06	2018	함경북도 회령시	고급중학교	2018	-	모: 탈북 부: 농장원, 환전브로커
7	F07	2013	양강도 혜산시	고급중학교	2013	-	모: 밀수 부: 노동자
8	M08	2014	함경남도 함흥시	고급중학교	2009	공업대학교 재학 중 탈북	모: 장사 부: 의사
9	F09 -mother	2018	함경북도 연사군	아들-고급중학교 졸업 딸-고급중학교 입학	2017 2017	해당없음	모: 기업소 부기장 부: 해외 파견
10	F10 -mother	2018	함경북도 연사군	딸-고급중학교	2017	해당없음	모: 가정주부, 도매상, 약초장사 등 부: 노동자 - 장사, 무역
11	F12 -mother	2019	함경북도 회령시 외곽 농촌지역	딸 아들	2012 2018	해당없음	아내: 가내수공업 남편: 공장 노동자, 환전브로커
12	F14 -mother	2019	평안남도 순천시	중학교	2017	해당없음	
13	F1 1-teacher	2000	함경북도 온성군		1987-2002 교사 역임	해당없음	
14	F13 -teacher	2010	함경북도 청진시		2010까지 13년간 교사역임	해당없음	

- 인터뷰 대상자의 지역 및 고급중학교 졸업 연도

졸업 연도	수	출신지역	수
2007	1	양강도	5
2009	1	평안남도	1
2012	1	함경남도	2
2013	1	함경북도	6
2015	1		
2017	4		
2018	3		

졸업하지 않음	1		
계	13 (두 자녀 부모 1인 포함, 교사 출신자 2인 미포함)	계	14

총 14인의 탈북민 인터뷰 대상자 중, 양강도 출신자 5명이며 도청소재지인 헤산시 출신자가 3명, 함경남도 2명, 함경북도 출신자 6명 중 도청소재지인 청진시 출신자 1명, 그외 회령시 2명이며, 나머지 3명은 지역의 군 단위 출신자였다. 평양 출신자는 없었지만 북한 출신 북한학 박사 2인과 북한 내부소식통을 정보를 받고 활동하는 북한전문 기자 3인의 자문을 통해, 평양과 지방간 또는 도농간 교육 접근의 차이를 유발하는 근원적인 체제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반영했다.

본론

1. 국제규약에 따른 교육권

교육권은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 일반이 그렇듯 교육권은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천부적 권리이다. 모든 연령과 성별, 직업, 지역, 계층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부여되어야 할 권리이다. 교육권은 교육 받을 권리와 교육을 보장할 의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제적 기준이 요구하는 교육권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사회권 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협약)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아동을 비롯해 성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당사국이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에는 모든 사람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며 초등 무상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의 평등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제26조 제2항에서는 교육의 목표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6조 3항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3조도 모든 사람의 교육권 인정과 당사국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회권 규약 제13조 제1항은 교육권의 보편성과 교육의 목표에 대해 명시하고, 제13조 제2항에서는 △초등 무상의무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 △기초교육의 강화와 장학제도, △교원의 물질적 조건 보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3조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 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 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또 『아동권리 협약』 제29조 제1항에서는 아동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인격, 재능 및 능력이 최대한의 계발되도록 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유엔 헌장에 규정된 원칙들에 대한 존중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제1항에는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기회균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역시 초등교육이 의무적이며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과 동시에, 중등교육의 발전 장려와 아동의 이용 및 접근권, 무료교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고등교육의 기회 개방, 출석률과 탈락률 제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 협약』 제28조 제2항에서는 학교규율이 인간의 존엄성과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28조 3항에서는 교육 관련 사항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의 촉진과 장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도표1〉 국제적 기준이 요구하는 교육권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 모든 사람의 교육 받을 권리 명시 (제26조 제2항) 교육목표는 인격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제26조 제3항) 교육의 종류에 대한 부모 선택권	당사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사회권 규약)	(제13조) 모든 사람의 교육권 인정과 이행의무 (제13조 제1항) 교육권의 보편성과 교육의 목표 규정 (제13조 제2항) 초등 무상의무교육과 기회균등	1981년 가입비준 당사국
아동의 권리 협약 (아동권협약)	(제28조 제1항) 고등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기회 개방 (제28조 제2항) 학교 규율에 의한 교육권 침해방지 (제28조 제3항) 교육에 대한 국제협력 촉진 및 장려 (제29조) 아동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명시	1990년 가입 비준 당사국

2. 북한의 교육 정책

북한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일체의 교육 과정을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김일성은 1945년 11월 3일 실시한 담화에서 ‘새 조선을 건설하려면 많은 민족간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에도 북한은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지속해 왔다.

1977년 9월 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5기 14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발표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도 교육과 인재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며, “사회주의교육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혁명의 교대자들인 새세대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북한 사회주의교육의 기본과업이 사상개조에 있으며,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를 길러내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 제시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법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이야기 한다.

북한은 1948년 건국 후 50년이 지난 1999년에 『교육법』을 만들었다. 2012년 북한은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의 목표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고 밝히며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제2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보고서(2002. 4. 9)』에서 “선진적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해 모든 공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완전하게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73조에서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헌법 제43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밝히고 있는 참다운 애국자와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은 다름 아닌,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사회주의적 인간 양성에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교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사상교육이다.

북한의 『교육법』에도 교육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은 잘 드러난다. 1999년 제정된 『교육법』 제1조에는 사회주의교육의 발전을 위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 육성을 사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중등일반교육의 의무와 무료교육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제13조에는 12년 중등일반 의무교육 학제를, 제14조에는 학령 어린이의 취학의무가, 제16조에는 입학 및 수업 등에 대한 무료교육의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교육법』에는 교육조건보장을 위해 제38조 교육부분의 재정예산, 제40조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 제41조 교과서와 참고서 등의 생산보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랑해 왔다. 북한 헌법 제45조에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의무교육제도는 1956년 8월 4년제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도입되어 총 11년 의무교육제도를 유지했다. 2012년 9월 25일 초등교육 기간 5년으로 늘리고, 중등교육을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했고 여기에 유치원 1년을 포함시켜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변화해 왔다. 그리고 헌법 제47조에서는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도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8차 전원회의에 “우리의 교육을 발전하는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세워 높은 지적, 실천능력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은 교육부문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당 및 정권기관 일꾼들이 온 사회에 교육을 중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해나가며 교육사업을 다른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정책적 지도, 기술적 지도를 포함하여 교육혁명을 위한 지도와 방조를 강력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⁶.”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교육사업에 대한 전당적·전인민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월간잡지 『오늘의 조선』에서 황해북도의 사례를 들어 도의 해당기관과 일꾼들이 교육사업에 필요한 실험실습 설비들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모범사례⁷를 소개했다. 도 내 여러 시, 군 단위의 기관 일꾼들은 “학교들에 대한 임무분담을 구체화하고, 교육기자재들과 설비들을 갖추어주었다”고 보도했다. 즉, 교육법 제 40조에서 정한 대로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이 ‘교육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계기를 해당 교육기관에 보내’주는 모습을 보도한 셈이다.

이러한 사례는 북한의 『시, 군발전법』 등을 통한 지방의 자체적 운영 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21년에 제정된 『시, 군발전법』에 의하면, 농촌과 지방의 교육기자재 생산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70조에서 ‘학교건설과 후원사업’에 대해 명시했다. 즉 지방의 행정기관인 ‘시, 군 인민위원회가 학교의 교육설비를 현대적으로 꾸려줘야 하며, 후원단체를 정해서 담당 학교의 물질과 기술적으로 후원하라고 정했다.

⁶ 공로혁,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8차 전원회의가 교육부문앞에 제시한 과업,” *로동신문*, 2023년 6월 30일, <http://www.rodong.rep.kp/ko/index.php?MTJAMjAyMy0wNi0zMC10MDE4QDE1QDJAQDBAMTg==>

⁷ “황해북도에서 교육지원열의 고조,” *오늘의 조선*, 2023년 4월 7일, <https://dprktoday.com/news/64673>

〈도표2〉 북한의 교육권 관련 법·제도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사회주의 헌법 (2019년 수정보충)	(제43조) 참다운 애국자,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육성 (제45조)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제47조) 모든 학생에 대한 무료교육 제공 (제73조) 공민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
교육법 (2015년 수정보충)	(제12조) 중등일반교육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 (제13조)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 12년 (제16조) 입학 및 수업 등 무료교육 규정 (제38조) 교육부문의 재정예산 (제40조)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 (제41조) 교과서,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 록화물의 보장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977년 발표)	○ 1977년 9월 주체사상을 구현한 교육강령으로 발표 ○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내용·방법·제도 등을 규정하고, 모든 인민을 ‘공산주의적 새인간형’으로 육성 ○ 공민의 교육권과 학교 의무교육을 명시
시, 군발전법 (2021년 채택)	(제70조) 학교건설과 후원사업 - 시, 군인민위원회가 지방자재 동원해 교육설비 현대화, 후원단체 정해 학교를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후원

3. 북한 교육 접근권의 차별 요인

학생들이 태생적으로 처한 여건과 무관하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학생의 역량과 재능에 따라 개인적 제약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교육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은 12년 무상의무교육제도 도입을 2012년에 결정하고 2014년부터 전국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또 교육법 (1999년 채택, 2015년 수정보충)의 제16조 ‘무료교육의 내용’은 “모든 교육은 무료이다”라고 하며, “교육기관은 학생 또는 그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요금을 받을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북한의 무료 의무교육 서비스가 사실상

‘무료’라고 하기에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현금과 현물이 상당했으며 그로 인해 무상 의무교육의 수혜자가 교육에 접근하는데도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김정은 시기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탈북민들과 학부모, 교사, 북한 교육 부문의 전문가 등의 자문을 종합한 결과,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교육에 접근하게 만드는 일련의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교육의 핵심적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의 사다리’로써 북한 교육 서비스가 기능하지 못하는 국가적 풍토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교육의 사다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부모 세대의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례들을 더 많이 축적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성장과 동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교육현실에는 ‘기회의 사다리’가 거의 존재하지 못하며 오히려 기회의 사다리가 역할 할 수 없도록 ‘유리천장’과 ‘유리장벽’이 곳곳에 놓여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이 교육 접근권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형성된 사회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북한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받는 교육서비스의 차별적 적용 기준이자, 교육기회의 정당하고 균등한 적용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분류해 보았다. 즉 지역, 출신성분 및 사회적 계층, 집안의 경제력과 성별, 네 가지로 분류되는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을 살펴볼 예정이다.

어느 사회나 차별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건전하게 성장하는 사회라면 교육이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게 만드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 그렇지 않고 교육에 접근하는데 오히려 기존의 차별적 요소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차별의 악순환이 대를 잇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의 변화 발전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탈북민들과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북한 교육 접근권에서 차별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바로 북한 사회 전반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의 요건이란 점은, 그런 차원에서 북한사회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별의 대를 이은 악순환 서클을 돌고 있는 북한 운영 메커니즘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돌파구가 필요하다.

3.1 지역에 따른 차별

2019년 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위해 북한이 내놓은 국가보고서도 도시와 지방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당국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년 모든 시와 군 단위에서 한 두 개의

농촌학교의 교육환경과 조건을 현대화했다고 보고했다⁸.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해 만난 2017-2019년 어간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탈북민들의 증언에서는 UPR 국가보고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북한에서 교육기회에 접근하는데 지역별 차이가 중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현상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중앙에 비해 지방, 특히 농촌지역의 교육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이다. 둘째는 학교와 학생 거주지의 지리적 위치가 졸업생들의 진로, 즉 사회 진출을 위한 출세우기의 확고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현실이다.

이 같은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평양과 지방 사이의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는 북한당국도 최근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로 보인다. 3차 UPR의 국가보고서 내용과는 달리, 2021년 6월 북한이 UN SDGs 고위급 정치포럼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북한이 처한 어려운 문제로 도-농간 교육 격차를 꼽았다. ‘203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 실행에 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에서 SDG 4번 목표인 ‘통합적이고 평등한 질적인 교육을 이룰 목표’ 실행에 대해,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혁신 수준이 낮고, 교육적 요구에 따른 교육 환경 개선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농촌과 도시 간 교육 격차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며 도전과제를 평가했다.

농촌지역의 발전과 지방 시, 군의 발전을 국가적 개혁과제로 삼고 있는 최근 북한당국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1.1 농촌과 지방의 교육 인프라의 부족

농촌과 지방의 인프라 부족 문제는 비단 교육분야뿐 아니라 북한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부문에서 나타나는 지방의 교육 인프라 부족의 피해는 당연히 농촌과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혜자들에게 극적으로 나타난다. 평양과 중앙을 중심으로 국가적 재원과 역량을 투자하는 정책으로 인해 수도의 교육 인프라에 국가 재정 투자가 집중된다. 반면, 지방 학교의 교육예산은 지방행정 단위가 책임진다.

⁸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A/HRC/WG.6/33/PRK/1, Para. 46, “In 2016 1~2 rural schools in each city and county were transformed into model schools with fine educatio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and efforts are being made in accordance with an annual plan to generalize their examples to other rural schools.” https://digitallibrary.un.org/nanna/record/3798135/files/A_HRC_WG-6_33_PRK_1-EN.pdf?withWatermark=0&withMetadata=0&version=1®isterDownload=1

2015년에 수정보충한 북한의 '교육법'은 제 40조와 41조에 교육기자재 및 교재 등의 생산공급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교육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실험설비 등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 군발전법 (2021년 제정)은 '학교건설과 후원사업'에 대한 제 70조⁹에서 지방의 인민위원회에 지방자재를 동원해 학교 교육설비를 갖춘 책임을 부여했다.

하지만 시, 군, 구 단위의 행정 자립도가 심각하게 낮은 북한의 지방 행정이 교육예산을 학교에 배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 입장이다. 따라서 교육예산이 없는 학교 운영의 부담은 많은 부분 학부모들에게 떠넘겨지고, 북한의 실정상 이로 인한 지역간의 교육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 같은 현실은 탈북민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났다. 양강도 보천군의 리 단위의 고급중학교를 2018년에 졸업한 증언자 (M01)는 “졸업할 때까지 우리 학교에는 컴퓨터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2015년에 컴퓨터를 학교에 다 놓아라고 했는데, 교장이 학급 선생님들에게 몇 대씩 내라고 배당을 시켜서 학부모들에게 받거나 선생님이 다른데서 돈을 벌어서 컴퓨터를 샀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학교는 너무 한심하다. 지역에 따라서 학교 시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 F12-mother, 2017년 순천 시내 고급중학교 졸업생의 모친

“교복, 학용품 등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라는 지시는 평양부터 시작해서 실행하고, 그 다음은 도 소재지 등 큰 도시에서 실시하는데, 멀리 농촌과 시골까지 다 전면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직 어렵다고 본다.” – F13-teacher, 2000년대 초반까지 교사였던 탈북민

지방 또는 농촌 학교에는 영어나 화학교사가 배정되지 못해 알파벳도 모르는 학생, 실험 한번 해보지 못한 학생들도 매우 흔할 정도라는 북한 교육 분야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다.

학부형 출신 인터뷰 대상자 (F12-mother, 2017년 졸업생 모친)는 학교 교육시설 수준에서 차이는 지역단위의 기관, 공장, 기업소가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에, 농촌 학교는 상태가 한심하다고 전했다. 농촌의 협동농장이 학교 기자재를 충당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역간 격차는 결과적으로 대학교 입학이나 사회진출에 있어서 지역간 심각한 격차로 이어졌다.

⁹ 시, 군발전법 (2021년 제정), 제70조 (학교건설과 후원사업)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방자재를 최대한 동원하여 학교와 학생소년회관을 비롯한 과외교양거 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려주고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학교를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 주도록 하며 후원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이런 환경은 심지어 사교육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다.

“연사군에서는 사교육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고, 청진시에 사교육이 발달돼 있어서 간부 아이들은 청진시로 보내서 사교육을 받는다. 권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돈이 있어야 교육도 시킨다.” – F09-mother, 2017년 고급중학교 졸업 후 군입대한 아들의 모친

3.1.2 졸업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지역에 따른 차별

거주 지역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은 자연스레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의 진로에도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 2012-2020년 사이의 노동신문과 교육관련 북한 발행문을 분석한 북한 대학교 현황에 대한 통일연구원의 연구 결과¹⁰ 총 271개 대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북한의 중앙대학¹¹ 총 37개 중 21개 즉 60%가 평양시 소재 대학이다. 또한 북한 내 종합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5개로 모두 평양에 존재한다.

〈도표3〉 지역별 대학 현황

지역	평양	평남	평북	황남	황북	함남	함북	강원	자강	양강	남포	개성	나선	합계
대학 수	52	38	26	18	17	38	26	16	11	8	13	5	3	271

〈도표4〉 유형별 대학 현황

	종합대학	부문별 대학	직업기술대학	공장/농장/어장대학	합계
대학 수	5	125	48	93	271

이러한 주요 대학의 평양 집중은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의 지역에 따른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중앙대학을 졸업해야 사회 진출 이후 승급이 빠르기 때문에 고급중학교의 성적 상위권 졸업생

¹⁰ 조정아 외,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통일연구원, 2020,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dbf1e78b-cb84-449a-84df-350acbcfc045>

¹¹ 중앙대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학들 중 내각 교육성이 직할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중앙급 대학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중앙대학_\(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https://ko.wikipedia.org/wiki/중앙대학_(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학생들은 당연히 중앙대학을 선호한다. 하지만 제1중학교 졸업생들이 주로 중앙대학에 들어가고, 일반중학교 학생들이 중앙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¹². 또한 지역 출신 중학교 졸업생이 타지역의 중앙대학에 다니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2015년에 해산시 소재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증언자 (M05)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생활의 모든 면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즉 시험 기간에 교수들에게 주는 뇌물부터 생활비며 기숙사 비용까지, 움직일 때마다 돈이 들고, 따라서 지방 출신 학생이 평양으로 유학하는 것은 더 힘겹다고 증언했다. 한국이나 일반 나라들과 달리, 북한에서는 고향으로 돈을 벌면서 대학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집안의 지원 없이는 대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돈이 따라서지 않으면 (평양에서 또는 타지의 대도시에서) 대학생활 유지가 어렵다... (순천시에서는) 보통 다과목소조 과외를 하면서 대학에 가려는 아이들은, 종합대학이나 중앙대학은 못 가더라도 지방 전문학교나 기술학교 같은데 1-3년 정도는 갔다가 군대간다” – F12-mother, 2017년 고급중학교 졸업생 아들의 모친

도-농간의 생활의 질과 교육의 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큰 도시로 이동하려는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의 의지는 당연해 보인다. 학교 졸업 후 직장배치가 이뤄지면 그 지역이나 직장을 평생 벗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뇌물을 주고라도 대도시로 옮기는 것이 미래를 위해 도움된다는 이야기다.

“공업단위와 농업단위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면 농장에서 빠져서 공업단위로 가려고 한다. 대학교에 가려는 이유도 농촌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다. 농업간부학교에 간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 F03, 2017년 농촌지역 중학교 졸업

“(살고 있던 군 단위를 떠나서) 딸을 대도시로 살게 하려고 학교에 뇌물을 주고 전학증과 학적서류를 떼서 큰 도시로 보냈다. 거기에 친정 자매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딸의 행정문건을 다니던 학교에서 뺏지만 대도시로 전학할 학교에 올리지는 않았다. 동생이 그 동네에서 인민반장이었기 때문에 문제 없었다. 애의 장래를 위해서 (졸업한 이후에) 시골에 사는 것보다 대도시에서 장사를 배우는 것이 훨씬 좋다고 판단했다.” – F10-mother, 2017년 양강도 군 단위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딸의 모친

이 증언자 (F10-mother)는 임시방편이지만 딸의 주민등록과 학적을 어디에도 등록하지 않은 것은 학교생활과 청년동맹 등 정치조직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물론

¹²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12월, 231 p.

장기적으로는 주민등록 없이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졸업 후 단기간만이라도 이모들에게 장사와 사업을 제대로 배우면 장래 생활의 안정에 도움될 것이었기에 시골의 학교보다는 대도시 시장의 현장 경험을 쌓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 문제는 다만 지역간 교육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유발하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지역간 교통, 인적, 물적 이동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간 격차가 더 벌어진데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직업간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함경북도 온성군의 중학교 교사로 2000년대 초반까지 15년 여간 교직에 종사하던 증언자 (F13-teacher)는 “시골의 군 단위 중학교 학생들은 대학을 가야지 시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개념이 있다”고 설명했다.

3.2 성분 및 계층에 따른 차별

성분 및 계층에 따라 적용되는 교육 접근권의 차별 또한 북한 사회 전반에서 발견되는 인권문제로, 사회계층에 따른 차별이 교육 서비스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3년 사회안전부 (현 사회안전성) 출판사에서 발간한 ‘주민등록사업참고서¹³’에 따르면, 북한의 출신 성분 제도는 핵심, 동요, 적대 계층이라는 3대 계층으로 구분되고, 또 ‘성분’은 노동자, 군인, 사무원, 농민, 소시민, 상인, 등으로 직업 가운데 가장 오래 종사해서 본인의 세계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직업에 따라 규정한다.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2012년에 중학교를 졸업한 딸과 2018년에 졸업한 아들을 둔 증언자 (F11-mother)는 사회성분이 공식직업 배치 등 자녀들의 사회진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마디로 잘 설명했다. “노동자가 잘 살게 되는 경우는 없다. 아버지가 노동자니까 아들도 노동자를 벗어나서 살 수 없다.” 증언자는 공식적으로 경제생활을 위한 적을 등록한 기관이 없는 ‘가정주부’로 등록돼 있으면서, 가내수공업으로 개인 돈벌이를 했다. 남편은 ‘노동자’ 신분으로 공장에 적을 올려두고, 사경제 영역에서는 환전 브로커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 하지만 자식들의 진로에서 부친의 공식적 사회성분인 노동자가 되는 길 외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신성분 즉 토대와 계층과 성분은 상급학교 진학은 물론 직업배치와 사회 생활에서 승진과 발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의 역할을 한다. 또한 부모의 직업과 직종에 따라 자녀의 진로를 제한해 두는 ‘유리 벽’과 같은 한계를 넘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에 더해 증조 할아버지 세대에서

¹³ 박승민, 배진영, “[최초공개] 북한 사회안전부 규,” 월간조선 뉴스룸, 2007년 7월,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0707100015>

‘지주’ 또는 ‘부농’, ‘종파분자’ 등의 출신으로 적대계층인 경우, 즉 토대가 좋지 않으면 학교 졸업 후 법 또는 당기관이나 정치적인 직업에서는 아예 배제 된다고 증언한다.

“자기 실력만 있으면,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극소수의 아이들은 대학 가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하지만 토대에 문제가 있으면 (이후 사회 진출할 때) 물론 당간부나 법 관련 일꾼 등 큰 간부는 될 수 없다. 그 외에 일반적인 직종에서는 직업선택도 자기 능력에 따라서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전쟁시기 남한 출신자들은 행정적 정치적 업무를 아무 것도 시키지 않는다.” – F12-mother

2010년까지 13년간 교사로 복무한 한 증언자는 토대가 어떻게 상급학교 진학이나 사회 진출에 작용하는지 설명했다.

"예술학원, 외국어학원에 예전에는 실력으로 갔는데 요즘은 간부 자녀들이 다 간다. 군대도 토대 좋은 집안 아이들은 담임교사가 알아서 편하고 좋은 군 병과로 빼내려고 노력한다. 적대계층 출신 학생들은 기술대학 정도는 진학이 되지만, 종합대학과 중앙대학으로 진학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생 본인의 학업성적이 특별히 우수해야 하며, 정무원 시험 순위가 높아야 한다." – F14-teacher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지방으로 숙청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집 출신성분이 좋지 않았다. 내가 중학교 5학년 (고급중학교 2학년) 때 김정일 호위부대 5과(6과)나, 김정일 정치대학 같은데 가려고 지원했다. 하지만 나는 특수 선발 예비명단에 나는 제외됐다. 당간부 또는 보위기관 간부가 되는 것이 장래희망이었는데, 출신성분 때문에 희망하던 정치대학에 갈 수 없었다. 나는 신체적으로도, 학업성적이나 학교생활 모든 면에서 열등함이 전혀 없었지만 출신성분 때문에 정치대학의 예비 신체검사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때 성분 차별이 피부에 와닿았다." – M08

"아저씨(형부) 권의 토대가 호위사령부 쪽이어서 집안이 좋다. (그쪽) 할아버지 대에 항일 무장투쟁에 참여해서 그렇다. 그래서 조카는 평양의 호위사령부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국돈으로 100만 원 넘어 뇌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아주 못 사는 집 아이들은 돌격대 같은데 탄원해서 가기도 한다." – F09-mother

3.3 경제력에 따른 차별

12년 의무교육제도 하에서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고 북한 사회주의 헌법 47조에서 선언했다. 하지만 현실에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현금, 현물, 노동력 등을 거둬들여 사실상 무상교육이 아닌 셈이다. 이에 따라 교사와 학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교육서비스 접근권에 제약이 나타난다.

일반 중학교의 한 학급 30-35명 인원 중 5명 내외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 부모의 경제력, 사회적 영향력, 권력 등에서 평균적으로 하위 10-15%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교사와 학우들에게 소외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나아가 이러한 학생들은 집안 생계를 돕기 위해 그리고 학교에서 받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교를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현상이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 즉 가정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교육접근권에서 소외될 뿐아니라, 교사들의 폭언과 냉대는 하위 그룹 학생들을 학교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교육에 필요한 재정과 예산 지원을 ‘보통교육법¹⁴’에서 ‘국가나 사회협동단체가 보장하라’는 규정을 정상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인다. 또한 시, 군발전법¹⁵은 시, 군의 인민위원회가 후원단체를 정해서 학교를 현대화하도록 정했으나, 여전히 학교꾸리기와 학교 관리 운영은 학부모의 후원에 의지한다.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현금과 현물, 노동력의 각기 명목을 크게 분류해보면, 사회적 과제와 노력동원 차원의 요구, 학교꾸리기 등의 명목 등 학교 운영을 위한 요구, 그리고 교사 자신의 생계를 위한 요구, 등 세 가지로 본 현상을 파악해 볼 수 있다.

3.3.1 사회적 과제와 노력동원

한 달에 두세 차례 정도 사회적 과제 제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과제가 다르고, 학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노동이나 꼬마과제, 인민군대 지원 등이 다 혼재되어 요구된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 정확하게 무슨 명목의 사회적 과제를 얼마의 비용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¹⁴ 보통교육법 (2015 수정보충)년 제49조 (보통교육부문의 재정예산) “보통교육부문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의 예산으로 보장한다.”

¹⁵ 시, 군발전법 (2021년 제정) 제70조 (학교건설과 후원사업)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방자재를 최대한 동원하여 학교와 학생소년회관을 비롯한 과외교양거 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려주고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학교를 물질기술적으로, 노력적으로 적극 도와 주도록 하며 후원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빈도로 제출했는지를 증언자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거의 매일 내라고 한다는 증언이 대다수인데, 구체적인 항목을 질의하며 깊이 접근해 보면 한 달에 2-4차례 내려오는 사회적 과제 요구를 제출하라는 독촉을 거의 매일 받은 것으로 읽혔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증언자들이 묘사하는 교사의 질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못 내는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왜 안 내냐고 질타하고 창피준다.” – F04

“교사는 학생들 모두 앉혀놓은 상태에서 (못 내는) 애들을 일으켜 세워서, 남과 비교하면서 인신공격 한다. 매주 한번 정도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못하는 학생들은 매번 담임교사에게 욕 먹는다.” – M06

“제 때에 내지 못하면 계속 앉았다 일어 났다를 반복시켜서 수치심을 주었다. 그리고 사회적 과제를 못한 학생들은 책가방을 학교에 두고 집에 가서 가지고 오도록 했다.” – F07

“안 내면 계속 비판서 써야 하고 정말 힘들다. 힘 들어도 우리 아들에게는 뭐든 다 해줬다. 못 내게 되면 가방을 안 돌려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가져오라고 시킨다. 그러니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 한다.” – F11-mother

“선생들이 학생들을 거의 매일 추궁한다. 전교생이 모인 곳에서 과제를 못한 아이들을 앞에 쪽 세워서 망신준다.” – F12-mother

사회적 과제를 요구하며 교사가 학생들 대상 정서적 학대 수준의 질책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질책과 압박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학생이 한 반의 30-35명 학생 중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까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흥미롭게도 영재학교인 제 1중학교는 예외라며, “이런 일로 학교에 못 다니는 애들은 없다 (M02)”고 한다.

“2014-2016년에 고급중학교 다닐 때였다. 학교 운영자금 마련 해야 하니까 오전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버섯따고, 밭에서 이삭줍고, 나무열매 따고, 돈 되는 것은 뭐든 학교에서 숙제를 낸다. 주말과 오후에는 이런 작업을 한다. 한 달에 10번은 넘게 한다. 농촌동원이나

노력동원에 부자집 아이들은 선생님이 알아서 빼주기도 한다. 우리 반에는 전체 50명 (시골 학교라 두 반을 통합해서 운영함) 중에 3-4명이 이런 부담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 F03

"겨울 군인 패딩을 만들기 위한 토끼가죽 내라, 아니면 시세에 맞춰서 돈을 내야 한다. 일주일에 3번 정도, 겨울에는 나무를 사야 하니까 중국 위안으로 50-100위안, 봄에는 50-100위안, 교실꾸리기 (교실 바닥을 칠하기 위해서) 크게 일년 2-3번 정도 낸다. 조금낼 때는 5- 10위안 (5000원 국돈)정도를 낸다. 30명 중 5-6명은 못낸다. 애네들은 수시로 학교에 안 나온다. 한 반에 1-2명 정도는 이게 부담스러워 아예 학교에 안 나온다. " – F04

“한 반에 30명 중에 2-3명 정도는 항상 빚을 지고 사는 정도로 못 사는 집 아이들이다. 이런 애들은 아이들 속에서도 왕따이고, 내라는 걸 못내니까 선생님에게도 차별을 받는다. 하루 결석을 하면 뺨이나 팔, 다리 가리지 않고 때리기도 한다. 그래서 1-2명 정도는 아예 발농사나 시장에서 장사하거나 돈벌이를 하느라 학교에 안 나온다.” – M01

“일단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차별하는 경향이 무조건 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주어지는 과업 (토끼 가죽, 파고철, 등 제출) 같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차별받는다. 학급에 절반 정도는 사회적 과제 때문에 다 어려워하는데 23-24명만 제적 인원이고 5명 정도는 학교에 못 나왔다.” – M06

거의 매일 진행되는 방과 후 노동에 대처 하는 방식도 여러가지 였는데, 돈을 주고 정기적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빠지는 방법도 있다. 한 증언자 (F10-mother)는 아들을 방과후 노동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소년회관의 배구팀에 가입시켰다. 그렇게하면, 오후시간은 아들이 배구 특별활동에 참여하니 방과후 노동에서 빠질 수 있다. 즉, 상위 10% 내외의 돈이 있는 집안 자녀들은 돈을 주고 빠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직접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 동시에 학급의 하위 10% 내외의 가장 열악한 가정 형편의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3.3.2 학교 운영 재원의 학생 부담

무상교육 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역 협동단체에 학교운영 재정에 책임이 있고, 시, 군발전법과 보통교육법 등에서 보는 바대로, 지방의 인민위원회가 학교의 교육 기자재와 설비들을 갖추기 위해 후원단체를 학교에 배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조선중앙통신 2023년 4월 7일자 기사, “황해북도에서 교육지원열의 고조¹⁶”는 지역의 기관 기업소가 교육기관에 교육물자를 지원한 사례를 설명했다.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이 농업대학에 실험실습 설비를 구비해주었고, 도체신관리국, 도무역관리국이 액정TV와 컴퓨터 등 물자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또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도검찰소, 도송배전부의 근로자들 또한 지역의 학교 돕는 일에 성의를 표했다는 기사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역의 공장, 기관, 기업소가 후원단체가 되어 학교 기자재를 책임지도록 법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기사가 소개한 황해북도의 예처럼, 소위 방식상학 단위(시범단위)를 거점으로 국가가 투자를 해주고는 전국의 학교들이 따라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교육에 만연한 전반적 물자부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를 위한 만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정 시기를 정해 집중적으로 모범 대상학교에 지원을 하고 이후, 그것을 좋은 모범 사례로 다른 지역에 적용되도록 권장하는 전통적인 북한의 사회적 캠페인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상 단위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 그 이후에는 다른 주변 지역의 자원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설명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역의 공장기업소 등이 후원단체로 학교의 교육자재를 책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역 후원단체의 지원물자를 투명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차치하고라도, 학부모들이 스스로 컴퓨터를 비롯해 각종 교육 시설을 지원했다는 증언들은 흔히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노동력과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학교꾸리기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학교 내 도색과 교실 바닥작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북한당국이) 2015년에 학교에 컴퓨터를 다 놓아라고 했는데, 교장이 학급 선생님들에게 몇 대씩 내라고 배당을 시켜서, 학부모에게 받거나 선생님이 다른데서 돈을 벌어서 컴퓨터를 샀다.” — F12-mother

“가을 겨울에는 화목을 내야되고 겨울에는 학교꾸리기를 하는데 석회를 내야 한다.” — M05

“학교에 재정이 없으니까 학부모들이 모두 학교 운영을 책임진다. 사회적 과제 때문에 선생을 거두매 선생, 거두매 반장이라고 부르는 정도이다. 교사가 학생들의 학업과

¹⁶ “황해북도에서 교육지원열의 고조” 조선중앙통신, 2023년 4월 7일, <http://kcna.kp/kp/article/q/1ad394a579b390a938aa5578059334a8.kcmsf>

생활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회적 과제나 물자를) 거둬 들이는데만 집중한다. 힘있는 학부모를 만나면 교사가 그나마 편하다. 돈있는 학부모형이 있으면 사회적 과제 거두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다.” – F14-teacher

이렇게 ‘힘있는 집안’ 출신 학생들은 교사가 학교에 제출할 과제를 해결해줌으로써 교사-학생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 되고 학급 내에서도 다른 학생들보다 여러 방면에서 우위에 서게 된다.

"부모의 영향력이 큰 집안 아이들은 학생인데도 선생님과 같은 지도적 입장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명령 지시를 하고 다른 학생들은 그 학생을 따르는 것이 당연시 되어있다. 돈이 많아서 학교나 선생님께 돈, 페인트, 목재 등 많이 낸 사람들은 교실청소를 하지 않거나 오후에 학교에서 시키는 작업에 참가하지 않는다. " – F03

3.3.3 교사생계

교사의 월급이 3,000원대로 쌀 500그램 내외를 구입할 수 있는 가치이다. 따라서 교직을 직업으로 가지고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사들은 극단적으로 적은 인건비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학부모들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처럼 되었다. 교육지원 활동으로 학교 인근의 협동농장에서 교사들 쌀을 제공한다는 증언도 있다.

"엄마가 선생님을 접대를 잘 해야 한다. 선생님 생일이나 집안 잔치를 꼭 챙긴다. 학급의 열성자들 (한 학급의 8명 내외로 구성된 학생 간부)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에게 선물과 준다. 식용유, 쌀, 등 주요 생계를 위해 선물을 준다. 2019년 경까지도 3,500원 정도 월급밖에 안 돼니까 학부모들이 선생님 생계를 챙겨야 한다. 교원들은 농장에 연결시켜서 인근 농장에서 쌀을 대준다.” – F09-mother

교사가 인건비만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학생지도나 교육보다 생계를 위한 돈벌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폐단이 나타난다. 월급은 적은 반면, 다른 직장처럼 근무시간을 활용해 8.3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를 통해서 선물과 뇌물을 받는 것이 유일한 돈벌이 방법으로 보인다. 이 같은 환경은 교사들의 수준과 실력 저하의 후과를 낳았다. 이 또한 이중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학생들이 국가의 공교육 체계에 대해 신뢰를 못가지게 됨으로써 북한의 공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의무교육제니까 학교 공부에 제약이 되는 것은 시스템에서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교원들이 국가에서 월급을 안 주니까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교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원들 월급이 3,300원 정도이니 먹고 살 수가 없다. 진짜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사교육을 받는다. 교사들이 실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오직 자기 벌어들여 먹고 사는데만 관심이 있다.” — F12-mother

“선생님 생일이나 집안 일 있을 때 많이 챙겨줘야 한다. 애 아버지가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일(환전 브로커)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하기 위해서) 일년에 두 세번씩 100위안 정도 돈을 줘야 한다. ” — F11-mother

이런 형식으로 교사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집안의 학생들은 당연히 여러가지 방면으로 교사들의 혜택을 받기 마련이다. 평양에서 실시하는 소년단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추천도 받으며 언제나 교사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교생활이 수월하다.

“부모가 부유하여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기부를 많이 하는 학생에게는 성적이 매우 낮았지만 김일성소년영예상 등 상이 주어졌다”. — M08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부모님이 선생님을 많이 챙겨주면 선생님이 아이를 더 잘 보살펴주는 것은 당연하다. 선생님이 (뭔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애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내고, 집에 오면 선물도 주니까 아이가 학교생활이 편했다.” — F10-mother

“돈이 있어야 학교생활이 수월하다. 아무리 권력있는 집안이라도 선생에게 먹을 걸 안 주는데 애들을 이빠하지 않는다. 교과서가 학반 아동 수에 맞게 나오지 않는다. 25명인데 20권 정도만 새 교과서가 나오게 되면, 학교에서 내라는 거 잘 내는 아이들, 선생님을 잘 챙기는 집안 아이들부터 내주고 나머지 5명 정도는 헌 교과서를 쓰던가 교과서 없이 학교 다니던가 한다.” — F11-mother

3.4 여성에 대한 차별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¹⁷은 각급 학교에 입학, 진학, 졸업과 그 후 직장배치에서 남녀평등의 보장을 보장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전공 분야 학과를 제외하고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교육 분야의 차별 현상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문제들과 함께 나타나는 식이다. 즉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비하 또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기인해 여학생들의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있어서 분명한 '유리 장벽'이 존재한다.

여학생들에 대한 교육영역에서 체계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학생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설명이 많았다. 여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서 차별적인 분위기가 보였는데, 남학생에게는 '남자가 공부를 안하면 어떻게 하나' 또는 "대학교에 가야지" 이런 용기를 주는 말들을 자주 했지만, 여학생들에게는 학업성적에 대해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증언자(F07)는 기억했다. 즉 여학생들에게는 공부 하고 싶으면 하고 알아서 하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한다. 또 주변의 어른들, 아버지 친구들도 '여자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뭇하냐'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대학진학 자체는 여자여서 안 된다는 식의 차별은 없지만, 유교적 사고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서 '여자는 시집이나 가라'는 식의 인식이 퍼져있다. 또 남녀간 직업이 구분돼 있어서 대학도 다 구분돼 있다. 당일군, 보위원, 안전원 이런 직업에 지원은 남자만 한다. 여학생은 가난한 집에서는 대부분 농장일이나 쉬운 직업을 선호한다. 여자는 유치원 교양원, 교환수, 군수공장 경비서는 일 같은데 종사하는 것이 사회 통념이다. 그래서 대학 진학에서부터 차이가 갈라진다. " — F03

이 같은 직업에서 남녀 역할의 구분은 대학교의 성격에서 잘 나타났는데, 북한의 대학들이 대체적으로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과대학 중심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사범대를 제외하면 도별로 있는 대학 함흥, 청진 등 대도시 대학들이 공대 중심이며, 사범대만이 여성들이 주를 이루는 대학이라고 한다. 남학생은 다양한 부문의 학문과 학업을 전공해도 상관없이 직업배치와 진로에 가능한 범위가 넓다.

¹⁷ 여성권리보장법, (2015년 수정보충) 제3장 제19조 (입학, 진학, 졸업배치에서 남녀평등의 보장),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각급 학교에 입학하거나 진학, 졸업 후 배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경우 특수전공분야의 학과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모집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교육, 보건, 경공업 등 일부 제한된 분야의 학문과 학업만이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사회 전반이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향후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제1중학교의 경우도 남학생의 비율이 높다.

“제가 제1중학교는 입학 당시, 대략 30명 학급 학생들 중에 여학우는 대략 4-6명 정도였다. 하지만 제1중학교에 온 여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평균적인 남학생들에 비해서 월등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교 내 생활에서 평범한 남학생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다. 민족 간부를 양성한다는 것이 제 1중학교의 취지이므로 여성간부의 비율에 따라 계획적으로 (여성 입학생 수를 조절)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M02

중앙당 간부와 각 조직 대표 총 5,000명이 참석한 2021년 8차 당대회에 여성 참석자가 그 전 해에 비해 200명 증가했다고 자랑했지만, 501명으로 10%였다¹⁸. 북한 내 여성의 지도적 지위를 잘 나타내는 수치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계 지도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교사출신 증언자(F13-teacher)는 남녀차별은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출 이후에 나타는 데 공장기업소 지배인은 물론이고, 학교장 등의 지도자급에는 여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장래 희망 자체가 제한적이고, 남학생이 선호하는 직업군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여성들 속에는 정치, 법조계, 당일군 진출 희망은 전무하다.

¹⁸ 정용수, 2021.01.07, “김정은 “경제발전 목표 엄청나게 미달했다” 실패 고백”, 조선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63464#home>



북한 교육 접근권 실태 조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교육 접근권은 개선되었는가

데일리 엔케이

DAILY NK

요약

북한 교육 접근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인 사회적 계층의 격차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대해졌음을 가정할 때,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입장과 수요가 반영된 연구의 의미는 매우 크다. 본 연구는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으며 학령기 자녀를 둔 내부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핵심 정보원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방식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최종 대상자 구성은 양강도 2명, 함경북도 5명, 함경남도 7명, 강원도 3명, 자강도 3명, 평안북도 6명, 평안남도 8명, 황해북도 4명, 황해남도 5명, 평양직할시 7명이다. 이 중 남성이 19명, 여성이 31명이다.

북한당국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을 도입하면서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학령기’의 자녀들이 의무 교육의 확대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성과 연결되어 있는데, 해당 정책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낮은 편이었다.

오히려 ‘진로’의 측면에서 대학 입시나 군입대를 상정한 경우, 1년을 확보한 것에 대한 의미가 컸고, 여학생 자녀를 둔 경우 졸업을 일찍하는 것이 가정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등 성분에 기반한 진로 및 성별에 한정하여 자녀의 교육 기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에게 재정부담을 지우는 ‘세외 부담’의 측면에서 교육 연한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었는데, 학생들 스스로 학교를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노력 동원 및 과제 부담(33.3%)’이 차지하여,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준다. 다른 이유로는 학교생활에 흥미가 떨어지는 모습(24.4%)과, 토대로 인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15.4%),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택한 경우(14.6%), 학교 교육 내용에 불만족(11.4%), 기타 응답(0.8%)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 출석률은 전체의 50%이상(40%), 80%이상(40%)¹⁹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된 결석의 이유로는 가정 경제의 어려움(43.4%)²⁰이 꼽히며, 학부모 또한 자녀를 학교에 출석시킬

¹⁹ 전체 100% 응답 중 한 학급의 30% 이상의 출석률은 6%, 50%이상이 출석하는 비율은 40%, 80%이상이 출석하는 비율은 40%, 100% 출석하는 비율이 14%로, 전체의 46%에 달하는 대상자가 속한 학급이 80% 미만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었다.

²⁰ 다른 이유로는 거리두기 조치(32.1%), 기타응답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18.9%), 강화된 출석 관리로 더 많은 학생이 출석한다 (3.8%), 정치사상교육 단속으로 더 많은 학생이 출석한다 (1.9%)순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나타난다.

사회적 계층에는 성분과 자본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자녀의 지식과 능력을 키우거나(40.7%),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는(32.3%) 과목²¹을 중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주로 이러한 과목을 중심으로 사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 당국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책의 방향에 따라, 컴퓨터, 과학기술,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대학 입시가 사회적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의도 매우 높았다.

주요 과목의 교육 수준은 교원의 질이나, 기기의 적절한 공급에 달려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 학교 및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소외되고 있다. 컴퓨터의 경우에도 수재(22%)이거나, 가정교사나 가정 내 컴퓨터를 갖추어 학습한 경우(61%)²²에 학습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곧 수도권 중심의 부유한 계층과 농촌 지역 및 지방의 소외 계층 간의 학습 기회의 불균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정적으로 학교의 재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주체는 학교(58%) 및 학부모(19.2%)²³였으며, 부족한 것은 디지털 기기(32.4%)뿐만 아니라, 겨울 난방 땀감과 식수(29.4%), 교과서 등(25%)²⁴ 최소한의 물자공급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종합적으로 계층 간의 편차를 보완하고 최소한의 학습 의지를 유지하게 만드는 국가 차원의 조치가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의 의견이나 불만 제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며, 모든 부문에서의 정책 집행은 재정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틀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될 필요성이 강조된다.

²¹ 자녀가 학습을 하는 데 순수한 흥미(10.2%), 학교생활 평가에 도움이 되는 (5.1%) 과목이나,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교과목(3.1%)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

²² 주로 특수기관 교육을 받은 수재(22%)보다 가정교사 및 가정 내 컴퓨터를 가지고 학습한 학생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는 비율(61%)이 월등히 높아 계층적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집중적 교습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13.6%에 그쳤다. 일반학생이 모두 다 잘 다룬다는 답변은 3.4%였다.

²³ 학교 운영의 재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은 학교(58.9%), 학부모 (19.2%), 교육부 (8.2%), 청년동맹 (8.2%), 도당위원회 (2.7%), 어떤 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2%) 순이었다.

²⁴ 학생들에게 긴요한 기타 물품으로는 책상, 걸상, 칠판, 교편물 등 기본적인 자재(8.8%), 체육기자재, 음악기자재 등 예술계열의 자재(4.4%)순으로 나타났다.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교육‘권’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통제와 적절한 조정을 할 의무를 가진다.

교육 정책에 있어, 특히 김정은 집권기 들어 눈에 띄는 일련의 변화를 보여왔다. 다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는 명확히 분석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교육 정책 부문에서는 국제 메커니즘의 일부를 수용하면서 외부세계를 대상으로 선전을 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일어나고 있으나, 전 계층, 전 지역에 ‘보편화’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정책이 수사에 그칠 뿐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계속 고립돼 있고, 국경 봉쇄 등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²⁵ 나아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탈북민 급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북한 정부의 새 조치 등도 외부 세계의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 접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능동적인 의견 수렴과 개선이 어려운 북한의 환경을 방치하지 않고 외부 사회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미비점을 비판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겠다.

그동안 북한 정책과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중심은 북한당국이나 교원들에 한정되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부문의 개선이 시급한지를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행위자로서 교육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 및 가정 단위의 수요와 한계점을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유동성이 떨어지고,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자생적 영역도 축소가 된 상황에서 북한의 교육 환경의 열악함은 어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지를 긴급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본 조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적 방향과 노선이 북한의 교육 현실과 맞닿아

²⁵ 살몬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살몬 보고관 첫 보고서 유엔 제출...“중러, 탈북민에 ‘강제송환금지 원칙’ 적용해야”, 2022년 10월 15일자, VOA, <https://www.voakorea.com/a/6790547.html>

있는지를 점검하고 적실한 대안 마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1.1 연구 방법 및 조사대상자 정보

1.1.1 연구방법

조사 내용은 총 50명의 북한 내부 주민의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양적 연구를 통해 전반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사 대상자에 있어 지역별 편중성을 탈피하여 고른 지역의 대상자를 섭외하였다.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조사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조사 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내부에서 생활하며 경험하는 현실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조사 방식은 핵심 정보원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응답자 집단으로 시작하여, 이 응답자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방식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북한 공안 기관과 중앙당에 복무하는 내부 정보원을 포함하였다.

해당 질문에 대한 조사대상자 특성별 구분을 위해 기본적인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 최종 학력, 직업군을 질의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자신의 가족 내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상정하여 내용을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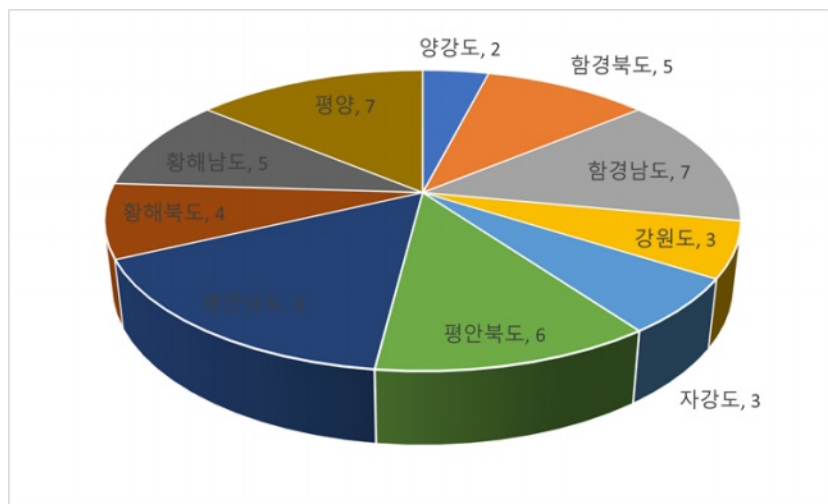
조사 진행 사실이 노출되면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피해자나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점이다. 본 보고서의 내용 안에서 개인의 정보 혹은 정보 습득의 방법을 최소한으로 공개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설문을 진행하며 조사대상자들에게 보안성을 약속하였으며, 이는 조사 시점과 대상자를 특정하는 정보를 최대한 노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충한다. 따라서 해당 가족의 성별, 연령, 학교 지역 및 단위만을 질의하고 있으며, 성명, 학교명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질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읽어내기 위해 북한에서 표방하는 교육 정책 변화와 기존 교육 현장을 분석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요 차별적 요소를 도출해 내어 이를 중심으로 질의하였다. 국가 정책 이면의 동기를 읽고, 북한의 있는 그대로의 교육 현실을 충분히 분석해내어 북한 사회에 적실한 교육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1.2 조사대상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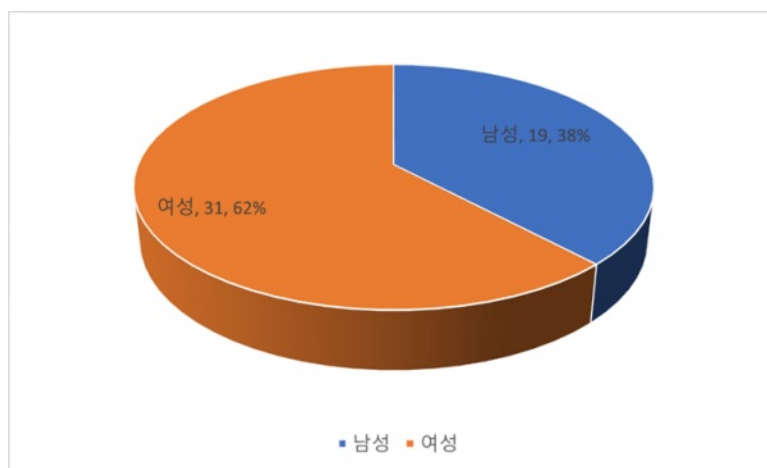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는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신분의 북한 내부 거주 주민 50명으로 한다. 조사 대상자 분포 지역은 2008년 UN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가구 수 비중 할당을 따른다. 조사 시기는 코로나 시기로 보안성으로 인해 특정 일을 밝히지 않는다. 보안에 관한 특별한 고려를 통해, 조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사가 진행완료 되었고, 지역 분포는 다음과 같다. 양강도 2명, 함경북도 5명, 함경남도 7명, 강원도 3명, 자강도 3명, 평안북도 6명, 평안남도 8명, 황해북도 4명, 황해남도 5명, 평양직할시 7명이다. [그림1]

[그림1] 조사대상자 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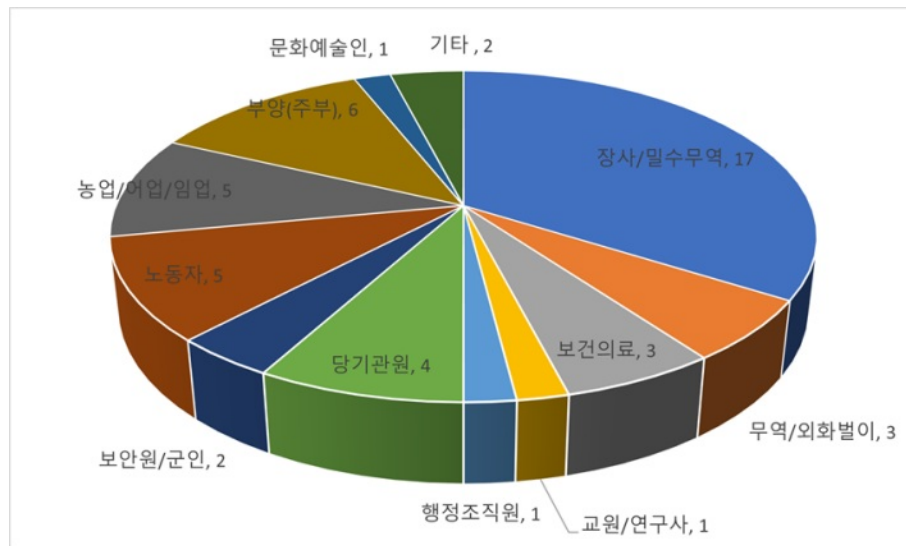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성별은 남성이 19명, 여성이 31명이다. [그림2] 연령대는 30대가 17명, 40대가 25명, 50대가 6명이다.

[그림2] 조사대상자 성별 분포



직업군 분포는 교원이 1명, 일반 노동자가 5명, 농업/어업/임업 종사자가 5명, 당기관원 4명, 무역/외화벌이 종사자 3명, 보건의로 종사자 3명, 보안원/군인 2인, 부양/주부 6인, 장사/밀수 무역 종사자 17명, 행정 지도원 1인이다.

[그림3] 조사대상자 직업 분포



조사 대상자들의 학력은 고급중학교 졸업이 19명, 단과대학, 고등전문대학 졸업이 6명, 대학 중퇴가 6명, 대학 졸업이 17명, 박사원, 연구원을 중퇴하거나 졸업한 대상자가 2명이다.

조사 대상자 수입 규모는 월평균 300,000원 미만이 19명, 300,000원~500,000원 13명, 500,000원~1,000,000원 6명, 1,000,000원~2,000,000원 6명, 2,000,000원 이상이 5명²⁶이다.

조사대상자의 자녀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체 학생 중 남성은 26명, 여성이 24명이다. 연령대는 10세 이하가 9명, 10대가 35명, 20대가 6명이다. 출신지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위치는 3명만이 상이하다. 출신지역 분포는 양강도 2명, 함경북도 5명, 함경남도 7명, 강원도 3명, 자강도 3명, 평안북도 6명, 평안남도 8명, 황해북도 4명, 황해남도 5명, 평양직할시 7명이다. 학교 위치의 분포는 평양이 9명, 함경북도가 4명, 함경남도가 6명, 이하 양강도 2명, 강원도 3명, 자강도 3명, 평안북도

²⁶ 통상 북한 주민의 수입은 국가 소속으로 받는 월급(생활비)과 부수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 장사/밀수, 2)무역/외화벌이 등의 월소득을 측정하기 어려워 년단위 총 소득으로 답변할 시 12개월로 나눠 산정하였다. 부양의 경우 남편소득을 기재할 지 월수입을 산정하여 반영하였다. 교원, 노동자 등, 공식적인 월수입을 응답하였다. 비합법적 수입과 공식 수입을 동시 기재할 경우 합산하여 월소득으로 산정하였다.

6명, 평안남도 8명, 황해북도 4명, 황해남도 5명으로 동일하다. 재학 중인 학교는 유치원 2명, 소학교 13명, 초급중학교 11명, 고급중학교 17명, 단과대학, 고등전문대학 재학 1명, 대학 재학이 6명이다.

1.2 선행연구검토

북한 교육 상의 문제는 다양한 측면의 고찰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의 북한 교육 관련 연구는 북한 정치사상 연구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거나, 남북한 교육 제도의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교육의 내용에 대한 세부 연구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북한 교육 상의 권리, 특히, 교육접근권에 대한 논의는 국제 메커니즘 상에서 표피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깊이 있는 연구주제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북한은 강성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²⁷를 설정하였고, 이윽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법령 제정²⁸이 2012년 9월 김정은 집권기와 맞물려 가장 큰 변화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이 의무 교육 학제²⁹를 개편한 사실은 당국의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 수준을 보여준다. 특히,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학제 개편은 북한 교육의 기제가 크게 변화하였을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북한 교육에 있어서의 균등한 권리 보장 여부를 주목하게 만들었다. 기술인재라는 ‘기회’와 의무교육 확대를 통한 ‘보편성 획득’은 북한 교육에서 실질적인 ‘평등’이 마치 구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든다.

통상 정책적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불러올 것을 상정해 보았을 때, 교육 정책 수립과 그 과정은 북한

²⁷ 2015년 개정된 교육법 제8조에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전망과업”이라고 하였다. 김지수, “제7차로동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 『통일교육연구』, 제14권 제2호(2017), p. 1.

²⁸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전반적인 12년제 의무교육으로의 확장 (2) 졸업후 대학, 군복무, 사회생활에서 학습과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체 학습 능력을 준비시키는 것. (3) 최종 목표를 중심으로 각 학교급별로 도달 목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학과목에 대한 규정과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학년별로 명시함. (4) 학교급별로 교육내용과 방법에서 체계성과 순차성, 균형성과 계속성, 통일성과 연관성을 보장하는 것 (5)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반복심화 형식의 교육 구조를 가짐 (6) 통합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방식을 적용 (7) 주체성과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갈 수 있도록 교육 강령을 구성 (8)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교육내용, 교수과정을 계획 (9) 새 교육 강령은 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발전을 담보하는 법적 문건임.

²⁹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실행한 주요 교육개혁 정책으로는 의무교육기간 확대(11년에서 12년으로), 학제개편(4-6학제에서 5-3-3학제로), 교육과정 개정, 기술고등중학교 신설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교육법과 교육강령집행법, 직업기술교육법 등을 새로 제정하였다. 김병연, 김지수,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조건과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2019), p.176.

교육 당국의 의도, 실행,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문에 대한 연구가 김정은 집권 이후의 교육정책 변화와 함께 증대하였다.

김석향과 김경미(2017)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로동신문』에 수록된 기사를 검토하여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당국이 가진 의도와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자 김정은의 의도는 북한 사회 전역에 효과적으로 투사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선적으로 의무교육 학제 개편이 정책화 된 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제도의 실시는 “인재양성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있으며, 방법으로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보장하며 교육 사업에 “국가적 투자”를 늘리겠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³⁰ 그런데 교육 조건과 환경개선 사업은 2015년 이래 학교 교원, 기관이나 지역 일꾼에게 역할을 할당하거나, 2016년에 이르러는 ‘70일 전투’를 통해 학부모 중심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전한다.³¹ 이로써 연구는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자체가 북한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병연, 김지수(2019)는 김정은 시대 학교교육의 변화에 주목하며, 북한 문헌 분석과 면담을 통해 이것이 교육목표와 실질적으로 조응하는지, 즉 교육정책의 실행 수준을 점검하고,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북한 사회의 성격과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북한 배경 학생 면담 결과는 교육 시설의 다기능화 정도가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이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여 능숙한 활용도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업 추진이 아니라, 학교 단위의 책임제로 운영되는 학교 정책의 한계, 특히 일반 교원들에게 학교환경 개선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하였다.³² 한편, 교원복지 차원의 중앙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 기관, 기업소, 단체를 중심으로 ‘후원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었다.

김지수 (2019) 은 북한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유·초·중등 교육 연구에 주목하고 사회 제도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교육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북한 교육에서 경쟁이 격화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영어교육의 강조, 정보기술 과목의 시수 확대, 교수학습 활동에서 멀티미디어 사용 독려 등의 세계적 추세의 반영을 특징을 꼽았다. 이에는 교원 정책의 변화도 함께 뒤따르는데,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원의 생활 안정에 관한 지원들이 교원법 및 교육강령집행법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³⁰ 김석향, 김경미,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분석,” 2017 p.122

³¹ 김석향, 김경미, 2017, 위의 글, p.125

³² 김병연, 김지수, 2019, 위의 글, p.192

한편, 지역의 후원단체와 학부모들의 기여가 학교 교육조건 및 환경개선에 큰 부분을 차지하여, 지역적 격차와 학교별 격차가 큰 상황, 이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교육신문, 2016.05.12.)으로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일구 (2018)은 남북의 교육통합 과정에 대한 적실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방과후 활동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헌연구, 면담, 설문지 조사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 방과후 활동이 교육 활동의 다양성 측면에서 유효한 기능을 가지기 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조현정 (2022)의 연구에서 자녀의 사교육에 투입되는 학부모의 지원이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족의 사회적인 배제 정당화로 이어지며, 북한의 교육열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교육격차와 계층분화라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의무교육의 확대를 포괄하는 북한 교육 정책의 변화는 교육 자체의 목표인 사회인으로서 갖춰야할 덕목을 기르는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는가, 그리고 국가가 설계하는 사회 인재상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가의 종합적인 점검을 필요로 하고 있다.

1.2.1 연구 범위

실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다루어야 할 영역은 매우 광범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 북한 학교를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학생을 대신하여 학부모의 입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청취하였다. 북한당국이 내세운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짚고, 이로부터 보편적인 교육접근권이 확보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자, 지표를 수립하기 위한 초기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접근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의무교육제도’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해당 권리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차원의 제도이다. 따라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 교육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을 내포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기인한다.³³ 북한의 학교에서는 사상교양³⁴의 과도한

³³ 전재황,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2014, 제20권 2호, p.25.

³⁴ 2014년 발간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교양체계를 운영하고

비중 및 강제동원 등의 이유로 기본 교과목을 통한 올바른 정서함양과 사회인으로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습득 기회의 박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접근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며, 북한 사회 내에 잠재해 있는 성분, 계층³⁵, 성별에 따른 차별적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은 교육접근권에 중요한 작업이다.³⁶

교육 기회에는 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의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보다 나은 자원을 갖추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 진학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학교별로 제공하는 교육의 수준 차이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검토 내용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교원의 전문성 차이, 도-농간 격차, 사교육 활성화, 뇌물 관행의 만성화 등이 북한 학생들로 하여금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이 필요하다.

본 조사는 광범위한 연구 교육접근권의 현재성 점검에 의의를 둔다. 제2장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의무교육 연장이 학부모들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하고 무엇이 학생 그리고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로부터 이탈을 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교 교육 내용의 질과 보완방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구하며 과외 및 소조활동의 실질적인 역할과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비단 과외 뿐만 아니라, 당국이 표방하는 무상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중첩되어 과중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부족한 물적자원 항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어느 정도의 비중이 전가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 동원 수준까지도 함께 살펴본다.

과중한 재정적 부담과 학생들의 피로도는 교육에의 의지를 약화시켜, 교육을 받는 기회를 상실하고 학교로부터 이탈 현상을 발생하게 만든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교육 접근성에 대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연령대를 막론하고 북한 주민의 거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³⁵ 위 COI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스스로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등, 무차별 그리고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차별이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심각하게 계층화된 사회로 이러한 차별은 (중략) 북한에는 정부가 조장하는 차별이 만연해 있으나 점차 변화를 겪고 있다.

³⁶ 연구 범주를 좁히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접근권은 제외한다.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취학학생과 재학 당시의 과외 교습,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기회, 지역 및 도농간 격차에 관한 인식 문제점을 고찰하겠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찰하며 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접근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여 우리의 대응과 방향성을 제시하겠다.

2. 부문별 실태 점검 결과

2.1 의무 교육 기간 확대 정책의 도입과 실태

의무 교육 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북한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지식수준, 북한의 교육 환경을 둘러싼 주요 고려 사항이 무엇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의무 교육의 확대로 독해와 문해력 등이 누구나 가진 기본적인 소양이 되며, 살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어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데 균등한 자질을 갖추게 된다.

2.1.1 '교육' 수준 개선에 대한 인식 차이

의무교육의 연장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의견[2-1]은 긍정과 부정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약 3분의 1에 해당(32%)하는 학부모들은 의무 교육의 확대로 인해 학령기의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학부모들은 '하나라도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 좋다(함남3)',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제일 남는 것이다(함남5)', '공부를 더 해서 나쁠 것이 없다(함남7)'라며 기초 지식을 기르기 위한 의무 교육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표1] 의무교육 기간 확대에 대한 의견 (질문 2-1)

구분	빈도수	비율(%)
1. 좋다.	16	32
2. 나쁘다.	18	36
1.2 모두 선택	16	32

북한은 의무 교육 연한의 확대와 동시에 중등 교육을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나누고 실험 실습을 강화하는 등 정책 변화도 함께 진행했는데, '초급, 고급으로 갈라져 있으니깐 지루하지 않다(평양7)', '교육의 질이 좋아져서'(황북2과, 황북3) 등 이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도 감지되었다. 교육 정책의

변화와 의무교육 제도 개편의 연관성과 그 효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36%) 중 일부는 학교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했다. ‘과정 년한(연한)만 1년 늘어났고 구체적 과정안/교수안/교재/교육 형식에 늘어난만큼 알맹이가 없다.(자강3)’, ‘소학교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됐으나 특별히 실력이 높아지진 않는다.(황남2)’, ‘학교가 1년 늘었다고 해주는 교육수준개선은 없다.’(강원2) 등 불만 섞인 목소리도 존재했다. 이는 북한 사회 내에서도 학생 맞춤형 학습 진행이 어려운 점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것과 동일한 지점이다.

2.1.2 ‘진로’와의 연결

의무 교육 연한의 확대는 학부모들에게 고급중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와 함께 고려되고 있었다. 통상 학생들은 고급중학교까지의 의무 과정을 필수[5-2]로 이수(83.6%)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학부모에 따라 희망하는 교육 기관이 상이[5-3]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높은 선호도를 가진 교육 기관은 평양외국어 학원(37.9%), 금성학원(13.8%)으로 설명하고 있어 성분이 좋은 가정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을 희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기술고등중학교(17.2%)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토대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는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학생의 진로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행 학습, 사교육이 치열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고등중학교 과정을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시기로 인식하여 ‘1년 더 준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학부모는 단 두 명(평양1, 평양3)이었다.³⁷

이에 반해 대학이 아닌 일반 직장 생활이나 군 입대를 상정하고 대답을 한 학부모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아이를 오래 데리고 있을 수 있어서’(평남6, 평남8), ‘16~17살 고등중학교 졸업나이가 너무 어렸다.’(강원3, 자강1) 등 일찍 아이를 사회로 진출시켜야 하는 부모의 애처로운 심정을 내비쳤다. 특히, ‘남자는 군대나가야 한다. 16~17살 신입병사로 나가는 것 너무 어렸다. 한살이라도 늦게 집에 있다 나가서 좋다.’(황남1) 등 자녀가 군에 입대를 가능성을 두고 의무교육 연한의 확대를 환영하였다.

진로와의 연결 지점은 ‘의무 교육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³⁷ 그들은 평양지역에 거주하면서 학부모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각각 외화벌이 사업으로 수입이 상당하거나, 수입은 적지만 행정지도원으로서 복무하고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장기적인 군복무기간을 고려하면 되도록 빠른 졸업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함남1, 평양4)을, 여학생의 경우, 졸업을 일찍 해서 장사(함남6)나 직장생활(함남4, 평남5)을 하고 돈을 벌어서 집 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성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구분을 뚜렷이 보여주는 답변이었다.

2.1.3 ‘세외부담’, ‘노력동원’의 부담감

의무교육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학부모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우는 ‘세외 부담’에 있었다. 교육 연한이 늘어나는 것은 곧 학부모가 학생을 뒷바라지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다닐 때처럼 11년제가 좋았다. 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평양2), ‘학교 졸업할 때까지 애 (돈)시중 들어야 해서’(함남4 외 6인) 등 학부모들은 부담감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세외 부담에 대한 부담감은 보기 1,2 모두를 선택한 학부모들의 의견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들은 교육 정책에 대한 우호적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비용, 세외 부담, 교원 지원 등의 비용적 부담이 이를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의무 교육이 필요한가[2-2]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에 반드시 가야 한다, 보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90%에 달하며,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0에 수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주된 이유[2-3]는 좋은 성적을 획득하여 대학에 가는 것을 자녀 교육의 주요 목표로 하기 때문(27%)이라고 밝혔다. 보내지 않아도 좋다는 소수 의견 중 주요한 이유[2-4]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이탈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2.1.4 코로나 위기 속 이탈자의 발생률과 조치

코로나라는 열악한 외부 환경적 요소는 학생들의 출석률에 영향[2-8]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의 50~80%이상의 학생이 출석하는 것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 학급의 출석률이 80% 이하에 그치는 경우도 46%에 달한다. DailyNK의 후속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출석률 변화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평균 약 70%의 출석률이 보장되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공식적으로 집계된 가장 낮은 출석률은 50% 수준으로 나타나 조사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³⁸ 그러나 북한은

³⁸ 이채은기자, ‘새 학년 시작됐지만 학생 출석률 저조... “가정형편 어려워서...”’, 2022년 4월 7일자,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20407-1/>

아동권리협약(CRC) 5차 보고서(2017년 6월 15일) 에서, 각급 학교 출석률은 98%이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밝혀 북한의 보고서는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표2] 코로나 위기 하 출석률 (질문 2-8)

구분	빈도수	비율(%)
1. 100%	7	14
2. 80% 이상	20	40
3. 50% 이상	20	40
4. 30%이상	3	6
5. 거의 출석하지 않음	0	0

코로나 시기 출석률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유[2-9]는 가정 경제의 어려움(43.4%)³⁹이고, 거리두기 조치(32.1%), 기타응답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18.9%), 강화된 출석 관리로 더 많은 학생이 출석한다 (3.8%), 정치사상교육 단속으로 더 많은 학생이 출석한다 (1.9%)로 나타났다. 현재의 위기는 의무 교육의 이탈자들을 다수 양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 경제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면, 단순히, 학기 초에 학용품이나 학교에 갈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데 드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⁴⁰그러나 부모의 사망이나 부모의 한국, 중국행 등의 행방불명 상태로 10대 가장의 상태에 놓인 경우⁴¹나, 부모의 일손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에 내야 하는 과제의 부담으로 학습 의지가 높지 않은 경우도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여학생의 경우, 북한 여성들이 가정 경제 부양을 책임지는 탓에, 어머니를 돕거나 어머니를 대신하여 온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도맡게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출석률이 낮은 상황은 시 교육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시 교육부에서도 별다른

³⁹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함흥시 소학교 출석률 이 60%에 그치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기되는 경제적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여 담임 교원들로부터 비판받자,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채은 기자, '당 창건일 꽃바구니 비용, 소학교 학급 내 '이들'에게만 거뒀다', 2023년 10월 11일자,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31011-1/>

⁴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 3월 열린 전원회의에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복과 가방을 공급하라는 과업 지시를 하달한 바 있다. 이채은 기자, 2022년 4월 7일자 위의 기사.

⁴¹ 이 소년은 어머니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떠안게 됐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가장으로서 돈을 벌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어머니가 사망하고 나서부터는 집에 벌이를 하는 이가 없어 가족 전체가 끼니를 굶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전언이다. 이채은 기자, '어린 나이에 집안 가장된 청진시 10대 소년, 손수레 끌어서...', 2023년 9월 18일자,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30918-2/>

대책이 없어, 학교 교장들에게 학생들의 출석률을 보장하는 단순 조치가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교원에게 전가되었다.

통상 학교 교육으로부터 이탈자들이 발생할 시[2-6], 일정 기한 이상으로 결석을 하는 경우에 졸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⁴²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이 취하는 조치[2-7]는 선생님 및 학급 학생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출석할 것을 고지하는 형식(58%)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생활 총화 및 처벌을 통해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강제성(30%)도 나타나고 있다.⁴³ 그러나 학교장이나, 학교 여건에 대한 ‘물질적 기여’를 통해 ‘졸업 가능 요건’에 미충족하더라도 이를 무마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든 응답도 존재해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특혜를 받는 차별적 구조임을 알 수 있다.⁴⁴

2.2 학교 교육 내용의 질과 보완 방안

2.2.1 중요 교과목에 대한 인식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3-1]은 북한 교육의 방향성과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학부모의 중요 교과목 선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중복응답) (질문 3-1)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자연과학	도덕	미술	체육	기초기술	음악	역사	조선지리	혁명력사	컴퓨터	기타
응답	19	26	41	15	3	2	5	2	6	0	1	3	20	3

⁴² 가족 중 사망이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결석한다. 퇴원해서는 다시 출석한다. (함남3), 월에 30일 중 25일 수업 중 3일 결석까지 가능하다.(자강1) 결석은 병결로 한 학기 10일 이하 가능하다(강원2)

⁴³ 그외답변으로는 등교해야 하는 최소일지만 출석하면 놔둔다 4%, 잘사는 경우 뇌물을 제공하면 놔둔다 8%이다.

⁴⁴ 교장하고 사업하면 졸업증 해준다.(함남6), 학교 현대화에 기여하거나 전국경연에 참가하는 경우(강원1), (결석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학교 건설 운영자금에 이바지 한다.(황남1), 학교나 유치원 꾸리기 자금을 지원한다(황남5)

해당 과목을 고른 이유[3-2]로는 첫 번째, 자녀의 지식과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40.7%)이고, 두 번째,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기 때문(32.2%)이다. 순수하게 자녀의 흥미도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특히, 1순위로 나타난 영어와 2순위인 수학의 경우 고급중학교 진학 이후 더욱 집중적으로 교육되고 대학입시에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사교육의 주요 대상 과목이기도 하다.

이 외에 컴퓨터, 자연과학이 높은 선택을 받았는데, 북한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표방하여 지식수준과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기조를 표명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기술중등학교가 개교하여 최소 1가지의 현대적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 내용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기회 창출 등 교육 정책 전반적으로 기초과학, 컴퓨터 등이 중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학부모들의 인식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4] 컴퓨터, 과학기술, 외국어교육에 대한 평가 (질문 3-4)

구분	컴퓨터	과학기술	외국어
1. 좋은 교육이다.	47	42	40
2. 불필요한 교육이다.	3	8	10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컴퓨터, 과학기술, 외국어 교육에 대해 좋은 교육이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3-4] 그런데 해당 교과목의 교육 수준은 실제 학교에서 코로나 및 경제난으로 인해 기대치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2.2.2 교육 내용 부실성과 과외에 대한 의존도

실제로, 위 세 과목에 대한 교원 능력이 충분한가[3-5]에 대한 질의에 선생님께 따라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준비하며(42.1%), 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난다(36.8%), 수업 준비가 미흡하다(17.5%)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표5] 교육 수준에 대한 평가 (질문 3-5)

구분	빈도수	비율(%)
1. 미흡하다	10	17.5
2. 교사의 개인적인 준비	24	42.1
3. 지역에 따라 수준이 다름	21	36.8
4. 국가 수준의 교육이행	1	1.8
5. 관심없다.	1	1.8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해당 과목의 특기를 갖추는가[3-6]에 대한 현실적 파악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실제 컴퓨터를 잘 다루는 학생들이 가정교사나 가정 내 컴퓨터를 갖추어 학습한 경우(61%)라고 인식하고 있었다.⁴⁵ 혹은 수재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에 컴퓨터를 잘 다룬다(22%)고 밝혔다.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의 질 좋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가정교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컴퓨터나 외국어 등 실리적인 교과목의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정치사상 교육의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한 질의[3-7]에서도 발견되었다. 정치사상 교육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는 응답이 90%에 달했다. 불필요한 이유[3-8]는 이미 교과 과정 내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40.4%), 컴퓨터나 외국어 등 실리적인 교과목의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36.2%)하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학교의 국가 정책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면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3-8] 많은 수의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과외를 시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한다(39.2%)고 답변하였다. 거주이동의 제한 등 학교를 변경(24.1%)하는 것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과외교습’은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저도 비용이 없어 포기한다(15.2%)는 의견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빈부격차에 따라 학습 발달의 격차도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국가나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여 고치도록 한다는 의견은 단 2.5%에 머물렀다.

2.3 무상 교육 실태

2.3.1 학교 재정 책임 주체

북한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무상 교육’이다. 학교 운영의 재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누가, 얼마나 지느냐의 문제는 ‘무상 교육’ 실현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의제이다.

⁴⁵ 주로 특수기관 교육을 받은 수재(22%)보다 가정교사 및 가정 내 컴퓨터를 가지고 학습한 학생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는 비율(61%)이 월등히 높아 계층적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집중적 교습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13.6%에 그쳤다. 일반학생이 모두 다 잘 다룬다는 답변은 3.4%였다.

[표6] 학교 운영의 재정적 책임 기관 (질문 4-1)

구분	빈도수	비율(%)
1. 군·도당위원회	2	2.7
2. 교육부	6	8.2
3. 학교	43	58.9
4. 청년동맹	6	8.2
5. 학부모	14	19.2
6. 어떤 기관도 책임지지 않음	2	2.7

학교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질의[4-1]에서 학부모 대다수는 학교 스스로가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음(58.9%)을 밝혔다. 두 번째로는 학부모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견(19.2%)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학교가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이면에는, 학교의 책임이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50명 중 무려 39명의 응답자[4-2]가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수시로, 비자발적으로 낼 것을 강요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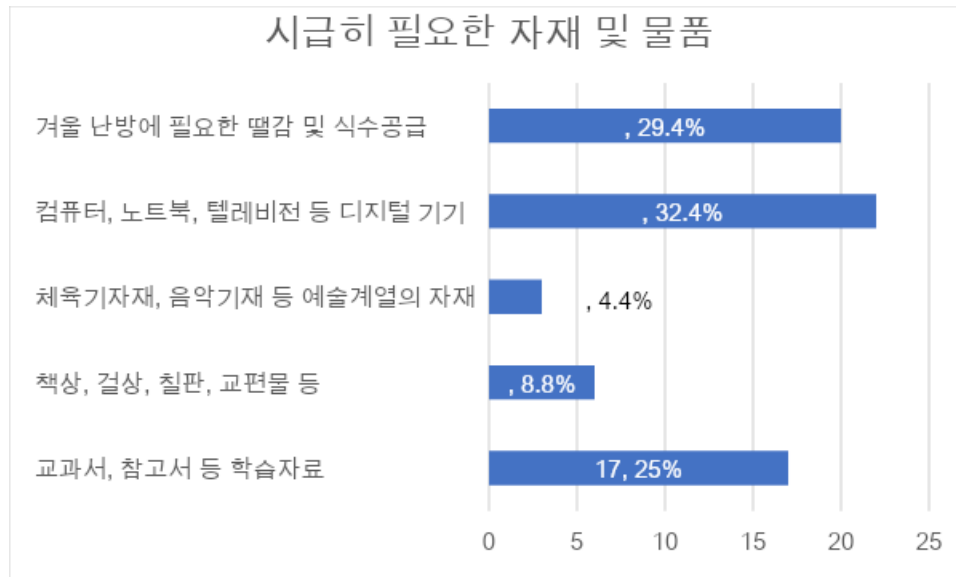
2.3.2 부족한 물적 자원

학교에서 재정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항목은 과연 어떤 것일까. 현재의 상황에서 학교에 무엇이 부족한가[4-3]를 살펴보면,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것은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등 디지털 기기(32.4%)로 나타났다.⁴⁶ 다음으로는 겨울 난방에 필요한 땀감⁴⁷과 식수 공급(29.4%)과 교과서, 참고서 등 학습에 필요한 자료(25%)로 나타났다. 무상 교육을 표방하는 북한에서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땀감 및 식수가 부족한 점이 확인됨과 동시에, 교육 정책 변화로 표방하던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등 디지털 기기 부문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⁴⁶ 북한은 아동권리협약(CRC) 제5차 보고서에서, 2008년부터 전 소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컴퓨터 및 외국어 교육이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⁴⁷ 겨울철 화목 비용을 학생들에게 재촉하여 학교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10월 초면 겨울나기 화목을 마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화목대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지방인민위원회나 공장 기업소들이 교육기관의 화목을 해결해주었지만, 이러한 관행은 오히려 사라졌다고 한다. 이채은 기자, '무단 결석하는 北 학생들 늘어나...화목대 부담에 등교 거부, 2022년 12월 5일자,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21205-4/>

[그림4] 시급히 필요한 자재 및 물품



학교에서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 노트북 등은 실질적으로 접근성에 있어 차이가 나고 있었다.⁴⁸ 해당 기기를 마련한 방법[4-4]으로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만 집에서 사용(47.5%)하고, 국가의 일부 지역의 특수학교에서만 지원되고 있다(23.7%), 그 외 학부모들이 (학교에) 제공하였다(20.3%)라고 나타나, 학습 기회의 불균형과 학부모에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IT 기기 부족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 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개선한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제5차 보고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평안남도의 시골 학교 1곳을 리모델링하고 재정비하여 다른 시골지역 학교들이 참고할 모범학교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DailyNK 기사에 따르면 평양시와 황해남도 해주시 소학교들이 컴퓨터 보유 대수가 무려 63%에 달하고, 함경남도 고원군과 강원도 고산군은 6%로 나타나 시설 현대화 차이는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⁴⁹

⁴⁸ 2020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원격교육법'을 채택하였고, 김정은은 2021년 12월 말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비상방역 대책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원격교육 강화를 지시했다.

⁴⁹ 정태주 기자, "소학교 정보기술 수업 중요하다면서 설비는 자력갱생 하라?", 2022년 12월 19일자, <https://www.dailynk.com/20221219-4/>

취약 계층인 학생들의 학습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경우 지원이 있는가[4-5]에 대한 질문에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서 국가차원의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47.1%)이며, 아울러 일부 학생들이 수업을 결석하여 제대로 학습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학부모 의견(33.3%)이 주를 이뤘다. 학교에서 지원한다는 응답은 단 7.8%(4명)에 그쳤다. 계층 간의 편차를 보완하고 최소한의 학습 의지를 유지하게 만드는 국가차원의 조치가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3 학부모 비용 전가 항목

이러한 가운데,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일상적인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3년 이내 1) 학교 시설 보수비, 2) 노트북, 실험도구 3) 교원 지원 4) 난방 5) 토끼 가죽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가 부담한 내역을 간단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통상 고등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둔 부모의 경우 학교 시설 보수비에만 연 평균 조선 돈 20만원을 바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연소득이 80만원에 그치는 최저 소득을 가진 가정(평남1)마저 돈 3만원씩 1년에 12회를 바치고 있었다. 학교가 요구하는 최소 기준이 가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책정 및 상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 형편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정의 월 소득이 1,000,000원~2,000,000원에 해당하여 풍족할 경우, 한 달에 학교시설 보수비로 돈 15만원 1년 4회, 담배 5보루 1년 1회, 모래, 자갈, 철근 1년 1회(평양3, 평양5)를 부담하는 반면, 월소득 1,000,000원 이하의 어려운 형편일 경우 평균 돈 5만원 1년 7회, 담배 1보루 2회, 시멘트 100kg 1년 1회, 판자, 각자 1개씩 1년 4회(평양 1,2,4,6)⁵⁰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편에 따라 약 2배의 격차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도 따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상 담배 1보루나, 술 10리터 등 기호식품과 쌀 15kg 1년에 2회 혹은 돈으로 10만원 1년 1회, 1만원 1년 4회 등이 부담되고 있었다. 교원에 의한 차별적 대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한편, 학교 난방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통상 땀감 장작 1단을 1년에 3회 부담하거나, 구멍탄 20장을 1년에 1회씩 부담하고 있었다. 기초적 여건의

⁵⁰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거두는 학교시설보수비, 노트북, 실험도구, 교원에 대한 지원, 난방, 토끼가죽 등의 현물지원 외에도 학부모가 노력 동원에 나서는 경우를 포함하면 자녀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데 과중한 부담이 지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악함에도 교육 정책 변화에 따라 노트북, 실험도구가 학부모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었는데, 각 지역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제공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7] 최근 3년 내 노트북, 실험도구를 위해 학부모가 제공한 학교 운영비 (질문 4-6)

지역	초등학교	지역	고등학교
함남1	0회	함남3	0회
		함남4	0회
		함남6	0회
자강	표본없음	자강3	돈 10만원 1년1회
강원	표본없음	강원2	돈 1만원 1년 2회
		강원3	돈 3만원 현대화비 1년 2회
평양1	0회	평양3	돈 30만원 1년 1회
평양4	돈 20만원 1년 1회	평양7	0회
황남4	돈 20만원 1년 1회	황남1	돈 8만원 1년 1회
황북2	돈 10만원 1년 1회	황북1	돈 5만원 1년 2회
황북3	돈 5만원 1년 2회		
함북3	돈 13만원 1년 1회	함북2	돈 13만원 1년 1회
평북1	돈 13만원 1년 1회	평북3	돈 10만원 1년 1회
평북5	돈 13만원 1년 1회		
평북6	돈 11만원 1년 1회		
양강	표본없음	양강2	돈 15만원 1년 1회
평남4	돈 5만원 1년 2회	평남1	돈 10만원 1년 8회
		평남3	돈 6만원 1년 3회
		평남7	돈 10만원 1년 1회
		평남8	돈 5만원 1년 2회

기초적인 교육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 정책을 펼치고, 그 부담을 학부모에게 가중시키는 점에 대한 비판 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지점이다.

2.3.4 학생 노력 동원 실태

학생들이 '노력 동원'[4-7]에서 주로 하는 작업은 건설 현장, 농촌 지원(30.8%), 축산, 양묘장 관리(23.8%) 순이다.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작업은 비교적 간단하고 난방에 필요한 작업인 땀감, 도토리 줍기(16.2%)와 단순 미화 및 마을 정비 사업 등에 동원(4.6%)되는 수준이 아닌 강도 높은 노동 부과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 동원은 교과과정 내에서 진행되는데, DailyNK 기사에 따르면 개천시가 2023년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모내기 총동원 기간으로 선포하고, 학생들은 20일부터 31일까지 무려 11일간

학업을 중단하고 모내기 동원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수업이 끝나는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일 이후에는 학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로 모내기에 동원되었다.⁵¹ 이는 명백히 학습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표8] 최근3년 이내 학생의 '노력동원'

구분	빈도	비율(%)
1.떨감 줍기	21	16.2
2.건설현장, 농촌지원	40	30.8
3.양묘장, 축산	31	23.8
4.단순 미화, 마을 정비	6	4.6
5.부모 비용으로 제외	29	22.3
6.기타	3	2.3

그런데, 이중 일부 학생은 부모의 비용으로 동원에서 제외(22.3%)된다고 밝히며, 학교 공여 부담액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하루 한끼도 먹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 동원에 동원되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사상 비판까지도 가한다고 한다.

[표9]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이유 (질문 2-5)

구분	빈도수	비율(%)
1.토대의 한계	19	15.4
2.교육 내용 불만족	14	11.4
3.노력동원 및 과제부담	41	33.3
4.학교생활 낮은 흥미	30	24.4
5.생계 유지	18	14.6
6.기타	1	0.8

이 결과 학생들 스스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주요 요인[2-5]은 강제노력동원으로 인한 피로감(33.3%)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서 흥미도가 떨어지기 때문(24.4%)이라는 의견이 높은

⁵¹ 이채은 기자, '모내기 전투'에 또 교육권 침해한 북한... "11일간 수업 중단", 2023년 6월 7일자, <https://www.dailynk.com/20230607-3/>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강제동원 뿐만 아니라, 청년동맹이나 소조활동, 정치사상 교육의 비중 등 북한 교육 특수성으로 인한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특히, 강제노력동원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국가의 경제난과 연결되어 근본적인 개선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무상교육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불만 제기는 충분히 전달[4-8]되고 있을까. 대다수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44%), 전혀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26%)고 밝혔다. 충분히 전달되는 경우라도, 비용 부족으로 인한 문제(14%)가 상존하며, 충분히 전달된다는 의견은 단 2명에 그쳤다.

2.4 교육 접근권 보완 방식에 관한 질문

2.4.1 미취학 학생의 입학 준비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학생들의 경우 소학교 입학 준비[5-1]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고 있으며,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교육을 받거나(40%),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28.2%) 교육 접근권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유치원 시기부터 가정 형편에 따라 가정교사를 두는 경우(22.7%)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취학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들이 초등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교육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소학교 입학 전 교육이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이 단 1명 뿐인 것을 보아 선행 학습의 중요성이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4.2 성적과 과외 교습 비용 총당

희망하는 각 교육 기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5-4]한가.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뛰어난 성적(54%)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뇌물(경제력)(18%), 집안 배경 및 힘(16%), 출신 성분 및 토대(8%)로 나타났다.

집안 배경 및 힘이나 출신 성분 및 토대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학부모의 성분 토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적이 좋은 교육기관 진학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점은 북한의 기회가 균등한 것으로 해석되도록 만든다.

그러나 뛰어난 성적을 얻기 위해 ‘과외 교습’이 얼마나 횡행하는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5] 모든 지역에서 과외는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빈도의 과외 과목은 영어로 나타났다. 중국어를 포함하여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통상 외국어 과외를 받는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26명에 달했다. 다음으로 수학이 23명, 물리, 화학이 11명, 컴퓨터가 10명이었다. 해당 과외에 충당되는 비용이 상당함에도 여러 개의 과목을 복수로 받는 경우도 나타났다. 평남 지역의 경우 고등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수학, 물리, 화학 과목 중 학생의 필요에 따라 과외를 진행하며, 매월 중국돈 800~1500위안을 지급하고 있었다. 초급중학교 학생들은 경우 매월 중국돈 500위안을 지출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춤이나 손풍금(매월 25달러, 매월 쌀 15kg), 피아노(매월 15달러), 성악(매월 15달러), 노래(매월 8.5달러), 바이올린(매월 30달러), 기타(조선돈 15만원), 축구(쌀 10kg)를 별도의 과외 교습을 통해 배우는 학생들도 있었다. 저학년일 경우 어릴수록 과외비가 올라간다고 한다.

평양 지역의 과외 수준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학교 교과 과정 및 소조활동을 통해 충분히 충족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입시 과목보다 오히려 예체능 계열의 과목(기타, 바이올린, 축구, 성악 등)을 별도로 교습 받는 것이다. 영어, 수학 교과목은 한 과목당 25달러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타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지역별로 교원을 포함한 학교 교육 수준이 다르고, 국가 차원으로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지역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3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기회 획득

고등교육으로의 진학[5-6]은 한 반의 학급 인원 평균 26.5명 중 남성이 2.56명, 여성이 2.34명이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여성과 남성의 숫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남성의 비중이 조금 높다. 남성은 대부분 군 입대를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대학 진학 숫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진학은 북한 사회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니며, 간부급으로의 승진은 물론, 좋은 직장 자체가 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임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보다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4.4 지역 및 도농 간 격차 극복

대학 진학률에도 지역 간 차이가 있다[5-7]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학부모들은 농촌 지역의 교원과 도시 지역의 교원 간에 자격과 교육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36.1%) 농장원 집안에서 대학에 입학하려는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35.2%),

상대적으로 학생의 대학 진학에 대한 의지가 더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 입학이라는 기회는 분명 가치가 높고, 국가 정책 상으로도 이러한 고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농 간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남는다. 뿐만 아니라, 도농 간 격차보다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고(12.3%), 가정 형편 및 뇌물로 인한 기회의 차이(15.6%)가 벌어지는 사회적 추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학부모도 존재했다.

2.5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2.5.1 궁극적 원인에 관한 고찰

자신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 힘든 궁극적인 이유[5-8]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우선적으로는 성적(49.3%)으로 인해 원하는 대학에 가기 힘들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선호하는 중등교육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우선순위가 ‘성적’이라는 응답과 일치한다. 다음으로는 뇌물을 제공할 형편이 되지 못해 대학에 가기 힘들다는 것이다.(22.5%) 다음으로 토대문제(15.5%)로 인한 한계라는 답변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가정교사를 둘 형편(9.9%)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차지하였다.

뇌물 공여의 경우 이로 인한 교원 및 부정 입학에 우려[5-9]할 수 있는데, 부정입학을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34.4%)보다 부족한 교육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35.4%)이 다소 높았다. 나아가, 뇌물로 인한 부정입학이 있는 것이 상관없다는 의견(13.5%)도 상당함을 보여줌으로써, 뇌물 공여에 대한 느슨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복수응답이 가능함에도 부정입학은 없다는 의견에 단 1명이 동의함으로써 만연한 실태를 잘 보여준다. 일부의 학부모들은 성분이 좋지 않아도 뇌물로 인해 입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12.5%)고 답변하여, 성분에 대한 뇌물의 영향력 혹은 나아가 북한식 ‘순기능’을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5.2 교육에 회에 대한 인식

궁극적으로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교육’ 목표는 무엇이며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고급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은 것[6-1]에 대해 학부모들은 자녀가 간부가 되기에 필수 과정(33.3%)임과 동시에 다음으로 사상교육을 완수하였다는 증명이 된다(15.8%)고 인식하여 북한 사회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보편적인 의무 교육의 기대치인 사람으로써 필요한 세계관이 넓어지고 필요한 지식을 갖추게 된다(28.1%)고 기대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직장을 얻기 위한 과정(14%)이라는 인식과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8.8%)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학부모는 비교적 적은 것을 고려할 때, 진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실효성 측면에서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최근 탐구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강조하고 중등학교에서 직업기술교육을 새롭게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6-4]는 기관의 간부 및 주요 요직에 가기 위해서 중요하다(40.4%)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하다(31.6%)에 큰 비중이 나타났다. 의무교육의 역할과 대학 입학의 가치상에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택한 학부모는 15.8%에 머물렀다.

의무 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학교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단계이다.[6-2] 긴요한 지원 대상으로 신분에 상관없이 수재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을 선택한 비중(40%)이 높은 것은 북한 교육 상 '성적'이 가장 공평하고 평등한 기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난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25.5%),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27.3%) 지원할 것을 선택하면서 의무 교육 본연의 취지에 맞는 긴급한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5.3 교육 접근권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당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6-3] 어떠한 노력을 펼쳤는지에 관한 질문에 성적이 낮거나 떨어지면 더 많이 교육한다(37%)와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편한 것(18.5%)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여학생 남학생 차별 없이 대한다(16.7%),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한다(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자녀의 앞날을 위해 대학 입학 과정에서 불공평이 없어야 한다는 의식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불공평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기준으로 대학을 가야 하는가[6-5]에 대한 질문에 50명 중 47명이 학교 성적을 선택하여, 재력이나 토대의 영향력에 대해 경각심을 충분히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6-6]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도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여성은 생계 활동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32%)거나, 북한 사회에서 주로 가정 살림이나 아이를 키우는 일을 맡아야 한다.(23.7%)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이 좋은 직업을 더 가지도록 남학생이 대학에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20.6%)도 상당했다. 여성과 남성 간의 차별적 대우와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계층이 교육을 충분히 받는 것에 대한 의견[6-7]은 어려운 계층은 적극적으로 돕고 장학금 등

교육을 시켜야 한다(52.8%)와 어차피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를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28.3%)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북한 내부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통상 북한의 학생들은 미래 직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6-8]에 대해 출신성분이 좋으면 대학에 입학하여 간부가 되고자 하며(45.1%), 대부분 군입대를 하여 당원이 되고자 한다(30.4%), 출신성분에 따라 원하지 않는 곳에 배치된다(21.6%) 순으로 나타났다.

결정적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간부가 되는 삶과 원치 않는 곳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는 낮은 출신 성분을 가진 학생의 미래는 교육과 밀접히 연결됨에도 이를 연결지어 생각하고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어떻게 확인하는 가[6-9]를 살펴보면,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할 때(32.8%), 소학교, 고등중학교에 우수한 인재 선발에 제외되면서(16.4%), 군 배치 당시에 입대가 좌절되며(19.7%), 대학입학이 어려운 상황에서(14.8%), 혹은 사회진출 이후에(14.8%) 뒤늦게 이를 인지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토대에 의해 직업(직장)이 정해지는 것[6-10]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48%), 올바르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38%)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불공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 무력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동기를 북돋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론 및 제언

교육은 빈곤에서 벗어나고, 불평등을 줄여주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게 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또한 교육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초적 요소이기도 하다.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법은 평등한 교육 접근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역, 성분, 경제력, 성별에 따른 구조적 차별의 장벽은 북한의 법과 교육 현실의 간극을 만든다. 코로나로 가중된 사회적 위기 속에 의무 교육으로부터 이탈한 빈민 가정 아이들의 교육권 박탈 상황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교원 또한 당국으로부터 학생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 이상의 부담을 지고 있다. 강제 노동과 착취의 수준도 개선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은 사회·문화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북한 사회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북한 사회 내부의 맥락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북한의 법과 정책내에서 교육접근 기회의 차별을 줄이고 기회균등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교육권을 개선하고, 나아가 북한인권전반의 증진을 가져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북한당국에 대한 권고와, 국제사회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북한 당국에 대한 권고

- **교육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교육 실태 파악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

북한이 제출한 아동권리협약(CR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기존 아동 관련 데이터 수집 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학교 취학 및 등록률, 학교와 교육 기관 수 등 관련된 지표 파악, 특히 출결 상황을 비롯하여 학습권 침해 여부, 과도한 노력 동원, 뇌물 공여, 교원으로부터의 심각한 차별 피해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응당 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제사회와 공유, 엄격한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지역적 차별 및 성분제에서 벗어난 진로의 기회 제공**

지역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지방 농촌지역 중학교 졸업생 대상, 중앙대학 입학할당제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인구분포 비례에 맞게 그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점진적 도입의 방식은 중학교 졸업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입학할당제 도입의 선전 효과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입학할당제를 통해 중앙대학에 입학한 지역 출신자들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직장배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지역 출신 졸업생들의 직장배치에 있어서 지역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은 성분 또는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방안이며, 따라서 거주 이전의 자유 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학교 교육과 진로 설정에 있어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철폐**

일부 전공부문에 국한하여 여학생의 진로를 설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모든 전공부문에 대한 여학생 진학률을 남학생과 동일하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비단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에 대한 다양한 기회 제공에 있어서도 여학생에 대한 장벽을 없애야 한다.

여성 대학졸업생들에게 당, 행정, 기관과 기업소의 간부 등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부사업 원칙을 수정해야 한다. 제대군인, 당원, 대졸자 등 기존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 현재 원칙을 개정해, 능력있는 여성을 간부로 등용한 후 정기적으로 업무 실적을 평가해서 입당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는 유니세프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교사 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교사들 대상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유니세프의 협력은 교육자료 및 지도 방법 등의 공유가 될 것이다. 교사들부터 성평등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함으로써 교육 및 학생 관리에서 성평등을 생활화할 수 있다. 교사 대상 성인지 교육이 실시된 다음 해부터 초급중학교 학생들 대상 성교육 함께 성평등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와 학생들 대상 성인지 교육은 북한 사회 내 전반적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 **교육 현장에서의 북한 당국의 재정적 책임 강화**

지역 기관, 후원 단체, 학부모 등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 바치는 전체 재정부담을 살피고, 이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당국이 책임지고 있는지 보고해야 하며, 당국의 재정 부담 비중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외부담방지법의 현실화를 위하여, 시, 군 인민위원회가 정한 후원단체와 기관의 교육자재 후원을 정례화해야 한다. 후원 정례화 항목은 단기적으로 첫째, 겨울철 학교 내 난방을 위한 화목 제공을 즉각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화목 제출 부담을 없애야 한다. 둘째,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학교꾸리기'에 사용될 페인트와 석회 제공을 지역 후원단체의 제공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

중앙의 교육재정에서 교사 인건비를 관리함으로써 현재 시장물가에 비례해 인상해야 한다. 인건비 인상은 교사 1인 식량 비용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하루 600g 분량의 쌀과 부식물 비용을 한달 월급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우선 도입하길 권고한다. 이를 통해 교사가 학부모 뇌물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관행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학습 기기 및 도구 제공 확대**

농촌·군단위 중학교에 교양도서 전용 판형 컴퓨터 구비를 제안한다. 대략 25-30달러 정도 가격인 판형 컴퓨터를 독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소외된 학교부터 공급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유엔의 교육, 문화 부문의 기관인 유네스코의 협력을 받아 건강, 성교육 및 위생문제 관련 서적까지 포함시키면 국제사회와 협력사업의 모델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 **강제 노동의 점진적 축소 및 폐지**

농번기 한달간 합숙 농촌동원(학생 농촌지원 전투)은 3년 계획 기간을 정해 점진적 방식으로 폐지해야 한다. 고급중학교 내에서 농촌동원 학년을 1년에 한 학년씩 올려서 3년 내 중학교 학생의 농촌 동원을 전면 없애도록 한다. 줄어드는 협동농장 지원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농업기계화를 추진한다. 다만, 농기계를 지원받는 협동농장은 아동노동력 동원의 전면 폐지 여부를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으로 점검 받을 것을 전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역할

- **교사 역량 강화 사업 지원**

유니세프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가 지방 학교의 교사역량 강화 교육 방안에 대해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와 협조해 논의를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특히 지방과 농촌 지역 교사들의 영어, 과학 등 필수 전공과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의 협력이 필요하다. 교사 대상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충분히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 교육의 정기성을 보장하는데도 비대면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

- **지방 학생들을 위한 정기적 영어 수업 지원**

영국, 독일 등의 외교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대학 간의 협력사업을 도모해 북한의 지방 사범대학교 학생들 대상 비대면 영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지방 사범대학 학생들의 비대면 영어교육은 북한의 지방 인재 양성과 교육 활성화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 **협동농장의 아동 노력동원의 점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를 위한 협력**

북한의 협동농장에 아동 노력동원을 점진적으로 축소 그리고 장기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개발국가의 농업 기계화 실현을 돕는 프로젝트로 AFP (Agriculture Food Program)의 협력을 북한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강제노동 전면 폐지와 식량권 확보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관련 국제기구와 유엔 안보리 제재 위원회가 북한 농업기계화 전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정책을 도입 실행하는 협동농장에 한해 농번기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학교 학생들 대상 '농촌지원전투'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원회 (CRC) 또는 사회권 위원회 (ICESCR)의 모니터링**

북한의 도, 시, 군 당교육부 및 해당 인민위원회 교육과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 실시를 제안한다. 2017년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의 평양 방문과 유사한 형식이면 될 것이다. 즉 북한이 가입비준한 CRC 또는 ICESCR의 전문 위원 대표단이 농촌지역 중학교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북한당국이 지향하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으로 발돋움하는데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참조 문헌

단행본

김지수,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 RR 2019-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5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쟁점목록 답변.

UN Human Rights Council, Commission of Inquiry(COI),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5th session, A/HRC/25/CRP.1, February 7, 2014.

논문

김병연, 김지수,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조건과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 2019,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 pp.175-205

김석향, 김경미,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pp.105-134.

김지수, “제7차로동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 『통일교육연구』, 2017, 제14권 제2호, pp.1-21.

전일구, “북한 학교의 방과후활동 연구 :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신문(2012-17년)에 나타난 과외·소조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2018, 10집 2호, pp.241-288.

전재황,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2014, 제20권 2호, pp.21-60.

조현정, “북한 교육에서 사교육 활용의 양상과 그 의미”, 교육과학연구, 2022, 제53권 제4호, pp.101-130.

신문기사

살몬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살몬 보고관 첫 보고서 유엔 제출…“중러, 탈북민에 ‘강제송환금지 원칙’ 적용해야”, 2022년 10월 15일자, VOA, <https://www.voakorea.com/a/6790547.html>

이채은 기자, ‘무단 결석하는 北 학생들 늘어나…화목대 부담에 등교 거부’, 2022년 12월 5일자,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21205-4/>

이채은 기자, ‘새 학년 시작됐지만 학생 출석률 저조… “가정형편 어려워서…”’, 2022년 4월 7일자,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20407-1/>

이채은 기자, ‘모내기 전투’에 또 교육권 침해한 북한… “11일간 수업 중단”, 2023년 6월 7일자, <https://www.dailynk.com/20230607-3/>

이채은 기자, ‘어린 나이에 집안 가장된 청진시 10대 소년, 손수레 끌어서…’, 2023년 9월 18일자,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30918-2/>

이채은 기자, ‘당 창건일 꽃바구니 비용, 소학교 학급 내 ‘이들’에게만 거뒀다’, 2023년 10월 11일자,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31011-1/>

정태주 기자, “소학교 정보기술 수업 중요하다면서 설비는 자력갱생 하라?”, 2022년 12월 19일자, <https://www.dailynk.com/20221219-4/>

표

- [표1] 의무교육 기간 확대에 대한 의견 (질문 2-1)
- [표2] 코로나 위기 하 출석률 (질문 2-8)
- [표3]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 (질문 3-1)
- [표4] 컴퓨터, 과학기술, 외국어교육에 대한 평가 (질문 3-4)
- [표5] 교육 수준에 대한 평가 (질문 3-5)
- [표6] 학교 운영의 재정적 책임 기관 (질문 4-1)
- [표7] 최근 3년 내 노트북, 실험도구를 위해 학부모가 제공한 학교 운영비 (질문 4-6)
- [표8] 최근 3년 내 학생의 '노력동원' (질문 4-7)
- [표9]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이유 (질문 2-5)

그림

- [그림1] 조사대상자 지역 분포
- [그림2] 조사대상자 성별 분포
- [그림3] 조사대상자 직업 분포
- [그림4] 시급히 필요한 자재 및 물품

A Human Rights Challenge in Access to Education in North Korea: Contradiction Between Laws and Reality

Authored by

Daily NK
Unification Academy (UA)

Supported by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30th November, 2023

Table of Contents

Introduction	68
About Working Group	
Structural Barriers to Access to Education in North Korea	72
Summary	
Introduction	
The Right to Education in International Treaties	
North Korea's Education Policy	
Discriminatory Factors in Accessing to Education in North Korea	
- Discrimination Based on Region	
- Discrimination Based on Songbun and Social Class	
- Discrimination Caused by Economic Disparity	
-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Access to Education in North Korea	106
Summary	
Introduction	
Survey Results	
- Introduction and Actual Status of North Korean Policy on the Expansion of Compulsory Education Period	
- Quality of Education Content and Supplementary Measures	
- Current Status of Free Education	
- Questions about Approaches to Complement Access to Education	
- Social Perception of Educat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144
Reference	150
Tables and Figures	153
Appendix: Questionnaire	169

INTRODUCTION


As Article 26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states,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o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s obvious for many reasons, but especially for having deep implications for individual rights and critical thinking. In North Korea, while seemingly claiming equal access to education among its citizens, the reality differs. Although North Korea guarantees 12 years of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for all citizens under its constitution and has ratifi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⁵², this research report reveals that structural barriers and actual conditions on the ground contradict the regime’s obligations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The two-part report, conducted by Daily NK and Unification Academy (UA) in partnership with NKnet, shows the systematic barriers and current discriminatory practices that exist in North Korea that limit access to education for all citizens. In addition, both reports reveal the intertwined nature of human rights issues that are embedded within the education system such as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and women, forced labor, and songbun and social classification system⁵³. The report includes recommendations for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proposes the role that international actors can play in addressing unequal access to education and guaranteeing education rights in North Korea.

UA and NKnet, with a decade of experience in research on North Korean society, carried out research by interviewing defectors who recently left North Korea between 2017-2021 and those who have insights into the education system and administrative mechanisms in North Korea. They also consulted with academic scholars with expertise on North Korea’s education and social structures to develop recommendations in addressing this issue. Backing the findings of

⁵² Article 26 of the UDHR also states that “education is a basic right for all, and elementary education should be free and compulsory, and university education should be granted on the basis of merit.” Moreover, according to Article 13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equality of opportunity” should be the guiding principle for providing education services.”

⁵³ It classifies people on the basis of State-assigned social class and birth and also includes consideration of political opinions and religion. ICYMI: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DPRK: <https://seoul.ohchr.org/en/node/547>



UA and NKnet's research with the most up-to-date data, Daily NK conducted a survey of 50 in-country citizens by utilizing its network inside North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s part of a joint advocacy working group, findings of the report will aim to contribute to raising the awarenes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situation of education rights in North Korea, as well as seek cooperation on advocating for equal access to education for all North Korean citizens.

ABOUT THE WORKING GROUP

To address the human rights challenges regarding access to education in North Korea, a coali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itiated a thematic advocacy working group supported by the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to engage in collective, coordinated, and issue-based advocacy. The coalition consists of five loc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Daily NK, 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 (NAUH), SR Production, and Unification Academy (UA) in collaboration with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NKnet), each bringing different strengths on content production, research and documentation, and campaigns, to collectively address a thematic human rights issue in North Korea. Findings of this report became the basis of other advocacy related activities of working group partners, including campaigns and content production.

Authors of this report and other contributing organizations to the this working groups are as follows:


Daily NK

Daily NK is the world's first Internet news source on North Korea, the fastest and the most accurate to report inside news on North Korean society since its December 2004 inaugural edition. Daily NK is dedicated to realizing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assisting the Korean government in adopting the appropriate policies on North Korea.

Unification Academy (UA)

UA aims to promote a free market economy, advocate human rights, and spread valu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o achieve its goals, UA is working on education for activists, content production tailored to North Korean audiences, and encouraging discourse on North Korea.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NKnet)



NKnet was founded by leading figures of the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NKnet conducts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situation under Kim Jong un, the changed society since the Arduous March, and its effect on people's mindset. NKnet pursues this research analysis to be used for policy making and advocacy.

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 (NAUH)

Founded in April 2010, NAUH is an organization that work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together with young people from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world. NAUH aim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and world peace as 'voices in action'. Its activities include North Korean human rights campaigns, education on democracy, and supporting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SR Production

SR Production is a video production company composed of North Korean defectors, providing a wide range of societal issues in North Korea through visualized media. The organization offers keen insights regarding the internal environment of North Korea based on the employees' personal experiences.

The views expressed in this publication are those of the organizations that authored their individual contributions an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views of NDI.

STRUCTURAL BARRIERS TO ACCESS TO EDUCATION IN NORTH KOREA:

EXPLORING HUMAN RIGHTS CHALLENGES STEMMING FROM SOCIO-STRUCTURAL DISCRIMINATION

Unification Academy

NKnet




Summary

This study has highlighted factors that impede fair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access rights in North Korea, leading to discrimination. The factors causing discrimination in education were categorized into (1) region, (2) social class including social origin and foundation (*sungbun* and *todae*), (3) parents' economic capacity, and finally (4) gender. The study examined how these barriers, found within and outside the school system, create discrimination. These four obstacles, prevalent in various aspects of North Korean society, are structural causes of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abuses. They are reflected in the education sector, resulting in the violation of children's rights and the depriv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study identified the 'glass ceiling' phenomenon, where political, social norms, and patriarchal biases hinder women and individuals from hostile class backgrounds from rising to political and social leadership positions. Similarly, the 'glass ceiling' phenomenon signifies situations where job placements are limited by parents' occupational categories and the origin of middle school graduates. Specifically, graduates from rural areas or remote provinces face significantly lower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in major cities including Pyongyang, and also struggle to get job placements as urban workers.

Due to the inability to secure stable funding for teachers' salaries and school operational costs, the responsibility for teachers' livelihood often falls on the students' parents. Additionally, financial and material support for maintaining school facilities depends on students' labor and the submission of 'social assignments.' Consequently, students from families unable to meet the school and teachers' demands often face disadvantages in various aspects of school life, or become targets of criticism and reproach from peers and teachers. This burden of social assignments and mandatory mobilization has led to a significant number of students, ranging from 5% to as high as 10-15%, refusing to participate in school educ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addresses the need for comprehensive strategies to resolve the multifaceted challenges in North Korea's education sector, particularly those arising from geographical, economic, and social class disparities, as well as gender differences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emphasis on education has long been a political value in North



Korea. Recently, Kim Jong-un's regime has emphasized transforming North Korea's education system into a 'powerhouse of education and talent,' focusing on educational development to 'cultivate competent individuals in alignment with global trends and current demands,' thus establishing it as a central policy initiative. However, despite these policy values, the efficacy of North Korea's 12-year compulsory free education service has been undermined by long-entrenched patriarchal and pre-modern practices, coupled with challenging economic conditions.

Therefore, this study recommends increasing the opportunities for capable students from general middle schools in rural areas to gain admission to central universities and ensuring that university graduates can be placed in jobs in their preferred regions after introducing a regional student admission quota system. It also proposes an increase in teacher salaries to reduce their dependence on external sources of income.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o enhance teachers' competencies in English and science education is emphasized to provide quality education to students, especially in rural middle schools. Additionally, the study suggests phasing out the mobiliz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for agricultural support through international aid-driven agricultural mechanization projects. Furthermore, it highlights the need to introduce a female quota in public service appointments to offer more opportunities to women in administrative and party leadership roles and stresses the importance of initiating gender-sensitive education programs and campaigns from middle school to elevate the awareness of women's rights across North Korea.

Introduction

North Korea showcases a pronounced commitment to education; as evident by the content of its primary political gatherings, official documents, reports publicized to the global community, and articles from Rodong Sinmun - the official newspaper of the Workers' Party. The Eighth Plenary Session of the 8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held in June 2023, prominently featured dialogues on the advancement of the nation's educational initiatives. Following this session, an article published by Rodong Sinmun in late June, highlighted a statement by General Secretary Kim Jong Un which emphasized the following: "The civilization of our nation is underscored by our educational standards, and the destiny of our country hinges on the execution of our educational endeavors."

Educationalists acknowledge that public education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dismantling discriminatory barriers hindering the equitable dissemination of social values and experiences in pre-modern societies⁵⁴. In essence, the primary objective of public education is to ensure that all members of a society have access to a foundational level of essential education⁵⁵. Given this, we will assess North Korea's renewed emphasis on education to determine whether its public education system adequately prepares its young generation for a brighter future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Specifically, we aim to discern if prevailing discriminatory practices within North Korean society are also evident in its educational sector, and to suggest strategies for enhanc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 a core principle of public education.

In September 2012, at the Sixth Session of the 12th Supreme People's Assembly, North Korea resolved to implement 12 years of mandatory education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decision to do so was rolled out in 2014. Since this inception, the regime has persistently advocated the vision of molding the nation into an "educational and talent powerhouse". Yet, much like many other human rights concerns in North Korea, there exists a noticeable disparity between the official narrative and the actual state of affairs in the educational domain. Ideally, the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hould offer uniform opportunities to all eligible children. However, due 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ystem, the state's

⁵⁴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Sep. 4, 2019), Institute for Education and Culture, <https://www.edulabkorea.com/reference/general.php?ptype=view&idx=810&page=1&code=general>

⁵⁵ Public Education, (Sep.. 18, 2023), Namu Wiki, <https://namu.wiki/w/%EA%B3%B5%EA%B5%90%EC%9C%A1>

deep-rooted societal norms, and diverse family backgrounds, there is a pervasive trend of biased access to educational resources. Such inequality dilutes the foundational essence of education as a 'ladder of opportunity' and leads to the perpetuation of power and economic hierarchies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Such practices infringe upon the universal right to education, as codifi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all of which have been signed and ratified by North Korea. Specifically, North Korean authorities overlook Article 28, paragraph 1(c)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which the country also ratified in 1990. This article stipulates that higher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every appropriate means. Consequently, this study seeks to pinpoint the barriers that obstruct equitable and impartial access to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North Korea and to offer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of the CRC, which advocates for "higher education accessibility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every appropriate means", the right to educational access should be duly recognized. This report delineates the primary factors contributing to discriminatory practices in the realm of educational rights in North Korea. These factors are organized into four principal categories and further divided into subcategories as follows:

(1) Geographic Discrimination:

- (a) Pyongyang vs. the other provinces,
- (b) Urban vs. Rural Areas,

(2) Discrimination by Songbun and Social Class

(3) Economic Discrimination:

- (a) Social Assignment and Labor Mobilization,
- (b) Students' Financial Contributions to School Operations,
- (c) Students' Financial Responsibilities for Teacher Livelihood,

(4) Gender-Based Discrimin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 consulted with eight North Korean defectors, three females and five males, who had previously attended senior middle school in North Korea. Additionally, we spoke with two former educators and four parents to gain ins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who have supported their children's educational journey. Among the interviewees, four completed their senior middle school education in 2017, three in 2018, and one each in 2013 and 2015. Notably, two of the interviewees finished their schooling during the era of Kim Jong-II.

- Interviewees

	Interviewee code	Defection year	Origin	School	Graduation Year	University	Parents' career
1	M01	2018	Bocheon-gun, Yanggang	Senior middle school	2018	-	Mother: died when M01 was a child. Father: laborer
2	M02	2014	Shinpo-si, South Hamgyong	The first senior middle school ⁵⁶	2007	Technology University	Mother: lecturer Father: laborer
3	F03	2019	Daehongdan-gun, Yanggang	Senior middle school	2017	Agricultural University	Mother: nurse & smuggler Father: farmer
4	F04	2019	Hyesan-si, Yanggang	Senior middle school	Not graduated	-	Mother: merchant Father: laborer
5	M05	2019	Hyesan-si, Yanggang	Senior middle school	2015	Military service	Mother: distributed coal Father: unknown
6	M06	2018	Hoeryong-si, North Hamgyong	Senior middle school	2018	-	Mother: defected to SK Father: farmer & currency exchange broker
7	F07	2013	Hyesan-si, Yanggang	Senior middle school	2013	-	Mother: smuggler Father: laborer
8	M08	2014	Hamheung-si, South Hamgyong	Senior middle school	2009	Technology University	Mother: merchant Father: medical doctor

⁵⁶ The First Senior Middle School is a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the gifted students in North Korea, and was adopted with the designation of the First Middle School in Pyongyang for the gifted students following Kim Jong Il's instruction in 1984. Twelve First Middle Schools have been established in each province since 1986 for the special education for the gifted.

9	F09 -mother	2018	Yeonsa-gun, North Hamgyong	Son: graduated from senior middle school Daughter: entered senior middle school	2017 2017	N/A	Herself: bookkeeper of a factory Husband: overseas laborer
10	F10 -mother	2018	Yeonsa-gun, North Hamgyong	Daughter: graduated from senior middle school	2017	N/A	Herself: wholesaler of medical herbs, etc. Husband: laborer & merchant
11	F12 -mother	2019	Rural area of Hoeryong-si, North Hamgyong	Daughter and son: graduated from senior middle school	2012 2018	N/A	Herself: cottage industry Husband: laborer & currency exchange broker
12	F14 -mother	2019	Sunchon-si, South Pyongan	graduated from senior middle school	2017	N/A	
13	F1 -teacher	2000	Onsung-gun, North Hamkyong		Worked at a middle school, 1987-2002	N/A	
14	F13 -teacher	2010	Chongjin-si, North Hamkyong		Worked at a middle school for 13 years, 1997-2010	N/A	

- Interviewee's origin and year of senior middle school graduation

Graduation year	Number	Origin	Number
2007	1	Yanggang Province	5
2009	1	South Pyongan Province	1
2012	1	South Hamgyong	2
2013	1	North Hamkyong Province	6
2015	1		

2017	4		
2018	3		
Not graduated	1		
Total	13*	Toal	14

* 13 include two children of an interviewee and exclude two former teachers.

Among the fourteen North Korean defector interviewees, five hailed from Yanggang Province - specifically, three from Hyesan City, the provincial capital, and the other two from counties. Six were from North Hamgyong Province; of these, one was from Chongjin City, the provincial capital, and two were from Hoeryong City. The remaining three originated from local counties within the province. Two interviewees were from South Hamgyong Province. While none of the interviewees were from Pyongyang, we supplemented our research by consulting two Ph.D. holders in North Korean studies who are also defectors; as well as three journalists specializing in North Korean affairs who have access to insider information. Drawing on these interviews and consultations, the study offers an analytical perspective on the systemic factors influencing disparities in access to educational opportunities, both between Pyongyang and outlying provinces as well as between urban and rural settings.

1. The Right to Education in International Treaties

The right to education is a foundational human right, guaranteeing equitable access to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all. Like other human rights, it is both inherent and inalienable, applying universally without regard to age, gender, occupation, geographic location, or social class. This right serves a dual function: it confers both the privilege to receive education and the obligation upon states to provide it. As mandated by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pivotal right is codified in foundational human rights documents such a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rticle 26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sert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This assertion is inclusive, extending the right to children, adults,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t further obligates State Parties to actively safeguard this right. Specifically,

Article 26(1) of the Declaration guarantees universal access to free and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as well as higher education that is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merit. Article 26(2) outlines the overarching goal of education as the full development of human personality, in addition to foster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rticle 26(3) affirms parents' prerogative to select the type of education that shall be given to their children.

Article 13 of the ICESCR recognizes the universal right to education and imposes obligations on State Parties for its realization. Article 13(1) explicitly codifies the right to education as a universal entitlement and delineates the educational objectives to be pur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2), State Parties are enjoined to provide free and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introduce progressively free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fortify basic educational programs, and ensure adequate material conditions for teaching personnel.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13

2.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at,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 (a) Primary education shall be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 (b) Secondary education in its different forms, including technical and vocational secondary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by every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 (c) Higher education shall be mad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every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 (d) Fundamental education shall be encouraged or intensified as far as possible for those persons who have not received or completed the whole period of their primary education;
- (e)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schools at all levels shall be actively pursued, an adequate fellowship system shall be established, and the material conditions of teaching staff shall be continuously improved.

Additionally, Article 29(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specifies the objectives that children's education should aim for. It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lies in the maximum development of a child's personality, talents, and abilities; as well as respect for human rights, fundamental freedoms, and the principles outlined in the UN Charter. Also, Article 28(1) of the CRC explicitly defines the right to education and equality of opportunity for children. This includes the provision of free and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and elaborates on the need for the advancement of secondary education, children's access and utilization rights, financial support for free schooling, the opening of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and improving attendance and reducing dropout rates. Moreover, Article 28(2) of the CRC mandates that school discipline must operat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human dignity and the principles of the Covenant. Article 28(3) emphasizes the necessit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omote and encourage matters related to education.

<Table 1> The right to education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standards

International standards	Articles	North Korea's statu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26, Paragraph 1)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Article 26, Paragraph 2) The aim of education is the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fundamental freedoms (Article 26, Paragraph 3) Parental choice in the type of education	State Party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Article 13) Recogni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for all and obligation for its implementation (Article 13, Paragraph 1) Universality of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goals of education (Article 13, Paragraph 2) Free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and equal opportunity to access education	Signed and ratified in 198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rticle 28, Paragraph 1) Equal opportunity and open access to higher education (Article 28, Paragraph 2) Prevention of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by school discipline (Article 28, Paragraph 3) Promotion and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ducation (Article 29) Explicit goals that child education should aim for	Signed and ratified in 1990

2. North Korea's Education Policy

North Korea claims to provide free education across all educational stages, ranging from kindergarten to university. In a pivotal speech on November 3, 1945, Kim Il-Sung underscored the critical role of education, and asserted that: "to construct a new Korea, a substantial cadre of national leaders is indispensable; this remains one of our most urgent challenges." Subsequently, North Korea has persistently emphasized the vital importance of nurturing talent and has maintained its dedication and investment in the educational sector.

During the 14th Plenary Session of the 5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onvened on September 5, 1977, Kim Il-Sung presented his seminal *Thesis on Socialist Education*. This document emphasizes the pivotal role of both education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Kim Il-Sung contended tha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socialist pedagogy is "to revolutionize, to proletarianize, and to communize people." He emphasized that a crucial objective of socialist pedagogy is to nurture new generations - who are deemed the heirs of the revolution - into passionate revolutionaries and committed communists. Kim Il-Sung highlighted that the fundamental mission of socialist education in North Korea is ideological transformation, with a focus on molding 'Juche-oriented communist revolutionaries.' Moreover, the *Thesis on Socialist Education* asserts that "every individual not only has the right to education but also carries the responsibility to be educated." In North Korea, the influence of Kim Il-Sung's *Thesis on Socialist Education* is often considered to wield more power than statutory law.

North Korea enacted its 'Education Law' in 1999, more than 50 years after its founding in 1948. In 2012, as part of its national development goal to build a powerful state, North Kore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urturing talent, stating that the objective of education is the "scientification and technologization of all citizens." In its *Second Periodic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ated April 9, 2002, North Korea asserted that all citizens fully enjoy the right to education through an advanced educational system and people-oriented educational policies.

North Korea specifies in Article 73 of its Socialist Constitution that: "citizens have the right to education. This right is ensured by an advanced educational system and by the educational measures enacted by the State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Additionally, Article 43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the State shall put the principles of socialist education into practice and raise the new generation to be steadfast revolutionaries who will fight for their society and the people; for this generation to be people of a new communist type who are knowledgeable, morally sound and physically healthy." What North Korea means by "steadfast revolutionaries" is essentially focused on fostering individual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its socialist system. Consequently, political and ideological education carries significant weight in the North Korean educational system.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 and talent development is clearly emphasized in North Korea's 'Education Law,' enacted in 1999. Article 1 of the law, with the aim of furthering socialist education, delineates the objective of nurturing individuals who possess both autonomous ideological consciousness and creative capacities. Additionally, Article 12 explicitly defines the entitlement to free education, as well as the mandate for general secondary schooling. Article 13 sets forth a 12-year system of compulsory general secondary education; and Article 14 outlines the compulsory school enrollment for children of appropriate age. Article 16 delves into the specifics of free educational services, including admission and coursework. To safeguard educational standards, the law offers comprehensive guidelines: Article 38 details budgetary provisions for the educational sector, Article 40 addresses the manufacture and provision of educational materials, and Article 41 ensures the availability of textbooks and supplemental resources.

North Korea has continually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its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s stipulated in Article 45 of the Constitution, the country adheres to a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Originating in 1956 with a 4-year mandatory primary education, the system underwent gradual expansion, adopting an 11-year compulsory program in 1972. It further evolved on September 25, 2012, to encompass a 12-year compulsory curriculum; featuring a one-year preparatory course, a 5-year elementary program, and a divided secondary education consisting of 3 years in junior middle school and another 3 in

senior middle school. Furthermore, Article 47 of the Constitution declares that the state offers education free of charge to all students and provides university students with scholarships.

Recently, North Korea stated the following in the 8th Plenary Meeting of the 8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it is an important task ahead of the education sector to cultivate many competent talents with high intellectual and practical abilities in line with global trends and the demands of the times." It particularly emphasized that "party and government agencies must thoroughly establish a culture that values education throughout society, prioritize education over other projects, and strongly carry out guidance and support for the educational revolution, including party-led direction, policy guidance, and technical guidance⁵⁷ ." To this end, North Korea is emphasizing the need for party-wide and nationwide support for educational projects. North Korea's monthly magazine, *North Korea Today*, shared the story of a model case in Hwanghae Province where local agencies and officials provided the necessary experimental and practical facilities for educational projects. Multiple agencies at city and county levels within the province reported that they have "allotted the division of tasks for schools and equipped them with educational materials and facilities." In other words, they are fulfilling what is stipulated in Article 40 of the Education Law, where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send necessary machinery and instruments to the respective educational institutions."⁵⁸

This example can be attributed to North Korea's policy of local autonomous operation, as outlined in the "City and County Development Law." According to this law, enacted in 2021, Article 70 specifies plans for "school construction and sponsorship projects" to facilitate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educational equipment in rural areas and provinces. In other words, the local administrative bodies, known as the City and County People's Committees, are required to modernize the educational facilities of schools and designate sponsorship organizations to provide material and technical support to the assigned schools.

⁵⁷ Gong Ro-Hyuk, "Tasks Set Forth by the 8th Plenary Session of the 8th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for the Education Sector," *Rodong Sinmun*, June 30, 2023, <http://www.rodong.rep.kp/ko/index.php?MTJAMjAyMy0wNi0zMC1OMDE4QDE1QDJAQDBAMTg==>

⁵⁸ "Heightened Enthusiasm for Education Support in North Hwanghae Province," *DPRK Today*, April 7, 2023, <https://dprktoday.com/news/64673>

<Table 2>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Laws and Systems Regarding the Right to Education

Law	Details
Socialist Constitution (amended in 2019)	<p>(Article 43) Cultivation of Steadfast Revolutionaries and Pioneers of Socialist Construction</p> <p>(Article 45) Implementation of 12-Year Compulsory Education</p> <p>(Article 47) Provision of Free Education for All Students</p> <p>(Article 73) Right to Education as a Citizen</p>
Education Law (amended in 2015)	<p>(Article 12) Obligation for General Secondary Education and the Right to Free Education</p> <p>(Article 13) 12-Year Compulsory Secondary Education System</p> <p>(Article 16) Regulations for Free Education with regards to Educational Admission and Classes</p> <p>(Article 38) Budget Allocated for the Education Sector</p> <p>(Article 40) Production and Supply of Educational Equipment</p> <p>(Article 41) Guarantee of Textbooks, Reference Books, Extracurricular Books, and Educational Audio-Visual Materials</p>
Thesis on Socialist Education (released in 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nounced in September 1977 as an educational decree that embodies the Juche ideology. - Specifies the principles, content, methods, and systems of socialist education, aiming to cultivate all people into “people of a new communist type.” - Articulates citizens' right to education and mandates compulsory education.
City and County Development Law (adopted in 2021)	<p>(Article 70) School Construction and Sponsorship Projects: The City and County People's Committees are responsible for modernizing educational facilities by utilizing local resources. They are charged with identifying sponsorship organizations to provide schools with material, technological, and labor support.</p>

3. Discriminatory Factors in Accessing to Education in North Korea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an education policy is determined by whether educational opportunities are provided irrespective of the conditions students are born into; and whether, as a result, students can overcome personal constraints based on merit, such as their abilities and talents. North Korea decided to introduce a 12-year fre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n 2012 and has been implementing it nationwide since 2014. Additionally, Article 16 of the Education Law (adopted in 1999, amended in 2015) on 'The Content of Free Education' states: "all education is fre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cannot receive any fees related to admission, tuition, practice, field trips, or study tours from the student or their parents or guardians."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the 'free' compulsory education service in North Korea is not truly 'free', as students and parents have to provide a significant amount of cash and in-kind contributions to schools. Therefore, this poses a significant barrier to students, who are ostensibly the intended beneficiaries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in actually access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After consulting with North Korean defectors who graduated from senior middle schools during the Kim Jong-Un era, as well as parents, teachers, and experts in North Korea's education system, we identified a series of factors that lead to discriminatory access to education for students. To summarize, the core issue lies in the national climate where North Korean educational services fail to function as a 'ladder of opportunity', which is a pivotal role of education. Students ought to be able to transcend the social limitations inherited from their parents' generation through the 'ladder of opportunity'. By amassing more such exemplary instances, we can anticipate fostering societal advancement and growth.

However, in the educational reality of North Korea, the ladder of opportunity hardly exists. Instead, we found that glass ceilings and glass walls are placed everywhere, preventing the ladder of opportunity from fulfilling its role. This can be seen as a social factor that has shaped the discriminatory application of the right to access education. In that context, this study has categorized the factors that serve as obstacles to the fair and equitable applic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hat North Korean students realistically confront. Specifically, we plan to examine discrimination based on four social conditions: geographical division, social class and family background, household economic status, and gender.

Discrimination exists in every society, but in a healthy, growing society, education serves as a 'ladder' to overcome social disparities. If, on the contrary, existing discriminatory factors are applied in accessing education, it perpetuates a vicious cycle of discrimination, hindering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The factors causing discrimination in North Korea's right to education, discovered through interviews with consultants, naturally appear to be conditions of social discrimination prevalent throughout North Korean society. Therefore, a breakthrough is needed to disrupt the cycle in the operational mechanism of North Korea, which is stuck in this vicious circle of perpetuating discrimination.

3.1 Discrimination Based on Region

The national report submitted by North Korea for the 3rd cycl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in 2019 also describes the efforts of North Korean authorities to bridge the educational gap between cities and rural areas. It reported that "in 2016 1~2 rural schools in each city and county were transformed into model schools with fine educatio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⁵⁹." However, in the testimonies of defectors, who graduated from senior middle schools between 2017-2019, the contents of the UPR national report could not be found.

The phenomenon of regional disparities affecting access to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North Korea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issues. First, there is the absolute lack of educational infrastructure in rural areas, particularly when compared to the central regions. Second,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schools and student residences plays a pivotal role in shaping the future career paths and societal roles of graduates.

⁵⁹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A/HRC/WG.6/33/PRK/1, Para. 46, "In 2016 1~2 rural schools in each city and county were transformed into model schools with fine educatio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and efforts are being made in accordance with an annual plan to generalize their examples to other rural schools." https://digitallibrary.un.org/nanna/record/3798135/files/A_HRC_WG-6_33_PRK_1-EN.pdf?withWatermark=0&withMetadata=0&version=1®isterDownload=1

The educational disparity caused by the urban-rural and Pyongyang-province gaps appears to be an issue that has recently caught the attention of North Korean authorities. Contrary to the content of the national report for the 3rd cycle of the UPR, the report submitted by North Korea to the UN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June 2021, identified the urban-rural educational gap as a significant challenge experienced by the country. In the “North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under the goal of SDG 4, which aims for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North Korea assessed its challenges and stated and that: “there exist issues like low level of innovating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prone to forms rather than improving education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pedagogical requirements, distinction in secondary education between the rural and urban areas, etc⁶⁰.”

It appears to reflect the recent interest of North Korean authorities, who have made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s and local cities and counties a national reform agenda.

3.1.1 Lack of Educational Infrastructure in Rural and Local Areas

The issue of inadequate infrastructure in rural and local areas is not limited to the education sector but is a phenomenon that appears across North Korean society. The harm caused by the lack of educational infrastructure in local areas naturally manifests dramatically among the beneficiaries of educational services in rural and local regions. Due to policies that focus national resources and capabilities on Pyongyang and central areas, national financial investments are concentrated in the capital's educational infra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educational budgets for local schools are the responsibility of local administrative units.

The North Korean “Education Law,” amended in 2015, specifies in Articles 40 and 41 that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must plan and supply educational materials and experimental equipment needed for educational activities. Additionally, Article 70 on “School Construction and Sponsorship Projects” in the “City and County Development Law” (enacted

⁶⁰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June 2021, 21-22 p,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in 2021) assigns responsibility to local people's committees to equip school educational facilities using local materials⁶¹.

However, experts generally agree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for North Korea's local governments, whose administrative autonomy at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levels is critically low, to allocate educational budgets to schools. As a result, the burden of operating schools without adequate educational budgets is largely passed onto parents, and it is only natural that this leads to significant disparities in education between regions given the reality in North Korea.

This reality is also well-reflected in interviews with defectors. A witness (M01) who graduated, in 2018, from a senior middle school in a Ri unit of Bocheon County, Yanggang Province, said: “until I graduated, my school didn't even have a computer.”

"In 2015, the authorities mandated that all schools should have computers. However, the principal allocated a certain number to each class teacher, who then either collected them from parents or earned money elsewhere to buy the computers. Because of this, rural schools are incredibly lacking. The quality of school facilities varies tremendously depending on the region." — F12-mother, mother of a 2017 graduate from a senior middle school in Suncheon City.

"The directive to provide students with uniforms, school supplies, and the like starts first in Pyongyang and then is implemented in other provincial capitals. Therefore, it's difficult to fully execute these directives in distant rural areas and countryside locations." — F13-teacher, a defector who was a teacher until the early 2000s.

Experts in North Korean education have noted that, in certain provincial or rural schools, it is not uncommon to find students who are unfamiliar with the English alphabet or who have never

⁶¹Article 70 (School Construction and Sponsorship Projects) of the City and County Development Law (enacted in 2021): "City and County People's Committees must mobilize local materials as much as possible to modernize schools and extracurricular cultural centers, including student youth halls,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new century. They should also be equipped with modern educational facilities. City and County People's Committees are charged with identifying sponsorship organizations to provide schools with material, technological, and labor support, establish a regularized form for sponsorship projects, and develop appropriate countermeasures."

conducted an experiment. This is due to the absence of specialized teachers in subjects like English and Chemistry.

An interviewee who is a parent of a 2017 graduate (F12-mother) stated that rural schools are in a dismal state because responsibility for the school facilities is being placed on local organizations, factories, and enterprises. She elaborated that the collective farms in rural areas are financially strained and unable to provide adequate resources for school equipment. This regional disparity ultimately results in substantial disparities in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and future employment for graduates.

This discriminatory environment is also clearly visible in private education.

"In Yeonsa County, private education is not well-developed so the children of officials are sent to Chongjin City where private education is more advanced. Simply having power is not enough, parents also need money to provide education." — F09-mother, mother of a son who graduated from a senior middle school in 2017.

3.1.2 Regional Discrimination in the Career Paths of Graduates

The reality that freedom of movement is restricted by one's place of residence, naturally acts as a limiting factor on the career paths of high school graduates. According to research⁶²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which analyzed, from 2012-2020, North Korean publications related to education and the Rodong Sinmun newspaper, it was found that a total of 271 universities exist in North Korea. When classified by type, 21 out of 37 central universities⁶³(60%) are located in Pyongyang. Furthermore, all five comprehensive universities in North Korea, such as Kim Il-sung University and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are also located in Pyongyang.

⁶² Cho Junga etc., "North Korea's Universities and Higher Education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Era," KINU, 2020,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dbf1e78b-cb84-449a-84df-350acbcfc045>

⁶³ 'Central universities in the DPRK' refers to universities that are directly oversee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the Cabinet. They are also sometimes referred to as "central-level universities." Korean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중앙대학_\(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https://ko.wikipedia.org/wiki/중앙대학_(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Table 3> Number of Universities by Region

Region	Number of Univ.	Region	Number of Univ.
Pyongyang	52	Kangwon	16
South Pyongan	38	Chagang	11
North Pyongan	26	Yanggang	8
South Hwanghae	18	Nampo	13
North Hwanghae	17	Kaesong	5
South Hamgyong	38	Rasun	3
North Hamgyong	26	Total	271

<Table 4> Number of Universities by Type

	Comprehensive Universities	Sector-specific Universities	Vocational Technical Colleges	Factory, Agriculture, or Fishery Colleges	Total
Number	5	125	48	93	271

The concentration of major universities in Pyongyang acts as a source of regional discrimination that is affecting high school graduates. For graduates who have attended central universities, career advancement tends to be faster after job placement. However, it is exceedingly rare for students from ordinary middle schools to gain admission to central universities, and it is mostly graduates of the elite ‘No. 1 Middle Schools’ who enter them⁶⁴. Additionally, there are practical limitations for graduates of regional middle schools to attend central universities in other regions. An interviewee (M05), who graduated from a senior middle school in Hyesan City in 2015, explained that money is needed in every aspect of college life. From bribing professors during exam periods, which is an ordinary or necessary practice in North Korea, to covering living expenses and dormitory fees, money is required at every turn. Therefore, it is even more difficult for students from rural areas to study in Pyongyang. Unlike

⁶⁴ Kim Jong Won, etc., “*Study on Comparis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Strategies for Integr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December, 2015, 231 p.

South Korea or other countries, it is not possible in North Korea to work your way through college. Therefore, without financial support from one's family, sustaining college life is unfeasible.

"If there's no guaranteed money, it's difficult to sustain college life in big cities like Pyongyang... Children in Suncheon City, who usually take multi-subject private tutoring lessons to go to college, generally end up attending local vocational or technical colleges for 1-3 years before going to the military; even if they can't get into comprehensive universities or central-level universities." — F12-mother, mother of a son who graduated from a senior middle school in 2017.

The quality of life and educational services varies drasticall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making it understandable that graduates of senior middle schools often aspire to move to larger cities. Since job placement after graduation often determines one's lifelong location and career, paying bribes to secure a move to a major city is seen as a beneficial investment for the future.

"Given the significant disparity between industrial and agricultural sectors, many aim to transition to industrial units after graduating from senior middle school. The desire to attend a university often stems from the same motivation—to escape rural life. That's why I enrolled in an agricultural leadership college." — F03, a 2017 graduate from a senior middle school in a rural area.

"I bribed the school to obtain my daughter's transfer certificate and academic records, enabling me to send her to a big city. My sisters lived there and could look after her. Although I secured her administrative documents from her middle school, I chose not to register her in a new school in the big city. This wasn't a major concern for us because my sister served as the chairwoman of the local people's unit, allowing my daughter to live there without official residence registration. I believed that for her future, gaining hands-on experience in trade within a big city would be significantly more beneficial than having her remain in the countryside after graduation." — F10-mother, mother of a

daughter who graduated from a senior middle school in a county in Yanggang Province in 2017.

The interviewee (F10-mother) explained that not registering her daughter's residency and academic records anywhere was a temporary but deliberate measure to keep her free from obligatory involvement in school life and political organizations, like the youth league.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live without a registered residency in the long term, she believed that even a few years of proper training in trade and business from her aunts would be helpful for her daughter's future stability. Therefore, she prioritized hands-on market experience in a big city over schooling in the countryside.

This issue is not solely about restricted access to education based on geographic location; it also arises from limitations on regional transportation, human and material movement, and the freedom to relocate residences. Additionally, the lack of mobility between professions further intensifies these regional disparities. Another interviewee (F13-teacher), who served as a middle school teacher in Onsung-gun (County), North Hamgyong Province until the early 2000s, noted: "students in rural, county-level middle schools generally believe that attending college is one of the few avenues for escaping life in the countryside."

3.2 Discrimination Based on Songbun and Social Class

Discrimination in access to educational services based on social status and class is also a human rights issue found throughout North Korean society. According to the 'Resident Registration Project Reference'⁶⁵, published in 1993 by the Social Safety Agency (currently the Ministry of Social Safety), North Korea's system of social origin is divided into three main classes (*todae*): the core, the wavering, and the hostile. Furthermore, one's "social component" (*songbun*) is determined based on the profession that has had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shaping their worldview, such as laborers, soldiers, office workers, farmers, petit bourgeois, merchants, etc.

⁶⁵ PARK Seung Min, BAE Jin Young, "[Breaking] North Korea's Social Safety Agency Publication," *News Room of Monthly Chosun*, July, 2007,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0707100015>.

The interviewee, F11-mother, who has a daughter who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in 2012 and a son who graduated in 2018, succinctly explained the impact of social class on the future social and career paths of her children, including their prospects for formal job placements. "There is no case where laborers end up better off. If the father is a laborer, the son can't escape being a laborer either," she stated. Although officially registered as a 'housewife' with no institution listed for economic activities, she earned money through home-based handicraft manufacturing. Her husband, registered as a 'laborer', held formal employment in a factory but also worked as a currency exchange broker in the private sector. She explained that, to their father's 'social component' as a laborer there were no other career options for their children besides following in their father's footsteps as laborers.

Social origins, namely the family foundation (social classes or *todae*), and social component, act as a 'glass ceiling' that obstructs advancement and promotion in one's social life; including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and job placement. It also plays a decisive role as a 'glass wall', limiting the career paths of children based on their parents' professions and vocational categories.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interviews, if one's origin traces back to the generation of a great-grandfather who was a 'landowner', 'rich farmer', or a 'sectarian', and thus belongs to the hostile class, they are completely excluded from legal or political careers after graduating from school.

"If one is among the very few exceptional students,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going to university. However, if there is an issue with one's family foundation (social classes or todae), then naturally, they can't become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party or in the legal sector. In other ordinary professions, job selection can be based on one's abilities. However, youths whose great-grandparents originated from Sou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era (those from the hostile class) are not assigned any administrative or political tasks." — F12-mother

An interviewee who served as a teacher for 13 years, starting in 2010, explained how one's family background affects access to higher education and entry into professions.

"In the past, students attended art and foreign language academies mainly based on their abilities. However, today, the children of officials are the ones who mostly attend such special academies or universities. Teachers go to great lengths to help students from privileged backgrounds get placed in prestigious military units. Meanwhile, students from families classified as being from the 'hostile class' can only go as far as technical colleges; they are barred from entering comprehensive and central-level universities. Regardless of background, students must have exceptional academic records and high rankings on scholastic aptitude tests to succeed." — F14-teacher

"Because my grandfather was purged and relocated from Pyongyang to a rural area, my family's social class was negatively affected. I had aspired to apply to specialized programs such as "the No. 5 department," or Kim Jong-II's Escort Brigade, as well as the Kim Jong-II Political University, when I was in the 5th grade of middle school (equivalent to the 2nd year of senior middle school). However, I was excluded from the special selection shortlist. Despite excelling in physical health, academic achievement, and overall school performance, I was barred from participating in the preliminary physical examinations for the political college. It was at this point that I experienced discrimination based on my social class." — M08

"My brother-in-law has a favorable social standing due to his association with the escort command. This family status stems from his grandfather's participation in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As a result, my nephew was assigned to the escort command in Pyongyang. Nonetheless, it is still standard practice to pay over a million won in bribes for such placements. Children from particularly impoverished families sometimes even petition to join dolgyeokdae (the military-style construction brigade)." — F09-mother

3.3 Discrimination Caused by Economic Disparity

Article 47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Constitution declares that under the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the state offers education free of charge to all students and provides university students with scholarships." However, in reality, various fees, in-kind

contributions, and labor are extracted from students; essentially making education a fee-paying enterprise. Consequently, students who are unable to meet the demands for contributions set forth by teachers and schools face restrictions in their access to educational services.

It was found that on average, about 5 out of 30-35 students in a regular middle school classroom face socio-economic related difficulties. Students who are in the bottom 10-15% in terms of their parents' economic status, social influence, and political power are often marginalized or bullied by teachers and classmates. Interviews revealed that such students frequently skip school without permission to both assist with their family's livelihood and to escape the pressure they experience at school. In other words, not only are they marginalized from educational access due to their family's poor economic situation, but teachers' verbal abuse and neglect also further alienate these lower-group students from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ne of the root causes of these phenomena appears to be the failure to properly implement the provision of the Ordinary Education Law⁶⁶, which stipulates that the state or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should guarantee the necessary finances and budget for education. Additionally, the City and County Development Law⁶⁷ stipulates that the People's Committee of the city or county should designate a sponsoring organization to modernize schools. However, in reality, school maintenance and management still largely rely on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The various requirements for cash, in-kind contributions, and labor from student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hree main areas: social assignments and labor mobilization demands; requirements for school maintenance; and demands for the teachers' own livelihood.

⁶⁶ Ordinary Education Law (amended in 2015), Article 49 (Financial budget for the ordinary education sector):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for the general education sector are guaranteed through the budget of the state or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⁶⁷ Article 70 (School Construction and Sponsorship Projects) of the City and County Development Law (enacted in 2021): "The People's Committee of the city or county should maximize the use of local resources to renovate schools and extracurricular cultural centers, such as student-youth halls, in line with the demands of the new century. They should also equip them with modern educational facilities. The People's Committee of the city or county should promptly designate a sponsoring organization to actively assist schools both materially and technically. They should also properly implement sponsorship project plans and strategies."

3.3.1 Social Assignments and Labor Mobilization

It appears that students are required to submit social assignments approximately 2-3 times a month. These assignments can vary by season or time and can include requirements for labor to raise funds for school operations, kid's assignments, and support for the People's Army. As a result, it is nearly impossible for both parents and students to accurately recall what type of social assignments were submitted, at what cost, and how frequently based on their memory as interviewees. The majority of testimonies suggest that these demands are made almost every day. However, closer inquiry reveals that North Koreans are pressured daily to fulfill the social assignment requirements that are submitted 2-4 times a month. From this perspective, it appears that students experience considerable psychological stress.

The methods of admonishment used by teachers, as described by interviewees, for students who have not submitted their social assignments are as follows:

"Teachers make students who haven't submitted their social assignments stand up and shame them by questioning why they haven't completed them." — F04

"Teachers have all the students sit down and then make those who haven't submitted stand up. They verbally attack these students by comparing them to their peers. Students are required to submit assignments almost once a week, and those who fail to do so are consistently berated by their homeroom teacher." — M06

"If they don't submit on time, teachers make them repeatedly stand up to humiliate them. Additionally, students who haven't completed their social assignments are told to leave their backpacks at school and go home to bring the assignments after school." — F07

"If you don't submit, you have to experience continuous criticism, and it's really hard. I did everything that was asked to ensure my son would not suffer such humiliation from the teacher. If he can't submit, the teacher doesn't give the students their backpacks

and sends them home to bring the social assignments. So the children are really struggling." — F11-mother

"Teachers question the students almost every day. In front of the entire school, they make the students who haven't completed their assignments stand in a line to humiliate them." — F12-mother

It can be confirmed that teachers subject students to emotional abuse through their scolding in the process of demanding students' fulfillment of social assignments. Due to such admonishment and pressure from teachers, it has been found that, in a class of 30-35 students, as few as two and as many as five students refrain from attending school. Interestingly, the first middle school, which is a school for gifted students, is cited as an exception. "There are no students who can't attend school due to such issues," says an interviewee (M02).

"It was between 2014 and 2016 when I attended a senior middle school. To raise funds for school management, we only had morning classes, and in the afternoon we had to pick mushrooms, gather grain from fields, and harvest tree fruits - basically, the school assigned us tasks that could generate money. We did such work on weekends and afternoons. We did this more than ten times a month. For wealthy families, teachers sometimes exempted their children from these labor mobilizations. In our class, which had a total of 50 students (the school was in a rural area, so they combined two classes), 3-4 students didn't attend school due to these burdens." — F03

"The teacher asked us to bring rabbit skins for making padding winter coats for soldiers. If we failed to do so, we had to pay money based on the current market rate. We received such requests about 3 times a week. In the winter, because we had to buy firewood, we contributed 50-100 Chinese Yuan; and in the spring, another 50-100 Yuan for classroom improvements, such as painting the floor. This happens 2-3 times a year on a larger scale. On smaller occasions, we pay around 5-10 Yuan (equivalent to 5,000 North Korean Won). Out of 30 students, 5-6 can't afford to pay. These students

frequently skip school. In each class, about 1-2 students find this burden too much to handle and don't come to school at all." — F04

"In a class of 30 students, around 2-3 students are from families who are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and are always in debt. Such kids are often ostracized in class and face discrimination from the teachers. They also experience such abuse for not being able to meet the school's demands. If they skip school for even a single day, they are indiscriminately beaten, whether on the face, arms, or legs. As a result, about 1-2 students end up not attending school at all and instead work in the fields or in the market to make money." — M01

"Firstly, if you're economically disadvantaged, there's a tendency for both teachers and classmates to discriminate against you. If you can't fulfill tasks assigned to students, like submitting rabbit skins or scrap metal, you face discrimination. About half the class experiences struggles due to these social assignments. There are only 23-24 officially enrolled students, and about 5 could not attend the school at all." — M06

There were various ways to cope with the nearly daily after-school labor activities. While some could regularly skip these by paying money, there was also a formal way to opt out. One interviewee (F10-mother) bribed the teacher and enrolled her son in the youth center's volleyball team to exempt him from after-school labor. By doing so, her son could spend his afternoons participating in volleyball activities and thus be excused from the labor. In other words, children from wealthier families who are in the top 10% could skip by paying money, and those who could not afford to do so had to directly participate in labor work. At the same time, students from the poorest households, roughly the bottom 10%, opted not to attend school at all."

3.3.2 Social Assignments and Labor Mobiliz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 education, the responsibility for funding school maintenance and operations rests with the state and local cooperative organizations. As outlined in the City

and County Development Law as well as the Ordinary Education Law, it is a standard practice for local people's committees to assign sponsorship organizations to schools in order to provide educational materials and facilities.

The article from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dated April 7, 2023, and titled "Surge in Educational Support in North Hwanghae Province⁶⁸," outlines instances where local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have provided educational facilities with essential materials. According to the article, officials from the Provincial Rural Economic Committees have equipped the Agricultural College with experimental and practical facilities. Meanwhile, the Provincial Post Service Office and Provincial Trade Management Department have supplied items such as flat-screen TVs and computers. Additionally, employees from the Provincial Land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the Provincial Prosecutor's Office, and the Provincial Water and Electricity Department have also made contributions to local schools. Legally, this system enables local factories, organizations, and enterprises to serve as sponsors responsible for providing schools with necessary equipment.

However, experts involved in this study caution that the approach outlined in the article about North Hwanghae Province—namely, national investment in pilot or model schools with the expectation that other schools across the country will follow suit—is insufficient to address the widespread material shortages in the North Korean education system. This method aligns with the traditional North Korean strategy of social campaigning, which involves selecting a specific period to concentrate support on model schools and then encouraging other regions to emulate these 'best practices'. However, experts note that such intense focus on the target schools often leads to resource shortfalls in surrounding areas, rendering this approach unsustainable for the stable management of educational funding.

The students and parents interviewed were unaware that local factories and enterprises serve as sponsorship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supplying educational materials to schools. While it is possible that students and parents may lack a full understanding of the aid provided by these local sponsors, many parents confirmed that they have contributed various educational

⁶⁸ "Surge in Educational Support in North Hwanghae Province", *Korean Central News Agency*, April 7, 2023, <http://kcna.kp/kp/article/q/1ad394a579b390a938aa5578059334a8.kcmsf>.

resources themselves, including computers. Additionally, school maintenance projects, which are supported by the labor and contributions of students, are carried out several times a year. This includes tasks such as painting school walls and classroom floors.

"In 2015,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ordered that computers be placed in every school. However, the principals only allocated a few to each classroom teacher, who then had to either collect money from parents or earn money elsewhere to purchase the computers." — F12-mother

"In the fall and winter, we have to provide firewood and in winter we have to carry out school maintenance tasks like supplying lime." — M05

"Due to a lack of funding, parents are left responsible for all aspects of school operations. As a result of social assignments, teachers focus less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and daily life, and more on collecting social contributions or materials. Because of this, the nickname for homeroom teachers among both students and teachers is either 'collector' or 'collecting leader.' Encountering a parent with influence can somewhat alleviate the burden on a teacher." — F14-teacher

Students from 'influential families' often gain a special trust relationship with their homeroom teachers by helping teachers solve assignments that they need to submit to the school. As a result, these students gain an advantage in various aspects compared to other students in the classroom.

"Children from families with substantial influence act in a leadership role even as students, giving directions to other kids, and it's taken for granted that the other students should follow them. Those who have donated large sums of money, paint or wood to the school or teachers do not participate in classroom cleaning, several labors, or afternoon tasks assigned by the school." — F03

3.3.3 Demands for the Teachers' Livelihood

Teachers' monthly salaries are approximately 3,000 won, equivalent to roughly 500 grams of rice, with the exchange rate about 8,200 won per USD⁶⁹. Given these circumstances, it is virtually impossible for teachers to sustain a day-to-day life solely on their monthly income. Due to these extremely low wages, it has become customary for teachers to rely on the parents of their students for financial support. Some reports indicate that teachers receive rice from nearby collective farms as part of educational aid programs.

"Mothers have to make sure to take good care of the teachers, celebrating their birthdays and special occasions. The class leaders (usually consisting of about 8 students per class) also typically give gifts to the teachers. These gifts include food items, rice, and other essentials for one's livelihood. As of around 2019, a teacher's monthly salary was less than 3,500 won, so parents have to contribute to the teachers' livelihood. Teachers are also connected to farms and receive rice from nearby agricultural cooperatives." — F09-mother

Due to the inability to sustain themselves solely on their wages, teachers are driven to prioritize making a living over providing educational instruction and student guidance. With monthly salaries being extremely low, and no opportunity for additional income during work hours, accepting gifts and bribes from students' parents appears to be the only avenue for financial support. This compromised environment has led to a decline in the quality and skill levels of educators. Consequently, this dual impact infringes on students' rights to quality education and undermines trust in the North Korean public education system.

"Since education is mandatory, the system itself doesn't impose any restrictions on academic studies. However, teachers don't invest much effort into their teaching because the state fails to provide a sufficient monthly salary. Teachers also have to sustain themselves, and their monthly wage of approximately 3,300 won is inadequate for a living. Students genuinely interested in studying often opt for private tutoring

⁶⁹ Latest market prices in North Korea, Asia Press Osaka, <https://www.asiapress.org/korean/nk-korea-prices/>.

instead of relying on school education. Teachers, lacking both skill and motivation, are primarily focused on their own livelihood." — F12-mother

"You must take good care of the teachers, particularly during special occasions such as their birthdays or significant family events (such as a teacher's wedding or the birthdays of a teacher's parents). My child's father earns money through a business that the state disapproves of (currency exchange brokering). To preempt any potential issues, I give approximately 100 Yuan to the homeroom teacher 2-3 times a year." — F11-mother

Students whose families provide personal benefits to teachers naturally receive various forms of favoritism. For example, they can receive recommendations to participate in youth events held in Pyongyang, which is considered a lifelong honor for North Koreans; and their school life becomes much easier due to the consistent support from teachers.

"Even if a student had very poor grades, if the parents are wealthy,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teachers, and make generous donations, the student received awards like the Kim Il-Sung Youth Medal." — M08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f parents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homeroom teacher, the teacher is more likely to look out for their child. In our case, the teacher often visited our home, forming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my child's father. Each time he visited, we offered him gifts, which in turn made my child's school experience more pleasant." — F10-mother

"Financial resources certainly ease the experience of school life. Even families with influence find that if they don't offer something of value to the teacher, their children are less likely to receive favorable treatment. For example, the supply of new textbooks often falls short of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in a class. If a class of 25 students receives only 20 new textbooks, those are first allocated to students who promptly pay for required materials and to those whose families are generous toward the teachers. The remaining five students are left with the option of using outdated textbooks or attending school without any textbooks at all." — F11-mother

3.4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North Korean Gender Equality Guarantee Law stipulates that gender equality must be ensured in schools at all levels with regards to education admission, accessing a higher education course, and job placement after graduation. It explicitly states that women should not be limited based on their gender, except in special fields of study. However,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in education based on gender is also pervasive, appearing alongside other widespread societal issues. In other words, due to the prevalent misogyny and patriarchal mindset in society, there is a clear “glass ceiling” that hinders female students from advancing to college or finding employment.

Many explained that it is not that there is systematic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students in the realm of education, but rather the overall atmosphere of the society is not favorable towards them. Interviewees recall a discriminatory atmosphere in the teachers' attitudes towards female students. For example, while teachers often encouraged male students with phrases like “How can a man not study?” or “You have to go to university,” they did not take femal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seriously. In other words, they often told female students to study if they wanted to but left them to their own devices. Additionally, an interviewee (F07) added that even adults in the community, such as her father's friends, often said: “What's the point of a girl studying so hard?”

"While there is no explicit discrimination that prevents women from going to university, the remnants of Confucian thinking still persist; spreading the perception that 'women should just get married.' Also, jobs are divided by gender and so are universities. Only men can apply for jobs as party officials and for jobs in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Social Safety. Female students from poorer families generally prefer farm work or easier jobs. It's a social norm for women to work in fields like kindergarten education, telephone exchanges, or as security staff in military supply factories. Hence, the disparity starts as early as college admissions." — F03

The differentiation of gender roles in such professions is well-reflected in the nature of North Korean universities, which are primarily focused on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cept for

teacher's colleges, major city universities, like Hamhung and Chongjin, are engineering-focused; and only teacher's colleges are dominated by women. Male students have a broad range of fields they can specialize in without restrictions on their career placement or prospects. However, for women, the atmosphere is such that they are expected to choose only from a few limited fields, such as education, healthcare, or light industry. Moreover, due to the male-centric culture that is pervasive throughout North Korean society, even in the premier middle schools aimed at fostering future leaders, the proportion of male students is high.

"When I enrolled in the first middle school, there were roughly 4-6 female students in a class of about 30. However, the female students who attended the first middle school often came from families with significantly better economic capabilities or social status compared to the average male students. Therefore, they received better treatment in terms of advancement to higher educational levels or day-to-day school life. Since the goal of the premier middle school is to train ethnic leaders, I think they are deliberately adjusting the number of female enrollees based on the proportion of female leaders they aim to produce." — M02

At the 8th Party Congress in 2021, attended by 5,000 central party officials and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it was boasted that the number of female participants had increased by 200 from the previous year. However, with only 501 women attending, they made up just 10% of the total⁷⁰, a figure that aptly reflects the leadership status of women within North Korea. This phenomenon is also mirrored in the educational leadership sector. According to a teacher and interviewee (F13-teacher), gender discrimination is not evident in the educational curriculum but manifests later in professional life. She explained that there are hardly any women in leadership positions, whether as factory or enterprise managers or as school principals.

Consequently, the career aspirations of female students are limited, showing a significant disparity from the career paths preferred by male students. Notably, there is an absence of women who aspire to enter politics, the legal profession, or become party officials.

⁷⁰ Jung Yong-Soo, January 7, 2021, "Kim Jong-Un admits 'We have fallen incredibly short of our economic development goals,'" Chosun Ilbo,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63464#home>.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ACCESS TO EDUCATION IN NORTH KOREA:

**HAS NORTH KOREA'S ACCESS TO EDUCATION
IMPROVED IN KIM JONG UN'S TIME?**

Daily NK

DAILY NK

Summary

Given that the COVID-19 pandemic has widened the social class divide in North Korea - a key factor influencing access to education -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capturing the perspectives and needs of North Korean parents. This study surveyed 50 insiders currently living in North Korea with school-age children, employing a snowball sampling method in which key informants help recruit additional participants. The final sample included residents from different provinces: two people from Ryanggang, five people from North Hamgyong, seven people from South Hamgyong, three people from Kangwon, three people from Chagang, six people from North Pyongan, eight people from South Pyongan, four people from North Hwanghae, five people from South Hwanghae, and seven people from Pyongyang. The gender distribution within this group was 19 males and 31 femal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Ordinance on Enforcing Universal 12-Year Compulsory Educatio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publicly announced their plan to achieve substantive effects in both the content and methods of education. The positive effects of extending compulsory education to “school-age” children are closely linked to the credibility of schooling. Parents, however, had low expectations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ducation.

In terms of “career prospects” (*jinro*), the extension of compulsory schooling by one year was seen as beneficial for parents who wanted their children to gain admission to university or join the military. Among parents with female children, early graduation was seen as preferable so that these children could contribute to the family’s support sooner. Thus, respondents’ views on their children’s educational opportunities were largely shaped by career prospects influenced by “social classification” (*songbun*) as well as gender.

In addition, parents perceived the extension of the education period negatively, from the reasons of financial burdens imposed on parents as “non-tax compulsory payments.” The main reason for students not attending school was identified as “labor mobilization” (*noryok dongwon*) and task burdens (33.3%),” underscoring the gravity of this issue. Other reasons included a loss of interest in school life (24.4%), opting to work and earn money (14.6%) due to the inability to secure desired jobs because of their foundation (15.4%), dis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 content (11.4%), and other reasons (0.8%).

In particular, attendance rates of over 50.0% (40.0%) and over 80.0% (40.0%) were observed during the COVID-19 outbreak.⁷¹ The main reason for absenteeism was identified as family financial difficulties, accounting for 43.4% of cases.⁷² This suggests that parents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may not prioritize sending their children to school.

Social class, encompassing elements of “social classification” (*songbun*) and financial resource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respondents’ educational interests. Parents focused primarily on improving their children's knowledge and skills (40.7%) or preparing them for subjects relevant to college admissions (32.3%).⁷³ To achieve these goals, parents often arrange private lessons for their children. In addition, the need for computer, science & technology,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has increased under the North Korean policy of “making all people well-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jonmin gwahak gisul injaehwa*). Parents showed great enthusiasm for education tailored to university entrance exams, seeing successful results as a strong basis for “social development” (*sahoejok baljon*).


The quality of education in key subjects depends heavily on the caliber of teachers and the availability of adequate equipment. Without these resources, students in local schools, especially those from families unable to afford private education, face marginalization. In computer education, children are more likely to progress in their computer skills if they are identified as “gifted students” (*sujae*, 22.0%) or if they receive private tuition or own a personal computer (61.0%).⁷⁴ This situation underscores the disparity in learning opportunities between

⁷¹ Of the total responses (100.0%), the attendance of the classes attended by the respondents’ children varied: 6.0% of the classes had 30.0% or more attendance, 40.0% had at least 50.0% attendance, another 40.0% had 80.0% or more attendance, and 14.0% reported full (100.0%) attendance. This means that 46.0% of the classes had less than 80.0% attendance.

⁷² Other reasons include social distancing measures (32.1%), no major change (18.9%), stricter attendance control leading to higher attendance (3.8%), and strengthened political education leading to higher attendance rate (1.9%).

⁷³ There was less interest in subjects chosen for the child's own interest in learning (10.2%), those contributing to assessments in school life (5.1%), or subjec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workplace skills (3.1%).

⁷⁴ There is a significant class difference in computer education. A much higher proportion of students who studied with a private tutor and had a computer at home demonstrated computer proficiency (61.0%), compared to gifted children who were mainly educated in specialized institutions (22.0%). Only 13.6% benefited from intensive courses at school, and only 3.4%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all students exhibit computer proficiency.



affluent students in the Pyongyang metropolitan area and their disadvantaged counterparts in rural and provincial areas.

Crucially, it was found that schools (58.0%) and parents (19.2%) were primarily responsible for covering the overall school finances.⁷⁵ Shortages were not limited to digital equipment (32.4%) but also included essential supplies such as firewood for winter heating and drinking water (29.4%) and textbooks (25.0%).⁷⁶

Overall, it is clear that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government action to mitigate classroom inequalities and maintain a minimum level of student motivation to learn. Parents often find it difficult to express their opinions or make complaints. In addition,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policies in various sectors is fiscally challenging. This underscores the need for a fundamental adjust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framework to make it more responsive to prevailing realities.

⁷⁵ The organizations identified as financially responsible for school operations include the school itself (58.9%), parents (19.2%), the Ministry of Education (8.2%), the Socialist Patriotic Youth League (8.2%), the provincial party committee (2.7%), and N/A (2.0%).

⁷⁶ Other items needed by students include basic supplies such as desks, chairs, blackboards, and educational materials (8.8%), followed by sports and music equipment (4.4%).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The “right” to education means that everyone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receive universal education and specific education based on need and want. Opportunities for accessing education must be provided fairly to all, and the state has the obligation to oversee and make the necessary adjustments.

After Kim Jong-un assumed power, North Korea’s education policy has undergone a series of notable changes. However, it has not been clearly analyzed how these policy changes are actually being implemented in the field. North Korea’s education system is undergoing improvements to embrace international mechanisms with the intention of demonstrating progres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these changes may remain largely rhetorical due to the inability of the state to apply the policy “universally” across the general popul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ncerned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be isolated and that it has been difficult to obtain reliable and verifiable information on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its residents due to border closures.⁷⁷ Furthermore, strict restrictions on movements, a sharp decrease in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government’s new restrictive measures on freedom of expression are also acting as obstacles to the outside world’s access to information inside North Korea. It can be said that it is of great social value to call attention to and criticize deficiencies in external society without neglecting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where collecting opinions and expressing them is difficult.

Furthermore, research focused on addressing the policies and practical challenges in North Korea’s education system has been predominantly limited to the perspectives of authorities and teachers. As previously mentioned, it is essential to analyze which areas urgently need

⁷⁷ Kim, Young-kwon,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Salmon, Submits First Report to UN: China, Russia Should Apply Non-Refoulement Principle to North Korean Defectors,” VOA (October 15, 2022). <https://www.voakorea.com/a/6790547.html> [accessed November 20, 2023]

impr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tudents,” who are the primary subjects of education, and to develop alternative approaches. In this process, examining the needs and limitations of students and families, who should be the main stakeholders in education, will provide new insight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efforts in this field.

It is also necessary to urgently examine how North Korea’s educational environment has been impacted during a period when overall social dynamics have diminished, and the self-sustaining economic activities linked to the market have decreased due to COVID-19. Ultimately, this survey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assessing whether the country’s policy direction and line align with the actual educational realities in North Korea and preparing appropriate alternatives based on these findings.

1.1 Methodology and Participant Information

1.1.1 Methodology

The survey content draws from the responses of 50 internal residents of North Korea, with the aim of capturing the overall situation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Participants were recruited evenly throughout different regions in an effort to avoid regional bias. This study adopts an “intrinsic approach” to address the limitations commonly associated with research based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eeks to assess the actual realities of insiders’ lives and their social experiences in North Korea. The survey method began with a small group of key informants and was expanded through a snowball sampling methodology, where the informants assisted in recruiting additional participants. The target demographic is ordinary citizens and includes internal informants who serve in North Korea’s public security agencies and the Party Center.

Gender, age group, residential area, highest level of education, and occupational cluster are the basic questions used to categorize the respondents by their characteristics. When answering the questionnaire, the participants drew from their experiences in sending children attending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Since we cannot directly protect the respondents who are exposed on-site, our first priority is to avoid causing harm to the victims or those involved. This

is why this report disclose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method of acquiring information to the minimum necessary level. During the survey, we promised confidentiality to all survey participants, supplemented by not disclosing the time of the survey and the information identifying the subjects. Therefore, we inquire about the gender and age of the students, as well as the area and level of the school, while refraining from requesting specific information such as student names and school names in order to protect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s survey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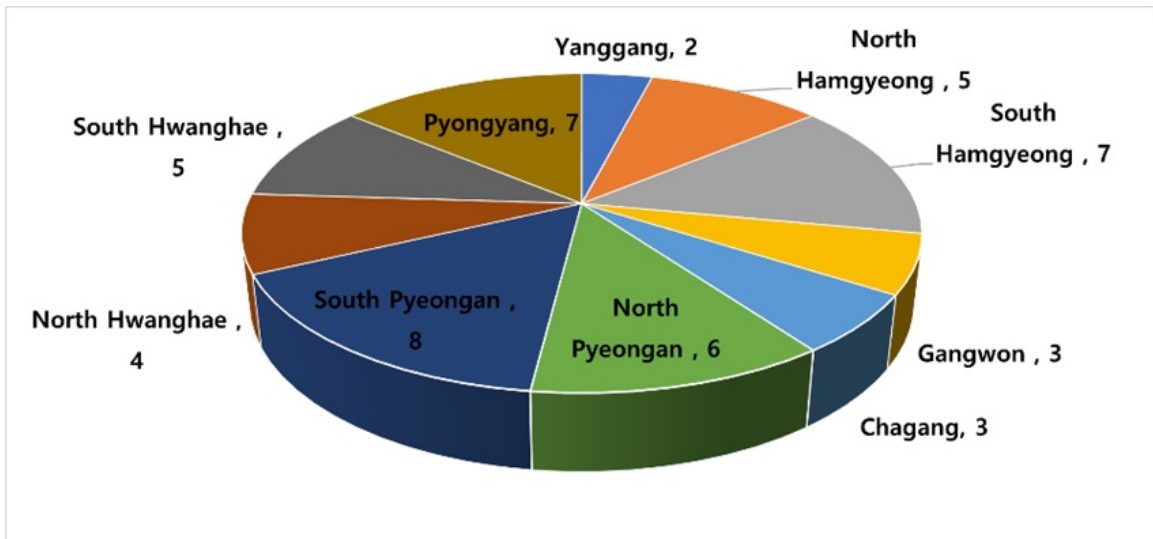
In our effort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social context of North Korea, we formulated key discriminatory factors into question. These factors were identified through an analysis of changes in North Korea's education policies and a thorough review of literature pertaining to existing educational conditions within the country. Our objective is to analyze data from official North Korean publications, such as the Rodong Sinmun, to discern the underlying motivations behind national policies and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s education thoroughly. By doing so, we aim to shed light on and present an appropriate direction for educational policy in North Korean society.

1.1.2 Participant Information

The survey subject information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survey included 50 residents of North Korea, each with school-age children. These participants were selected based on the regional household proportions determined by the 2008 UN North Korean Population Census. For the safety of the participants, specific dates of the survey are not disclosed. The survey was diligently conducted to meet the survey crite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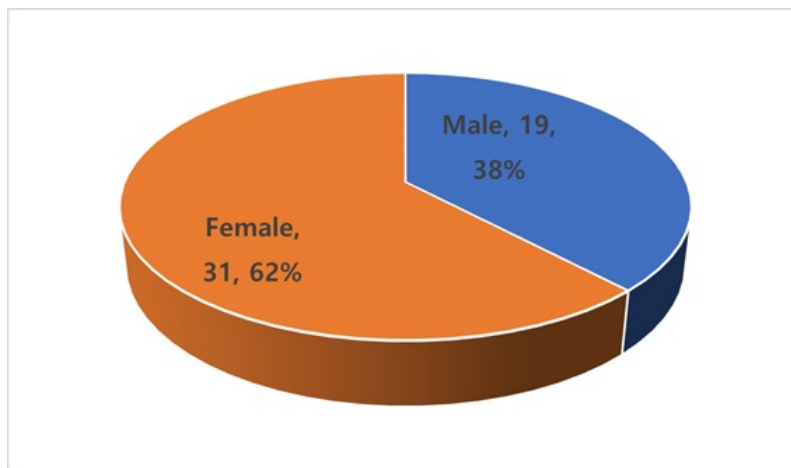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is as follows: two people are from Ryanggang, five people are from North Hamgyong, seven people from South Hamgyong, three people from Kangwon, three people from Chagang, six people from North Pyongan, eight people from South Pyongan, four people from North Hwanghae, five people from South Hwanghae, and seven people from Pyongyang [Figure 1].

[Figure 1] Regional Distribution of Respon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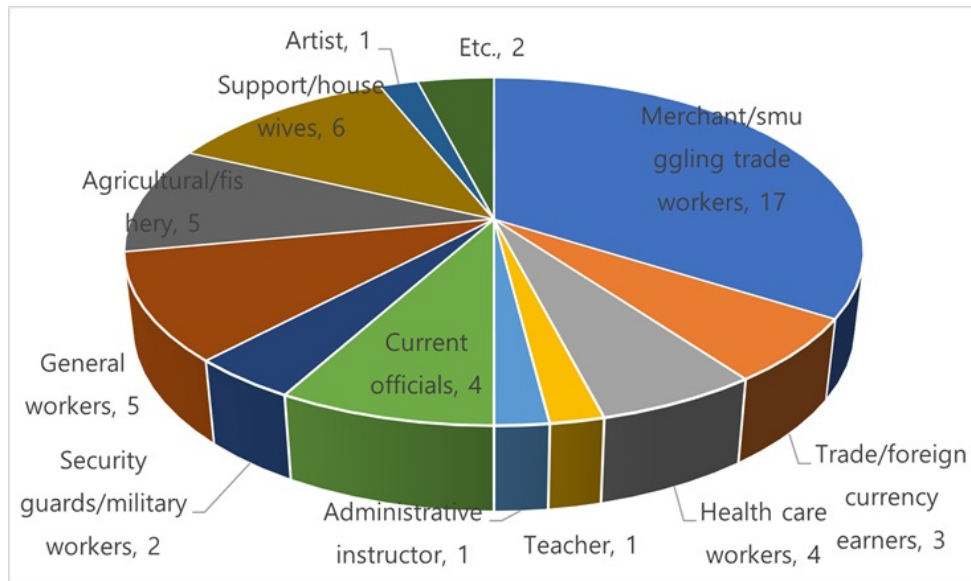
The gender distribution among the survey subjects includes 19 men and 31 women. Regarding age groups, 17 people are in their 30s, 25 people are in their 40s, and six people are in their 50s, respectively.

[Figure 2] Gender Distribution of Respondents



The distribution of occupations is 1 teacher or researcher, 5 laborers, 5 agricultural/fishery or forestry worker, 4 party organ officials, 3 trade/foreign currency earners, 3 health care personnel, 2 Public security officials or Military personnel, 6 support/housewives, 17 merchant/contraband, 1 culture and art workers, 1 administrative worker and others 2.

[Figure 3] Occupation Distribution of Respondents



The academic background of the survey participants includes 19 graduates of “senior middle schools” (*gogep junghakgyo*), six graduates of “colleges” (*dangwa daehak*) or “general colleges” (*godeung jonmun daehak*), six university dropouts, 17 university graduates, and two graduates or dropouts of “postgraduate schools” (*baksawon*) or “postgraduate research institutions” (*yeonguwon*), respectively.

The monthly income surveyed is as follows: nineteen people earning less than KPW 300,000, 13 people earning KPW 300,000-500,000, six people earning KPW 500,000-1,000,000, six people earning KPW 1,000,000-2,000,000, and five people earning more than KPW 2,000,000, respectively.⁷⁸

The distribution of the respondents’ children is as follows: out of the total students surveyed, 26 are male, and 24 are female. In terms of age groups, nine children are under the age of ten, 35 children are in their teens, and six children are in their twenties. Only three children have different places of origin and the location of schools they currently attend.

⁷⁸ In general, a North Korean’s income is divided into the monthly salary (living expense) received from the state and additional income. Because it is difficult to measure monthly income from (1) commerce/smuggling or (2) trade/foreign currency earning activities, the respondent’s reported annual income was divided into 12 months for a monthly estimate. In the case of dependents, the husband’s income was calculated on a monthly basis. Teachers and workers reported their official monthly income. In cases where respondents reported both unofficial and official income, these figures were combined to calculate the monthly income.

The distribution of origin is as follows: two people are from Ryanggang, five people from North Hamgyong, seven people from South Hamgyong, three people from Kangwon, three people from Chagang, six people from North Pyongan, eight people from South Pyongan, four people from North Hwanghae, five people from South Hwanghae, and seven people from Pyongyang City, respectively.

The distribution of school locations is as follows: nine schools in Pyongyang City, four schools in North Hamgyong, six schools in South Hamgyong, two schools in Ryanggang, three schools in Kangwon, three schools in Chagang, six schools in North Pyongan, eight schools in South Pyongan, four schools in North Hwanghae, and five schools in South Hwanghae, respectively.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ed in the survey are two kindergartens, 13 primary schools, 11 junior middle schools, 17 senior middle schools, one college, one general college, and six universities.

1.2 Literature Review

The issue of education in North Korea requires a multifaceted approach. Prior research on North Korean education has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study of North Korean political thought or a comparative approach through an analysi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education systems and the proposal of alternatives. While there are detailed studies on education content conducted individually, discussions on the right to education in North Korea, especially access to education, have only been briefly addressed within international mechanisms and have not developed into an in-depth research topic.

Aiming to become a “thriving nation” (*gangsong gukga*), North Korea embarked on the mission of “making all people well-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jonmin gwahak gisul injaehwa*)⁷⁹ and enacted the Ordinance on Enforcing Universal 12-Year Compulsory Education⁸⁰ in

⁷⁹ Article 8 of the 2015 Education Law states, “Ensuring that all people are well 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is an important goal of socialist education. Kim, Jisoo, “Kim Jung Un Regime’s Education Policy Seen through the 7th Workers’ Party Convention in North Korea,” *Education in Reunified Korea*, vol. 14 no. 2, (2017) p. 1.

⁸⁰ The main features of the Ordinance on Enforcing Universal 12-Year Compulsory Education are as follows: (1) extend compulsory education to 12 years in general; (2) prepare students with the self-learning skills necessary for daily life so that they can easily integrate into university, military and social life after graduation; (3) set goals at each school and class level, focusing on the ultimate goal and specifying the required subjects and the scope and

September 2012. This initiative marked the most pronounced change during the time of Kim Jong Un's ascension to power. The reorganization of its compulsory education system⁸¹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dicates their high level of interest in education. In particular, the reform of the school year seemed to align with global trends. This raised expectations for significant changes in the structure of North Korean education. These institutional changes have brought into focus the issue of ensuring equal education rights for students in North Korea. The emphasis on creating "opportunities" for sci-tech talents and "achieving universality" through expanded compulsory schooling makes it seem as if the North is genuinely pursuing "equality" in education.

Given that policy changes usually bring about social change, the process of education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needs to be examined in terms of the education authorities' intentions, execution, and resulting effects. Research in this area has increased with the changes in education policy since Kim Jong Un came to power.

Kim Seok-Hyang and Kim Kyung-Me (2017) reviewed Rodong Sinmun's articles from September 1, 2014, to October 31, 2016, to examine the authorities' intentions and influence on 12-year compulsory education. The study examines whether the leader Kim Jong Un's intentions are effectively disseminated throughout society and analyzes North Korea's intentions behind the formulation of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reforms. According to their study findings,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 aims to enhance the "quality level in talent development." It emphasizes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as the mode of implementation and a commitment to increasing "national

level of content for each school year; (4) ensure a systematic, sequential, balanced, continuous, harmonious and relevant approach in the content and methods of education at each school and class level; (5) establish a structure of "deepening through repetition" in the content and methods of education; (6) adopt a comprehensive teaching method for integrated subjects; (7) organize the curriculum to cultivate the Juche spirit and national character in students; (8) plan the content and teaching process to fully implement enlightened teaching methods; and (9) have the character of a legal document (as a regulation) that ensures continuity and stability i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⁸¹ Some of the major education reform policies implemented by the Kim Jong Un regime include the extension of compulsory education (from 11 to 12 years), the reorganization of school years (from the 4-6 system to the 5-3-3 system), the revision of the curriculum, and the establishment of technical senior middle schools. In addition, the North has enacted the Education Law, the Law on the Implementation of Teaching Programmes and the Law on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Kim Byeongyeon and Kim Jisoo, "A Study on the Educatio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Changes to Improve the Quality of North Korean Education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n Studies Review*, vol. 24, no. 1 (2019), p. 176.

investment” in education projects.⁸² Since 2015, however, the responsibility for improving educational conditions and the environment has been assigned to teachers, workers at relevant institutions, or local officials. Since 2016, parents have been brought in to play the main roles through the “70-day battle” (70 il jontu).⁸³ This raises the possibility that the project to improve school conditions may itself impose an economic burden on the North Korean people.

Kim Byeongyeon and Kim Jisoo (2019) focus on the changes in schools under Kim Jong Un through North Korean document reviews and interviews. They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se changes align with educational goals and analyze the nature and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including its people. Interviews with students of North Korean backgrounds revealed regional variations in the multifunctionality of educational facilities. Additionally, the findings indicated a lack of skills among teachers for effectively utilizing the facilities in the changed environment. The study inferred that, instead of pursuing projects with central government support, a school-level responsibility system was being pursued despite limitations. This approach pressed teachers to become the main actors in improving the school environment.⁸⁴ Furthermore, in the absence of central government support for teachers’ welfare, the authorities have emphasized the rol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focusing on relevant institutions, state-owned companies, and organizations.

Kim Jisoo (2019) focuses on the study of pre-school,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 Un. Her analysis encompasses the changing trends in education policy alongside shifts in the social system. Focusing on the increasingly competitive aspects of North Korean education, Kim Ji-soo describes how global trends are reflected. These include an emphasis on English language education, expansion of IT courses, and encouragement of multimedia use in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Accompanying these trends are changes in teacher policy, as evidenced by the Teachers Law and the Law on the Implementation of Teaching Programmes. These laws stipulate support measures for the

⁸² Kim Seok-Hyang and Kim Kyung-Me, “An Analysis of North Korea’s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from Rodong Sinmun,”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6, no. 1 (2017), p. 122.

⁸³ *Ibid.*, p. 125.

⁸⁴ Kim Byeongyeon and Kim Jisoo, *op. cit.*, p. 192.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livelihood of teachers.⁸⁵ Moreover, local sponsoring organizations and parent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mproving educatio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s at schools. This indicates a recognition at the state level of the serious situation, characterized by significant regional and school-level disparities.

Jun Ilgu (2018) examines the role of after-school activities, aiming to contribute essential data to the educational integration proces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Drawing upon findings from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and surveys, he observes that after-school activities have shifted from being effective tools for promoting diversity in educational activities to becoming instruments of control for regime maintenance by the authorities.⁸⁶

Furthermore, Jo Hyunjung (2022) highlights that parental support for children's private education leads to the justification for the societal exclusion of families who should otherwise receive an equitable level of support. This finding underscores the role of educational zeal among North Korean parents that reflects educational disparities and class divisions within sociocultural contexts.⁸⁷

Therefore, changes in North Korea's education policy, including the expansion of compulsory education, necessitate a thorough examination of whether education is effectively fulfilling its fundamental objectives, which involve nurturing individuals to embody the virtues expected of a society's members, defining the social talents envisioned by the state, and evaluating whether the state is employing appropriate methods to achieve these aims.

1.2.1 Research Scope

The study on the right to education necessitates a broad review. Consequently,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North Korean schools' educational environment during the COVID-19

⁸⁵ Kim Jisoo, *Analysis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Kim Jong Un Era*, KEDI Report RR 2019-11 (2019).

⁸⁶ Jun Ilgu, "A Research on After-school Activities of North Korea: Focusing on the Analysis of Extracurricular and Small Group Activities in the Education Newspaper Since Kim Jong Un's Regime (2012-2017),"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vol. 10 no. 2 (2018), pp. 241-288.

⁸⁷ Jo Hyunjung, "The Application of Private Education in North Korean Education and Its Meaning,"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53 no. 4 (2022), pp. 101-130.

pandemic, with a focus on the difficulties voiced by parents on behalf of their children. It identifies discrepancies between the actual state of North Korea's education system and the goals set by its authorities. This identification serves as a foundation for an initial effort to evaluate and establish indicators assessing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universal access to educ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education. First,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aims at ensuring the right to education by facilitating its realization. Therefor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should not be violated at schools, where this and other basic rights must be upheld. The right to be free from interference in education encompasses the essence of the right to liberty and is firmly rooted in the principles of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⁸⁸ In North Korean schools, for example, the excessive emphasis on ideological education⁸⁹ and forced mobilization deprives students of opportunities to cultivate emotions through basic subjects, as well as to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to function as members of society.

Next, the right to access education refers to the right to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based on individual ability. An important aspect of ensuring this right involves examining whether discriminatory mechanisms based on "social classification" (*songbun*), class,⁹⁰ and gender are present and operational in North Korean society.⁹¹

⁸⁸ Jeong Jae-Hwang,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Right to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Constitutional Cases,"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vol.20, no. 2 (2014), p. 25.

⁸⁹ According to the 2014 DPRK COI report, "the State operates an all-encompassing indoctrination machine that takes root from childhood to propagate an official personality cult and to manufacture absolute obedience to the Supreme Leader (Suryong)." Students are no exception from being controlled by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virtually all social activities undertaken by citizens of all ages." UN Human Rights Council, Commission of Inquiry (COI),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5th session, A/HRC/25/CRP.1* (February 7, 2014), p. 7.

⁹⁰ The 2014 DPRK COI report states that North Korea "presents itself as a State where equality, non-discrimination and equal rights in all sectors have been fully achieved and implemented." In reality, "it is a rigidly stratified society with entrenched patterns of discrimination" and "state-sponsored discrimin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pervasive, but is also shifting." *Ibid.*, p. 8.

⁹¹ Access to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as not included in this study to maintain a specific research focus.

Access to education should be supported by the quality of educational content, which should include students' access to schools with superior resources and high-quality education.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education across various regions or schools can be divided into differences in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As evidenced by the literature review, it is essential to analyze disparities in teacher expertise, urban-rural disparities, the prevalence of private education, and persistent bribery practices to determine whether they indeed play a role in undermin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North Korean students.

This broad-based research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present state of the right to access education. Chapter II of this paper will focus on identifying and presenting the current status of universal 12-year compulsory education. This will be accomplished by 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extended compulsory schooling on parents and identifying the primary reasons for students and parents exiting the school environment.

Moreover, this study gathers parents' opinions on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and ways to improve it. Also examined is the actual role of "extracurricular and small group activities" (*gwaoe mit sojo hwaldong*) and the level of economic burden on them. The financial burden on parents is not solely linked to private lessons; it can also be compounded by the government's inability to fully implement its free education policy fully, placing excessive strain on paren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will investigate which material resources are in short supply, assess the degree to which they contribute to parental burdens, and examine the level of labor mobilization among students.

Excessive financial burdens and student fatigue can erode their motivation to pursue education, resulting in missed opportunities and school dropou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approach of parents regarding access to education. Next, this study will examine private lessons for preschool children and students, their access to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and the concerns tied to parents' perceptions of regional and urban-rural disparities.

In conclusion, this study will evaluate societal perceptions of education to measure the awareness level of educational issues and willingness to improve access. Drawing upon these findings, we will articulate our response and propose a direction for future actions.

2. Survey Results

2.1 Introduction and Actual Status of North Korean Policy on the Expansion of Compulsory Education Period

Parents' opinions on expanding the compulsory education period are an indicator of North Korean parents' perception of education and knowledge level and what are the main considerations surrounding the North's educational environment. With the expansion of compulsory education, reading, and literacy become basic skills that everyone has, and they have equal qualities in achieving "social development" (*sahoejok baljon*) with the minimum knowledge necessary in life.


2.1.1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Improving "Education" Quality

Parents' opinions on the extension of the compulsory education period [Question 2-1]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Thirty-two percent of parents thought that the expansion of compulsory educa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school-age students. Parents are fully aware of the purpose of compulsory education to develop basic knowledge, saying, "It's good to learn at least one when you're young (South Hamgyong 3)," "It's best to learn at school (South Hamgyong 5)," and "There's nothing bad about studying more (South Hamgyong 7)."

[Table 1] Opinion on Expanding Compulsory Schooling [Question 2-1]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1. Good	16	32
2. Bad	18	36
1.2 Both	16	32



While the compulsory education period was expanded, other policy changes were also implemented. These included dividing secondary education into junior and senior middle schools and enhancing the focus on “experiments and practice training.” Examples of positive evaluation include comments like “School is not boring because it is divided into junior and senior levels” (Pyongyang 7) and “Education quality has improved” (North Hwanghae 2 and North Hwanghae 3). The respondents are fully aware of the relevance and effect of the changes in education policy and the reform of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Negative evaluations, accounting for 36.0% of the responses, reflect respondents’ critical perceptions of school education. Examples of such feedback include: “The number of school years has increased by one, but the expanded course plan, teaching plan, textbook, and education format lack substantive content” (Chagang 3); “The primary school curriculum has been completely reorganized, yet there hasn’t been a notable increase in students’ capabilities” (South Hwanghae 2); and “There is no improvement in education quality despite the addition of an extra school year” (Kangwon 2). These expressions of dissatisfaction are in line with the difficulties people face in pursuing customized learning for their children.

2.1.2 Relevance to “Career Prospects”

The expansion of the compulsory education period has led parents to consider its implications for their children’s future “career prospects” (*jinro*) after graduation from senior middle school. Usually, students are expected to complete the mandatory course [Question 5-2] up to senior middle schools (83.6%). However, depending on the parents, the desired educational institution appears to be different [Question 5-3]. The most preferred educational institutions among survey respondents were the Pyongyang Foreign Language Academy (37.9%) and Kumsung School (13.8%). This preference suggests that parents are hopeful their children will attend these prestigious schools alongside students from families with superior “social classification” (*songbun*).

The next preferred choice among parents was technical senior middle schools (17.2%). This indicates a high regard for schools that are nationally encouraged and select students based

on merit rather than “class background” (*todae*). The evident opportunity these schools provide for a student’s career prospects highlights why prior learning and private education are popular in North Korea. Still, only two parents (Pyongyang 1 and Pyongyang 3) recognized the senior middle school course as a preparation period for college entrance exams and expressed positive opinions about the additional year given for this preparation.⁹²

On the other hand, a significantly higher proportion of parents expressed expectations not for their children to advance to universities but to become general workers or enlist in the military. This perspective reflects sympathy for their children having to start social life at a young age. For instance, one parent said, “The reason is that I can take care of my child at home for a longer period” (South Pyongan 6 and South Pyongan 8), and another noted, “My child is too young to be graduating from middle school at 16 to 17” (Kangwon 3 and Chagang 1).

Financial constraints were also cited as a barrier to university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One respondent commented, “Men should enlist in the military, but it is too young to become a new soldier at 16 or 17. Therefore, it is good to have my son stay at home one year more before enlisting” (South Hwanghae 1). Thus, parents whose children are likely to join the military welcome the extension of the compulsory education period.

The link between career prospects and the negative opinion on expanding compulsory education is more pronounced. Some parents responded that “Considering the long-term military service, male students should graduate early” (South Hamgyong 1 and Pyongyang 4). Similarly, it was suggested that female students should also graduate early to pursue careers as merchants (South Hamgyong 6) or workers (South Hamgyong 4 and South Pyongan 5), enabling them to earn money and prepare for marriage. These responses clearly reflect the distinct gender-based social roles prevalent in North Korean society.

⁹² These parents, being residents of Pyongyang City and possessing at a college or above degree, either enjoyed a substantial income from foreign-currency-earning businesses or served as an “administrative supervisor” (*haengjong jidowon*) with lower incomes.

2.1.3 Burden of “Additional Tax Burden” and “Mobilization of Labor Force”

One key factor affecting parents’ evaluation of the extended compulsory education period was the “additional tax burden,” which translates to increased financial responsibilities for them. The prolongation of the education period means an extension of the time during which parents must financially support their children. Expressing this burden, one parent stated, “Eleven years is good, like when we were in school. There is so much that I have to pay until my child graduates” (Pyongyang 2). Another shared a similar sentiment, “I have to support my child (money-wise) until he or she graduates from school” (South Hamgyong 4 and Other 6).

The pronounced impact of the additional financial burden was evident in the responses of parents who select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options regarding education policies. While they acknowledge the benefits of these policies, they are also overwhelmed by the education-related expenses, non-tax compulsory payments, and financial support for teachers.

When asked about the necessity of compulsory education, the vast majority of parents recognized its importance. Ninety percent of respondents affirmed, “My child must go to school. It is better to send my child to school,” with none expressing the view that “There is no need for schooling” [Question 2-2]. The primary reason was to enable their children to achieve good grades and gain admission to prestigious universities (27.0%) [Question 2-3]. On the other hand, the main concern among the minority opinions was the urgency of economic challenges [Question 2-4], suggesting that financial difficulties might lead to students leaving school prematurely.

2.1.4 Absenteeism Rates and Policy under COVID-19

The adverse external factors brought about by the COVID-19 pandemic seem to have significantly affected the attendance rates of students [Question 2-8]. More than 50.0-80.0% of the total students are present at a high rate. Attendance in a class is below 80.0% in 46.0% of cases. A follow-up article from DailyNK supports the research findings, noting that unlike in the past when the attendance rate averaged around 70.0%, the lowest official attendance rate

recorded recently turned out to be 50.0%.⁹³ However, in its response to the fifth DPRK CRC report dated June 15, 2017, North Korea stated that school attendance at all levels was stable at over 98.0%, suggesting that the report may not reflect the actual situation.⁹⁴

[Table 2] Attendance under Coronavirus [Question 2-8]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1. 100%	7	14
2. Over 80%	20	40
3. Over 50%	20	40
4. Over 30%	3	6
5. Little attendance	0	0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changes in student attendance during the pandemic [Question 2-9] include family financial difficulties (43.4%), followed by distancing measures (32.1%), no change (18.9%), stricter attendance management (3.8%), and rigorous political education (1.9%).⁹⁵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urrent crisis is leading to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dropping out of compulsory education.

As for the extent of family economic hardship, it is common for families to be overwhelmed by the cost of school supplies and basic preparations at the beginning of the school year.⁹⁶ However, there are also cases where children are left as teenage heads of households due to the death of a parent or the disappearance of a parent to South Korea or China,⁹⁷ or where

⁹³ Lee Chae-eun, "New School Year Commences with Poor Student Attendance Attributed to Family Financial Hardships," *DailyNK* (April 7, 2022). <https://www.dailynk.com/20220407-1/> [accessed November 20, 2023]

⁹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dendum. Repl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List of Issues," in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List of Issues in Relation to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RC/C/PRK/Q/5/Add.1. (June 28, 2017), p. 3.

⁹⁵ According to a recent article, the main reason for the 60.0% attendance rate in Hamhung City's elementary schools is that students refuse to go to school after being criticized by their teachers for not fulfilling the economic tasks posed by the school. Lee Chae-eun, "Only 'Certain'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Classes Bear the Expense of Flower Baskets for Party Founding Day," *DailyNK* (October 11, 2023). <https://www.dailynk.com/20231011-1/> [accessed November 20, 2023]

⁹⁶ Kim Jong Un ordered the provision of high-quality school uniforms and bags for students as a task to be accomplished at the March 2022 plenary session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Lee, Chae-eun, op. cit. (April 7, 2022).

⁹⁷ There was a boy who took on the role of breadwinner after his mother, who was the main breadwinner of the family, passed away due to illness. Previously, the mother had provided for the family, but after her death, he

children are unable to attend school because they are required to help their parents with the household chores, or where the burden of school work is such that they are less motivated to learn. In these situations, girls, in particular, are often expected to help their mothers or take on the role of supporting the entire family, as North Korean women are responsible for the household finances.

This low attendance rate is supposed to be reported to the city education department. However, the local education department took no action and instead asked the school principals to ensure the attendance of their students. The responsibility for this situation was therefore shifted to the teachers.

It was revealed that prolonged absenteeism from school education leads to ineligibility for graduation after a certain period [Question 2-6].⁹⁸ To address absenteeism, schools have implemented measures [Question 2-7], such as having class teachers and fellow students visit the homes of absentees to give them attendance notice (58.0%). Additionally, parents are often coerced, through methods like “a review of one’s life” (*saenghwal chonghwa*) and punishment, to ensure their children’s participation in compulsory education (30.0%).⁹⁹ However, some responses indicate the existence of “preferential treatment,” suggesting that students who do not meet “graduation requirements” can still obtain diplomas through “material contributions” to improve school conditions. This points to a discriminatory structure where students from wealthier families in North Korea receive preferential treatment.¹⁰⁰

reportedly faced a dire situation in which the entire family faced starvation due to the lack of any source of income in the household. Lee Chae-eun, “Teenage Boy in Chongjin Becomes Breadwinner at a Young Age, Pulling a Wheelbarrow,” *DailyNK* (September 18, 2023). <https://www.dailynk.com/20230918-2/> [accessed November 20, 2023]

⁹⁸ Students are allowed to be absent from school when a family member dies or when they are hospitalized for illness and are able to return to school after being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South Hamgyong 3); students are allowed to be absent for a maximum of three days out of 25 school days in a given month (Chagang 1); and students with illness are allowed to be absent for a maximum of 10 days per semester (Kangwon 2).

⁹⁹ Of those who chose “other,” 4.0% said that students face no problems if they meet the minimum number of days of attendance, and 8.0% said that wealthy children face no problems if their parents offer bribes.

¹⁰⁰ Examples are as follows: Students can graduate without meeting attendance requirements if their parents negotiate and make a deal with the principal (South Hamgyong 6); graduation is possible for students who contribute to “school modernization” or participate in national competitions (Kangwon 1); and students can graduate if their parents make donations to the school or kindergarten (South Hwanghae 5).

2.2 Quality of Education and Supplementary Measures

2.2.1 Awareness of Important Subjects

The subject that is deemed most important by children at school [Question 3-1] serves as an indicator of the direction of North Korea's education policy and reflects parents' perspectives on it.

[Table 3] Subject Considered Most Important [Question 3-1]

Subject	Reply	Subject	Reply
Korean	19	Basic Technology	2
English	26	Music	6
Mathematics	41	History	0
Natural Science	15	Geography of Chosun	1
Morality	3	History of Revolution	3
Art	2	Computer	20
Physical Education	5	Etc	3

The primary reason parents select certain subjects as important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Question 3-2] is that they help in developing children's knowledge and abilities (40.7%), while the second reason is their utility in gaining admission to prestigious universities (32.2%). Interestingly, only 10.0% of respondents prioritized their children's interests in this decision. Notably, English and Mathematics, which are the first and second choices, respectively, are emphasized more intensively in senior middle schools. They are also central to university entrance exams and are key subjects in private education.

Other popular subjects in North Korea include Computer Education and Natural Sciences. The approach of the North Korean education system is to elevate the knowledge level of students and align with international trends, aiming to "make all people well-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jonmin gwahak gisul injaehwa*). Consequently, this focus on the two subjects can also be found in private education.

In particular, since the opening of technical senior middle schools in 2017, there has been a

requirement for students to learn at least one contemporary technology. Basic Sciences and Computer Education are emphasized in the education policy, including the direction of educational content and the creation of practical opportunities. This trend in the educational focus is also reflected in the perceptions of parents.

[Table 4] Evaluation of Computer, Science and technology,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Question 3-4]

Category	Computer Science	Science and Technology	Foreign Language
1. Good education	47	42	40
2. Unnecessary education	3	8	10

Most parents acknowledge the value of Computer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and Foreign Languages as important subjects that need to be emphasized [Question 3-4]. However, the education level in these subjects may not meet the expectations of parents due to challenges posed by COVID-19 and economic difficulties experienced in schools.

2.2.2 Poor Educational Content and Reliance on Tutoring

In fact, when parents were asked about teachers' abilities in the above three subjects [Question 3-5], the responses varied. They ranged from believing that a teacher's ability depends on individual effort and preparation (42.1%) to noting an imbalance in teacher quality between regions (36.8%) and observing that teachers are not well-prepared for the classes (17.5%).

[Table 5] Evaluation of Education Quality [Question 3-5]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1. Insufficient	10	17.5
2. Teacher's personal preparation	24	42.1
3. Levels vary by region	21	36.8
4.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t the national level	1	1.8
5. Not interested.	1	1.8

so, it is necessary to have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which students have the specialties of the subject [Question 3-6]. Parents recognized that students who are actually proficient in computers often learned with tutors or had access to computers at home (61.0%).¹⁰¹ Alternatively, it was revealed that they handled computers well when students received intensive education (including those for “gifted students” (*sujae*)) at school (22.0%). Although high-quality education within the school curriculum is acknowledged as important, it is evident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reliance on private lessons for developing computer skills.

The survey responses also indicated a preference for expanding practical subjects such as Computer Education and Foreign Language regarding the question on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Political Thought Education [Question 3-7]. A significant 90.0% of respondents stated that it is unnecessary to increase the focus on Political Thought Education. The reasons cited for objection [Question 3-8] include being already covered in the curriculum (40.4%) and expanding practical subjects such as Computer Education and Foreign Language being more important 36.2%.

In response to the question about what options parents can choose if the school is incapable of implementing national education policies [Question 3-8], a significant number of parents indicated that they opt for arranging “private lessons” (*gwawe*) for their children (39.2%). Given the difficulties in transferring to another school, such as restrictions on freedom of movement, taking private lessons emerges as the most practical choice for many (24.1%). However, the option of private lessons is not viable for all parents who cite financial constraints as a barrier (15.2%), suggesting that the level of learning development varies with economic disparities. Notably, only a small fraction of respondents mentioned they would approach the government or school to address the issue (2.5%).

¹⁰¹ Students who have received private lessons and have a personal computer at home are much more likely to be proficient in computer skills (61.0%) than those who receive their education primarily in specialized institutions (22.0%), highlighting a significant class divide. Only 13.6% of students benefit from intensive computer training at school. In addition, only 3.4% reported that all students achieved a high level of computer proficiency.

2.3 Current Status of Free Education

2.3.1 School Finances: Who is Responsible?

A key feature of North Korean education is its principle of “free education.” However, understanding who bears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school management and to what extent is a crucial part of the agenda in determining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actualizing “free education.”

[Table 6]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School Finances [Question 4-1]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1. Provincial Party Committee	2	2.7
2. The Ministry of Education	6	8.2
3. School	43	58.9
4. Youth League	6	8.2
5. Parents	14	19.2
6. None	2	2.7

In response to the question about who bears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schools [Question 4-1], the majority of parents indicated that the schools are financially responsible (58.9%). The second most common view was that the financial burden falls mainly on the parents (19.2%).

However, despite the perception that schools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ir own finances, there seems to be a trend where this responsibility is indirectly shifted to parents. As many as 39 out of 50 respondents reported that parents are periodically coerced to cover various expenses [Question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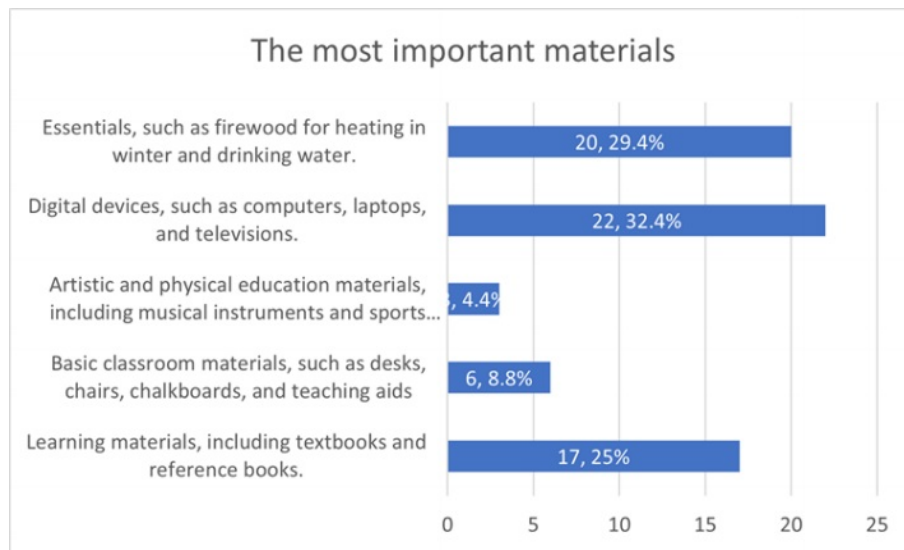
2.3.2 Insufficient Material Resources

In exploring the financial challenges faced by schools [Question 4-3], the most pressing needs identified were for digital devices such as computers, laptops, and televisions (32.4%),¹⁰²

¹⁰² In its response to the fifth DPRK CRC report, North Korea stated that computer and foreign languages have been successfully taught in all elementary schools since 200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p. cit.*, p. 3.

followed by essential resources like drinking water and firewood for winter heating (29.4%),¹⁰³ and learning materials, including textbooks and reference books (25.0%). These findings underscore a significant gap in North Korea's free education system, particularly the lack of basic operational necessities like firewood and drinking water, coupled with a high demand for modern digital devices in line with recent changes in education policies.

[Figure 4] Urgently Needed Materials and Supplies



The survey revealed that students' access to computers and laptops varies significantly, largely because schools are unable to provide these in sufficient quantities.¹⁰⁴ According to the responses on the method of preparing the devices [Question 4-4], children from affluent families generally have access to these devices at home (47.5%). Meanwhile, only some specialized schools across the country provide them (23.7%), and in regular schools, access is often contingent on parents purchasing the devices for the school (20.3%). These findings

¹⁰³ Some students refuse to attend school because they are forced to pay for firewood for winter heating. Every year, starting in October, students are required to contribute to the cost of firewood for winter heating. Previously, local people's committees and state-owned factories and enterprises covered these costs on behalf of schools, but this practice has been discontinued. Lee Chae-eun, "Truancy Among North Korean Students Increases over Concerns of Firewood Expenses," *DailyNK* (December 5, 2022). <https://www.dailynk.com/20221205-4/> [accessed November 20, 2023]

¹⁰⁴ On April 12, 2020,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passed the Law on Distance Education. In late December 2021, and Kim Jong Un ordered to strengthen non-face-to-face distance education not only for schools but also for workers as an emergency measure to prevent COVID-19.

highlight a marked imbalance in learning opportunities and an increased financial burden on parents.

To demonstrate its commitment to addressing the shortage of educational resources, North Korea has chosen a school to serve as a “model school,” using its improvement outcome as evidence of improvement. North Korea mentioned this initiative in its response to the fifth DPRK CRC report, in which a rural school in North Pyongan Province was renovated and reorganized to serve as a “model school” for other rural schools to follow.¹⁰⁵

Despite the modernizing efforts, there is ongoing evidence of support being concentrated in specific regions. According to a report by DailyNK, primary schools in Pyongyang City and Haeju City (of South Hwanghae Province) have a significant computer possession rate of 63 percent. In stark contrast, schools in Kogen County of North Hamgyong Province and Kosan County of Kangwon Province lag behind with a mere six percent. This data underscores a substantial disparity in the rate of modernization and access to technological resources across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¹⁰⁶

National efforts to enhance the educational engagement of students from vulnerable families in North Korea [Question 4-5] appear to be lacking. In response to the survey question about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a significant portion of respondents indicated that providing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is challenging (47.1%). This difficulty is primarily attributed to the high number of students who are unable to attend school due to economic hardships in the family.

Moreover, the majority of parents reported that the absence from classes made it difficult for some students to continue their learning effectively (33.3%). Notably, only four respondents mentioned that their schools provided support to these students (7.8%). This situation highlights a significant gap in nationwide measures to address the disparities in class

¹⁰⁵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p. cit.*, p. 3.

¹⁰⁶ Chung, Tae-joo, “IT Classes Crucial in Primary schools: But Should Facility Renewal Costs be Borne by Beneficiaries?,” *DailyNK* (December 19, 2022). <https://www.dailynk.com/20221219-4/> [accessed November 20, 2023]

attendance and maintain a basic level of learning motivation among students.

2.3.3 Cost Shifted to Parents

In this context, the survey also revealed the various daily “tasks” that schools impose on parents. A brief analysis of the tasks list includes (1) contributing to school facility maintenance expenses, (2) providing laptops and experimental tools, (3) offering support for teachers, (4) arranging for heating, and (5) procuring rabbit skin.

Parents of middle school students typically pay an average of KPW 200,000 annually for the maintenance of school facilities. However, the burden becomes more pronounced for lower-income families. For instance, families with an annual income of only KPW 800,000 are required to pay KPW 30,000 each month, 12 times a year (South Pyongan 1). This situation indicates that schools decide and impose minimum financial contributions in fixed amounts to parents without considering their differing financial circumstances.

Families with an annual income between KPW 1,000,000 and 2,000,000 are obligated to pay KPW 150,000 for school facility maintenance four times a year, provide five cartons of cigarettes once a year, and contribute sand, gravel, and steel bars once a year (Pyongyang 3 and Pyongyang 5). In contrast, families with a monthly income of less than KPW 1,000,000 face requirements of an average payment of KPW 50,000 seven times a year, two cartons of cigarettes twice a year, 100 kg of cement once a year, and one wooden panel board four times a year (Pyongyang 1, Pyongyang 2, Pyongyang 4, and Pyongyang 6).¹⁰⁷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two-fold difference depending on the economic circumstances, leading to discrimination in the treatment of students. Moreover, it is evident that a two-fold disparity in parents’ contribution could lead to discrimination in the treatment of students. Moreover, parents are expected to support teachers, typically by providing one carton of cigarettes, 10

¹⁰⁷ The financial burden on parents to support their children’s education is excessive. This includes paying for various school operating expenses such as maintaining facilities, purchasing laptops and laboratory equipment, supporting teachers, and heating costs. In addition, parents have to provide in-kind support such as rabbit skins and even participate in various mobilization activities organized at their children’s school.

liters of alcohol, and 15 kg of rice twice a year, or alternatively, KPW 100,000 in cash annually and KPW 10,000 four times a year. Such forms of support to teachers could also lead to their discriminatory treatment of students.

In the winter season, parents are expected to provide the essential materials required for heating the school. The specific amount of support varies by region, but parents are typically asked to contribute either one batch of firewood three times a year or 20 perforated briquettes once a year. Despite the challenging school environment, new educational policies necessitate the use of laptops and experimental tools in schools. Below are the specifics of the support provided by parents to junior and senior middle schools, categorized by region:

[Table 7] Parental Contributions to School Expenditures on Laptops and Laboratory Equipment in the Past Three Years [Question 4-6]

Area	Junior High School	Area	Senior High School
South Hamgyong 1		South Hamgyong 3	0
		South Hamgyong 4	0
		South Hamgyong 6	0
Chagang	-	Chagang 3	KPW 100,000 once a year
Gangwon	-	Gangwon 2	KPW 10,000 twice a year
		Gangwon 3	KPW 30,000 for modernization twice a year
Pyongyang 1	0	Pyongyang 3	KPW 300,000 once a year
Pyongyang 4	KPW 200,000 once a year	Pyongyang 7	0
South Hwanghae 4	KPW 200,000 once a year	South Hwanghae 1	KPW 80,000 once a year
North Hwanghae 2	KPW 100,000 once a year	North Hwanghae 1	KPW 50,000 twice a year
North Hwanghae 3	KPW 50,000 twice a year		
North Hamgyong 3	KPW 130,000 once a year	North Hamgyong 2	KPW 130,000 once a year
North Pyongan 1	KPW 130,000 once a year	North Pyongan 3	KPW 100,000 once a year
North Pyongan 5	KPW 130,000 once a year		
North Pyongan 6	KPW 110,000 once a year		
Ryganggang	-	Ryganggang 2	KPW 150,000 once a year
South Pyongan 4	KPW 50,000 twice a year	South Pyongan 1	KPW 100,000 8 times a year
		South Pyongan 3	KPW 60,000 3 times a year
		South Pyongan 7	KPW 100,000 once a year
		South Pyongan 8	KPW 50,000 twice a year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policies by North Korean authorities, which are ill-suited to the actual conditions and only serve to increase the burden on parents, is a point of significant criticism.

2.3.4 Actual Status of Student Mobilization of Labor Force

On top of these burdens, students are also required to participate in “labor mobilization” (*noryok dongwon*) activities [Question 4-7]. The primary tasks assigned to students include support work at construction sites and farming villages (30.8%), as well as manual work related to livestock and tree nurseries (23.8%). This work can be characterized as intense labor mobilization, in contrast to the relatively simpler tasks such as collecting firewood and acorns (16.2%) or participating in simple beautification and village maintenance (4.6%).

Officially, North Korea includes “labor mobilization” (*noryok dongwon*) in its school curriculum. In 2023, as reported by DailyNK, Gaechon City set May 10 to May 31 as a general mobilization period for rice planting. Students paused their studies for 11 days, specifically from May 20 to May 31, to participate in the planting. Beginning on May 10, students took part in rice planting after school hours from 14:00 to 20:00. Following May 20, they halted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entirely to concentrate on this task.¹⁰⁸ Such practices of mobilization clearly infringe upon th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Table 8] Student “Mobilization of Labor Force” in the Last Three Years [Question 4-7]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1. Firewood, acorn picking	21	16.2
2. Construction sites, rural support	40	30.8
3. Livestock and tree planting	31	23.8
4. Simple beautification and village maintenance projects	6	4.6
5. Parental support	29	22.3
6. Other	3	2.3

¹⁰⁸ Lee Chae-eun, “North Korea Violates Education Rights in ‘Rice Planting Battle’: Classes Suspended for 11 Days,” *DailyNK* (June 7, 2023). <https://www.dailynk.com/20230607-3/> [accessed November 20, 2023]

Some students are exempted from “labor mobilization” (*noryok dongwon*) when their parents offer alternative support (22.3%).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y receive different treatment based on the level of school donation their parents can affor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ome students were not only mobilized for hard labor in the midst of their families’ economic struggles but also faced criticism regarding their ideological standing.

[Table 9] Reasons for Absconding from School [Question 2-5]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1. Limitations of the Social Backgrounds	19	15.4
2. Unsatisfied with the education	14	11.4
3. Mobilization of labor force and burden of tasks	41	33.3
4. A low interest in school life	30	24.4
5. Maintenance of livelihood	18	14.6
6. Other	1	0.8

The main reason students choose not to attend school [Question 2-5] is fatigue from forced labor mobilization (33.3%), followed by a decreased interest in school life, such as friendships (24.4%). This trend may reflect the peculiarities of North Korean education, including the role of the Socialist Patriotic Youth League, “small group activities” (*sojo hwaldong*), and a strong focus on Political Thought Education. Notably, the fatigue resulting from forced labor is also associated with financial problems within schools.

In response to the question of whether parents’ opinions or complaints are adequately communicated [Question 4-8] when the “free education” policy is not fully implemented, the majority of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y are not aware of how the overall discussion is conducted (44.0%). Others said that the opinions of parents or students are not taken into account at all (26.0%). Even when opinions or complaints are adequately conveyed, some respondents noted that financial shortage problems persist (14.0%). Only two individuals reported that their opinions or complaints were adequately communicated to the authorities.

2.4 Questions about Approaches to Complement Access to Education

2.4.1 Preparation for Preschoolers

In the case of preschoolers under the age of six, we inquired about how parents receive assistance in preparing their children for primary school entry [Question 5-1] and whether they request policy support from authorities. The majority of parents reported experienc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ccess to education because they either educate their children at home (40.0%) or enroll them in kindergartens (28.2%). However, there are also cases where parents hire tutors for preschool children when they can afford to do so (22.7%). In 2013, North Korea established a system to enhance the quality of preschool education, aiming to better prepare children for primary education. On the other hand, only one respondent stated that preschool education is not necessary at all, serving as an outlier that underscores the increasing recognition of the universal importance of early learning.

2.4.2 Grades and Covering Tutoring Cost

When asked about the requirements for admission to the desired educational institution of their choice [Question 5-4], respondents identified outstanding academic performance as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54.0%), followed by the economic ability to pay bribes (18.0%), “family background” (*jiban baegyong*) and power (16.0%), and “social classification” (*songbun*) and “class background” (*todae*, 8.0%).

Although family background, power, social classification, and class background are closely related, parents perceiv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ification and class background to be relatively weak. The fact that academic performance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for admission gives the impression that there is equality of opportunity in North Korea.

However, one must consider the necessity of “private lessons” (*gwawe*) to achieve excellent

grades in North Korea [Question 5-5]. Private tuition is available throughout the country, with English being the most popular subject. Twenty-six parents responded that they usually arrange for their children to receive private lessons in foreign languages, such as Chinese, from tutors in their residential areas. In addition, 23 people chose mathematics, 11 people opted for physics and chemistry, and 10 people selected computer education as their choice of private lessons. Despite the significant expenses associated with private tutoring, there were cases where students received lessons in multiple subjects. In the South Pyongan region, senior middle school students are found to take private lessons-based on their needs-in English, Chinese, Mathematics, Physics, and Chemistry. Parents paid RMB 800 to 1,500 every month for these lessons. Parents of junior middle school students spent RMB 500 on average per month.

In addition, students took private lessons in various subjects, including dance and reed organ (*sonpoonggum*) for a monthly fee of USD 25.00 or 15 kg of rice, piano for USD 15.00, vocal music for USD 15.00, singing for USD 8.50, violin for USD 30.00, guitar for KPW 150,000, and soccer for 10 kg of rice, respectivel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tuition fee tends to increase as the student's age decreases.

The demand for private tuition seems to be lower in Pyongyang City than in other regions. This is because Pyongyang parents are sufficiently satisfied with the school curriculum and other "small group activities" (*sojo hwaldong*). Pyongyang students tend to take more private lessons in arts and sports (guitar, violin, soccer, singing, etc.) than in entrance exam subjects. English and Mathematics classes are known to cost around USD 25.00 per subject. Tuition is no more expensive than in other regions. Since the level of education, including the quality of teachers, varies from region to region, and the government provides different levels of support, parents from non-Pyongyang regions are burdened with the tuition fees they have to pay to make up for the differences.

2.4.3 Obtaining University Enrollment Opportunities

When it comes to entering higher education [Question 5-6], on average, 2.56 male students and 2.34 female students out of a typical class size of 26.5 are admitted to colleges and universities. Although there is a slightly higher proportion in the number of mal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s of male and female admissions is not significant.

It is worth noting that a substantial number of male youths join the military, which contributes to the relatively low number of female students enter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North Korean society, enrolling in higher education is not easily attainable, and it holds considerable social value as it can lead to promotions to “cadre” (*ganbu*) level positions and better job opportunities, making it highly valued by North Koreans compared to our society.

2.4.4 Overcoming Regional and Urban-Rural Disparities

When asked whether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that affect the college enrollment rate [Question 5-7], parents mention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qualifications and educational levels of rural and urban teachers (36.1%). In addition, the relatively small number of farmers who want to go to university (35.2%) may make students less willing to pursue higher education.

However, given the apparent value of the opportunity to attend university and the confirmation that such considerations exist in national policy, the issue of urban-rural disparity can be said to persist in North Korea. In addition, some parents expressed concern about regional divide rather than urban-rural disparities (12.3%), while other parents found problems with differences in family circumstances and bribery leading to a wider divide within North Korean society (15.6%).

2.5 Social Perceptions of Education

2.5.1 An Examination of the Ultimate Cause

When asked about the ultimate reason for their children's low chance of enter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Question 5-8],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 predominant opinion is the low academic performance of their children (49.3%). This is consistent with the belief that "merit" is a primary requirement for admission to prestigious universities. Parents also cited the incapacity to pay bribes (22.5%), the limitations imposed by their poor class background (*todae*, 15.5%), and the inability to afford private tutors (9.9%).

When asked whether they were concerned about bribery, resulting in "preferential treatment and fraud in college admissions" (*gyowon mit bujong iphak*), responses varied [Question 5-9]. Many felt that nothing could be done about it due to insufficient education funding (35.4%), while others advocated cracking down on admission fraud (34.4%). In addition, a significant number of parents expressed indifference to illegal enrollment through bribery, reflecting the weak criticism of the issue in North Korea. Interestingly, only one person supported the view that illegal enrollment should not be allowed, even though respondents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select multiple answers. This underscores the prevalence of bribery in North Korean society.

Some parents responded that bribery has made it possible for students to get into school even if their "social classification" (*songbun*) is not good (12.5%), suggesting that they recognize the influence or even the "positive function" - in North Korean terms - of bribery on the limitations imposed by social classification.

2.5.2 Perceptions on Educational Opportunities

What are the ultimate goals and values of education in North Korea? When asked how they felt about their children's compulsory education through senior middle school [Question 6-1],

parents responded that it was an essential course for becoming “cadres” (*ganbu*, 33.3%) and evidence of completing ideological education (15.8%), reflecting the peculiarities of North Korean society. Some parents’ views turned out to be aligned with the goal of universal compulsory education in expecting their children to broaden their worldview as required for human development and acquire the necessary knowledge (28.1%). However, the relatively small number of parents who perceive it primarily as a means to secure a decent job (14.0%) or as a way to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in their chosen fields (8.8%) suggests a need for further improvement i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in helping students pursue their “career prospects” (*jinro*). Recently, North Korea has placed increased emphasis on developing student competencies through “inquiry activities” (*tamgu hwaldong*) and has announced plans to strengthen vocational technology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When asked why it is important for children to receive a college education [Question 6-4], the majority said it was important for their children to become “cadres” (*ganbu*) and hold important positions in society (40.4%). The next group said it was important for their children to get a decent job (31.6%).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role of compulsory education and the value parents place on college admission. Only 15.8% of parents said it was important for their children to get a good education.

Ensuring compulsory education is the primary step to prevent students from leaving school [Question 6-2]. The high proportion of respondents emphasizing essential support for “gifted students” (*sujae*) regardless of their status (40.0%) suggests that “merit” is considered the fairest and most equitable standard in North Korean education. However, many parents also emphasized essential support for the poor (25.5%) and areas with poor educational conditions (27.3%), indicating a notable level of awareness about the need for targeted support for groups that align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compulsory education.

2.5.3 Perceptions of Ways to Improve Access to Education

When asked what efforts have been made at the Party and state levels to eliminate inequality in

education [Question 6-3], respondents chose more inten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falling or low grades (37.0%), education reform to introduce 12-year compulsory education (18.5%), equal treatment of girls and boys (16.7%), and providing support for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13.0%).

This indicates a growing expectation of fairness in the college admissions process for the sake of their children's future. When asked about college selection criteria that address inequality [Question 6-5], 47 out of 50 parents chose academic grades, demonstrating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influence of financial resources and "class background" (*to dae*).

Also analyzed are the practical limitations that caused women not to receive enough education in North Korea [Question 6-6]. Girls are advised not to go to college because they have to contribute to the family economy (32.0%). Some parents also expect girls to undertake household chores and raise children in the future (23.7%). A significant number of respondents believe that girls should give up their opportunities to attend college and secure decent jobs to male students (20.6%). Notably, awareness of discriminatory treatment of women and gender inequality is low.

Regarding the adequacy of education for vulnerable groups [Question 6-7], the largest group of respondents said that active support measures and scholarships should be provided for the education of students from vulnerable groups (52.8%), while others responded that educational support should be focused on gifted students, given the limited resources of the state (28.3%).

The next question was on how North Korean students decide their future careers [Question 6-8]. The parents responded that their children would get a university diploma and become "cadres" (*ganbu*) if they have a good "social classification" (*songbun*, 45.1%), join the military and gain a party membership (30.4%) or be assigned to jobs they do not want if their social classification is not good enough (21.6%).

As a crucial poin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parents do not have a clear idea about

the life of a student who goes to university and becomes a “cadre” (*ganbu*) and the life of a student with a low social classification who is bound to be assigned to undesirable jobs is closely related to education.

Regarding when students recognize their social classification [Question 6-9], respondents said that it is when their children do not get the desired job (32.8%) when they are excluded from the selection process for “outstanding talents” (*usuhan injae*)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16.4%), when they are unable to enlist in the military (19.7%), or when they recognize it later after starting a social career (14.8%).

When asked how they felt about their children’s jobs being determined by “class background” (*todae*) [Question 6-10], the largest group of respondents said it was unfair and should be improved (48.0%), followed closely by those who thought it was not right, but nothing could be done about it (38.0%). These two responses were of similar proporti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outline directions for improving inequality in the system, help people overcome a sense of helplessness, and motivate them to actively seek responsive measures in North Korea.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Education is a basic human right that works to raise individuals out of poverty, level inequalities,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nurture critical thinking. Education is a building block to guaranteeing other fundamental rights. As seen in this report, while the North Korean regime guarantees equal access to education through its laws, the reality differs. Structural barriers based on regions, family origin, economic disparity,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ve created discrepancies between laws and reality.

Changing this system, whether from within or from the outside, will be challenging due to its entrenched nature and will only be achieved through socio-cultural improvements. Nonetheless, this report has examined the internal context and operation of education in North Korea to explore ways to bring about tangible improvements in access to education within the laws and policies of North Korea.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port puts forward recommendations to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the rol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play to advance education rights, thereby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ecommendations to North Korean authorities

- **Actively share their on-site finding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cusing particularly on whether the right to education is being upheld.**

According to its fifth CRC report, North Korea plans to reinforc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relevant organizations and has enhanced its data collection system regarding children. Key areas identified for improvement include attendance, violations of the right to education, and particularly, the strict enforcement and punishment of actions that violate students' fundamental rights, such as excessive effort mobilization, bribery, and severe discrimination by teachers.

- **Provide opportunities for expanded career prospects, free from barriers related to family origin and class.**

The admission quota for central-level universities should be increased for senior middle school graduates from rural areas, particularly children of laborers and farmers from remote provinces. This increase should correspond to the population distribution. Such a step will gradually help middle school graduates of remote provinces and local residents recognize and appreciate the benefits of introducing a regional admission quota system.

Graduates from rural areas who gain admission to central-level universities through the quota system should be given opportunities for job placements in their desired regions. A policy that ensures freedom of choice in job placement for the graduates can help mitigate issues arising from the songbun system or regional discrimination; and thus aid in realizing the freedom of movement.

- **Do not let structur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limit their educational and career choice.**

It should not limit girls to a few majors but actively encourage girls to enter all majors at the same rate as boys. Remove barriers to girls, not only in terms of access to higher education but also in terms of providing a range of opportunities for talented students.

The principles for personnel management within the Party, administration,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need to be revised to open up opportunities for female college graduates. Specifically, the existing principle that requires meeting three conditions - being a military veteran, a Party member, and a college graduate - should be changed. Instead, competent women should be initially appointed to executive roles, and their job performance should be regularly evaluated before deciding on Party membership. If opportunities for women to join the Party increase, there will be a rise in the social advancement of capable women after graduation.

The Central Committee's Department of Science and Educatio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s proposed to conduct gender-sensitive education for teachers as part of a teacher capacity enhancement program, with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UNICEF. The collaboration with UNICEF would involve sharing educational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By enhancing gender equality awareness and gender sensitivity among teachers, gender equality can be integrated into teaching and student management.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gender-sensitive education for teachers, it is recommended to simultaneously conduct sex education along with gender equality education for junior middle school students. Gender-sensitive education for both teachers and students will have the effect of raising awareness about women's rights across North Korea.

- **Strengthen fiscal accountability in education.**

After assessing the total financial contributions to education from local institutions, sponsoring organizations, and parents, the authorities should report their contribution ratio and increase their share to enhance fiscal accountability.

To actual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to Prevent Extraneous Financial Burdens, the sponsorship organizations and agencies designated by the city and county People's Committees must regularize their support of educational materials. To do so, firstly, an immediate initiation of providing firewood for school heating during the winter months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burden of firewood collection on students. Secondly, it is essential to define the provision of paint and lime for the annual "School Maintenance Project" as a mandatory item to be supplied by regional sponsorship organizations.

Teachers' salaries should not be managed by the sponsorship designated by city or county People's Committees, but should instead be managed by the central education budget and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current market prices. It is recommended to initially adopt a system that applies the cost of 600g of rice per day as the monthly salary for one teacher. Such a policy could help alleviate the practice of teachers depending on bribes or gifts from parents for their livelihood.

- **Expand technology and other learning tools.**

It should provide tablet computers dedicated to educational books to rural and remote country unit middle schools. Supplying tablet computers, priced around 25-30 dollars, only for reading purposes to these marginalized schools should not pose a financial burden on the authorities. Collaborating with UNESCO, a UN agency for education and culture, to include books related to health, sex education, and hygiene issues will likely earn good reviews as a mode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 **Gradually reduce and ultimately eliminate the mobilization of child labor.**

The month-long rural mobilization of students, which involves accommodating them near collective farms during the farming season, should be gradually phased out following a three-year plan. The practice of mobilizing senior middle school students for rural work should be raised by one grade each year, with the aim of completely eliminating middle school student mobilization for rural areas within three years. To compensate for the reduced labor force of students in collective farms, agricultural mechanization should be promot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provis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should be contingent on the complete abolition of child labor in the collective farms, subject to monitoring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ol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Provide capacity building programs for teachers.**

It is recommended that UNICEF or UNESCO work with the Central Committee's Department of Science and Education within the Workers' Party to develop plans f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eachers in provincial schools. In particular,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mportant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eachers in rural and provincial areas of North Korea focusing on English and science. Online distance learning is expected to be sufficiently effective for teacher training and can ensure the regularity of education.

- **Support regular English classes for students in rural areas.**


While education for current teachers is practically necessary, it is recommended to regularly conduct English education for students at provincial colleges of education. For this purpose, a collaboration between teacher training colleges in North Korean regions and universities in countries with diplomatic relation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could be initiated. Online English education for students at provincial teacher training colleges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alent development in rural North Korea.

- **Provide cooperation for ultimate elimination of child lab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ttention are required to gradually reduce and ultimately eliminate the mobilization of child labor in North Korea's collective farms. It is proposed that a collaboration with the Agriculture Food Program (AFP), as part of a project aimed at realizing the mechanization of agriculture in developing countries, be introduced. In pursuit of eradicating forced child labor and securing the right to food, it is necessary to discuss a strategy for the agricultural mechanization of North Korea with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Collective farms that implement and execute this policy should be subject to regular monitoring during the farming season; and procedures should be in place to verify that the 'rural support battle' of middle school students has been abolished.

- **Conduct monitoring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or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the aforementioned recommendations, it is advised that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or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conduct monitoring of rural schools in North Korea. This should be done in cooperation with the education departments of provinces, cities, and counties of the Workers' Party, and the relevant People's Committees. A format similar to the 2017 visit to Pyongyang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uld be adopted. Specifically, a delegation of experts from the CRC or ICESCR, to which North Korea



is a party, could inspect the situation in rural middle schools. Such an inspection would provide realistic assistance in advancing towards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aspiration of achieving “world-class education.”

REFERENCES

Journal Articles

- Jeong, Jae-Hwang. (2014).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Right to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Constitutional Cases" [In Korean].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20 (2), pp.21-60.
- Jo, Hyunjung. (2022). "The Application of Private Education in North Korean Education and Its Meaning" [I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3 (4), pp.101-130.
- Jun, Ilgu. (2018). "A Research on After-school Activities of North Korea: Focusing on the Analysis of Extracurricular and Small Group Activities in the Education Newspaper Since Kim Jong Un's Regime (2012-2017)" [In Korean].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10 (2), pp. 241-288.
- Kim, Byeongyeon, and Kim, Jisoo. (2019). "A Study on the Educatio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Changes to Improve the Quality of North Korean Education in the Kim Jong Un Era" [In Korean]. *North Korean Studies Review*, 24 (1), pp.175-205.
- Kim, Jisoo. (2017). "Kim Jung Un Regime's Education Policy Seen through the 7th Workers' Party Convention in North Korea" [In Korean]. *Education in Reunified Korea*, 14 (2), pp.1-21.
- Kim, Seok-Hyang, and Kim, Kyung-Me. (2017). "An Analysis of North Korea's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from Rodong Newspaper" [In Korean].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26 (1), pp.105-134.

Newspaper Articles

Chung, Tae-joo. (2022, December 19). "IT Classes Crucial in Primary Schools: But Should Facility Renewal Costs be Borne by Beneficiaries?"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21219-4/> (accessed November 19, 2023).

Kim, Young-kwon. (2022, October 15).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Salmon, Submits First Report to UN: 'China, Russia Should Apply Non-Refoulement Principle to North Korean Defectors.'" *VOA*. <https://www.voakorea.com/a/6790547.html> (accessed November 19, 2023).

Lee, Chae-eun, (2022, April 7). "New School Year Commences with Poor Student Attendance Attributed to Family Financial Hardships."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20407-1/> (accessed November 19, 2023).


Lee, Chae-eun, (2022, December 5). "Truancy Among North Korean Students Increases over Concerns of Firewood Expenses."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21205-4/> (accessed November 19, 2023).

Lee, Chae-eun, (2023, June 7). "North Korea Violates Education Rights in 'Rice Planting Battle': Classes Suspended for 11 Days."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30607-3/> (accessed November 19, 2023).

Lee, Chae-eun, (2023, September 18). "Teenage Boy in Cheongjin Becomes Breadwinner at a Young Age, Pulling a Wheelbarrow."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30918-2/> (accessed November 19, 2023).

Lee, Chae-eun, (2023, October 11). "Only 'Certain'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Classes Bear the Expense of Flower Baskets for Party Founding Day." *DailyNK*.
<https://www.DailyNK.com/20231011-1/> (accessed November 19, 2023).

Lee, Hyo-seok. (2020, January 24). "North Korea Reforms Education to Cultivate Technical



Talents: English and Science Education Strengthened.” Yonhap News.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090700004> [accessed November 20, 2023].

Government Report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 *Repl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List of Issues.*

Kim, Jisoo. (2019). *Analysis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Kim Jong Un Era, KEDI Report RR 2019-11.*

UN Human Rights Council. (2014, February 7). Commission of Inquiry (COI),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5th Session, A/HRC/25/CRP.1.*

TABLES

[Table 1] Opinion on Expanding Compulsory Schooling [Question 2-1]

[Table 2] Attendance under Coronavirus [Question 2-8]

[Table 3] Subject Considered Most Important [Question 3-1]

[Table 4] Evaluation of Computer, Science & Technology,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Question 3-4]

[Table 5] Evaluation of Education Quality [Question 3-5]

[Table 6]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School Finances [Question 4-1]

[Table 7] Parental Contributions to School Expenditures on Laptops and Laboratory Equipment
in the Past Three Years [Question 4-6]

[Table 8] Student Labor Mobilization in the Last Three Years [Question 4-7]

[Table 9] Reasons for Absconding from School [Question 2-5]

FIGURES

[Figure 1] Regional Distribution of Respondents

[Figure 2] Gender Distribution of Respondents

[Figure 3] Occupation Distribution of Respondents

[Figure 4] Urgently Needed Materials and Supplies

조선 인민의 교육 접근성에 대한 설문조사

ID			
----	--	--	--

먼저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선 인민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 대한 귀하의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여러분께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인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조사에 참여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1부: 기본 질문

1-1. 본인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1-2. 본인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 년도

1-3. 살고 있는 지역은 어느 곳(도) 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자강도 (2) 함경북도 (3) 함경남도 (4) 황해북도 (5) 황해남도
(6) 양강도 (7) 강원도 (8) 평안북도 (9) 평안남도 (10) 평양시

1-4.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장사/밀수무역 (2) 무역/외화벌이 (3) 보건의료(의사, 약사 등)
(4) 교원/연구사(인민학교, 중학교, 대학 등) (5) 행정조직원(행정지도원, 외교관 등)
(6) 당기관원 (7) 보안원/군인 (8) 노동자 (9) 농업/어업/임업
(10) 부양(주부) (11) 학생 (12) 무직자 (13) 문화예술인
(14) 퇴직자 (15) 기타 : _____

1-5. 당신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무학 (2) 소학교 중퇴 (3) 소학교 졸업 (4) 초급중학교 졸업
- (5) 고급중학교 졸업 (6) 단과대학, 고등전문대학 졸업 (7) 대학 중퇴
- (8) 대학 졸업 (9) 박사원, 연구원 중퇴-졸업
- (10) 기타 _____

1-6. 본인의 월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조선돈)

- (1) 300,000원 미만 (2) 300,000~500,000원 (3) 500,000원~1,000,000원
- (4) 1,000,000원~2,000,000 원 (5) 2,000,000원 이상
- (6) 기타 _____

1-6-2. 혹은 년 소득을 적어주세요. _____ (조선돈)

1-7. 귀하의 자녀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한 명을 택해주세요.

- (1) 남성 (2) 여성

1-8. 자녀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 년도

1-9.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어느 곳(도)에 있습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자강도 (2) 함경북도 (3) 함경남도 (4) 황해북도 (5) 황해남도
- (6) 양강도 (7) 강원도 (8) 평안북도 (9) 평안남도 (10) 평양시

1-10.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아래에서 고르세요.

- (1) 소학교 재학
- (2) 초급중학교 재학
- (3) 고급중학교 재학
- (4) 단과대학, 고등전문대학 재학

(5) 대학 재학

(6) 기타 _____

2부: 의무 교육 전반적인 질문

2013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 발표로 인해 의무교육 기간이 11년에서 12년으로 확대되고, 교과목 시수가 바뀌는 등 교육 정책이 개편되었습니다. 위 정책에 따르면 고졸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과정입니다.

2-1. 의무 교육 기간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좋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주세요)

2) 나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주세요)

2-2. 평소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꼭 학교에 보내야 한다. (2-3으로 가시오)

2) 보내는 것이 좋다. (2-3으로 가시오)

3) 꼭 보낼 필요는 없다. (2-4으로 가시오)

4) 전혀 보낼 필요가 없다. (2-4으로 가시오)

2-3. 학생을 학교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1) 학교 교육이 좋은 성적과 대학 입학에 도움된다.

2) 좋은 사회적 지위(성분)를 가지는데 중요하다.

3) 남학생이라면 학교 교육은 필수이다.

4) 좋은 직장을 갖고 더 잘 살 수 있다.

5) 학생의 인성과 가치관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6) 기타 (적어주세요)

2-4. 학교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 1) 학교보다 방과 후 소조 활동이나 과외 활동이 대학 입학에 도움된다.
- 2) 성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 3) 여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
- 4)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
- 5) 학교 교육이 학생의 인성과 가치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6) 기타 (적어주세요)

2-5.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 1) 토대로 인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 2) 학교 교육 내용에 불만족하기 때문이다.
- 3) 수업 이외에 노력 동원과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 4) 친구 관계 등 학교생활에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 5)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 6) 기타 (적어주세요)

2-6. 출석을 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합니까?

- 1) 출석은 졸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최소 일자만 채운다면 가능하다. (어느 정도 기간?)
- 3) 특수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다. (어떤 이유입니까?)
- 4) 대체로 불가능하다.
- 5) 절대로 불가능하다.

2-7. 학생이 결석할 경우, 국가 및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 1) 생활총화 및 처벌을 통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한다.
- 2) 선생님 및 학급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출석하도록 만든다.
- 3) 등교해야 하는 최소 일자만 출석하면 놔둔다.
- 4) 잘 사는 경우 뇌물을 제공하면 놔둔다.
- 5) 아무런 조치가 없다.

2-8.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하에서 학생들의 출석률은 어떠합니까?

- 1) 전체 인원의 100% 가까이 출석한다.
- 2) 80% 이상 출석한다.
- 3) 50% 이상 출석한다.
- 4) 30% 이상 출석한다.
- 5) 거의 출석하지 않는다.

2-9. 코로나 바이러스 전후 출석률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크게 변화가 없다.
- 2) 거리두기로 인해 몸이 좋지 않을 때 학교를 많이 결석한다.
- 3)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의 결석이 많다.
- 4) 학교에서 빠지는 학생들을 관리하여 더 많은 학생이 출석한다.
- 5) 정치사상교육이 확대되어 단속으로 더 많은 학생이 출석한다.

3부: 교육 내용에 관한 질문

3-1.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골라 번호를 적어 주세요.

- 1)
 - 2)
 - 3)
- ① 국어 (문학) ② 영어 ③ 수학 ④ 자연과학 (물리, 화학, 생물)
⑤ 사회주의 도덕 ⑥ 미술 ⑦ 체육 ⑧ 기초기술
⑨ 음악 ⑩ 역사 ⑪ 조선 지리 ⑫ 혁명력사교육
⑬ 컴퓨터 ⑭ 기타 (적어주세요)

3-2. 위 교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우리 자녀의 지식과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 2) 자녀의 학교 생활 평가(평정서)에 도움이 되어서

- 3) 자녀의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어서
- 4)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어서
- 5) 자녀가 순수하게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3. 최근 일주일 이내 학교에서 진행된 하루 일과를 안다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교과목 명을 적어주세요.	노력 동원 (O)	소년단활동, 청년동맹 활동 (O)
1 수업			
2 수업			
3 수업			
4 수업			
5 수업			
6 수업			
과외 소조 활동1			
과외 소조 활동2			

3-4. 교육 개편으로 컴퓨터, 과학기술, 외국어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1) 컴퓨터교육 | ① 좋은 교육이다. | ② 불필요한 교육이다. |
| 2) 과학기술교육 | ① 좋은 교육이다. | ② 불필요한 교육이다. |
| 3) 외국어교육 | ① 좋은 교육이다. | ② 불필요한 교육이다. |

3-5. 학교에서는 위 교과목을 충분히 잘 교육하고 있습니까?

- 1) 수업 준비는 잘 되지 못하고 있다.
- 2) 선생님에 따라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준비한다.

- 3) 지역의 학교에 따라 선생님의 수준이 다르다.
- 4) 국가에서 선생님을 전부 교육해서 수업 준비를 시키고 있다.
- 5) 관심이 없어 잘 모르겠다.

3-6. 컴퓨터를 잘 다루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 1) 일반 학생 모두 잘 다룬다.
- 2) 특수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수재들이 잘 다룬다.
- 3) 학교에서 집중 교육을 시킨 아이들이 잘 다룬다.
- 4) 가정 교사나 가정 내 컴퓨터를 가지고 학습한 학생들이 잘 다룬다.

3-7. 수업 중 정치사상교육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좋은 교육이다. (3-9.으로 가세요)
- 2) 불필요한 교육이다. (3-8.으로 가세요)

3-8.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없다.
- 2)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있다.
- 3) 컴퓨터, 외국어 등 실리적인 교과목의 확대가 중요하다.
- 4) 대학 입학에 위한 기초 교과목 비중이 확대되어야 한다.
- 5)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갖춰야 할 훌륭한 가치, 덕목을 교육해야 한다.

3-9. 학교에 따라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 1) 아이의 학교를 바꾸어 새로운 교과과정을 따라가도록 한다.
- 2) 아이에게 별도의 과외 활동을 시켜 교과과정을 따라가도록 한다.
- 3) 성분에 따라 학교를 변경하기 어려워 포기한다.
- 4) 비용이 없어 포기한다.
- 5) 국가 및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여 고치도록 한다.

4부: 무상 교육에 대한 평가

4-1. 학교 운영의 재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1) 군·도당위원회
- 2) 교육부
- 3) 학교
- 4) 청년동맹
- 5) 학부모
- 6) 어떤 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4-2.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어느 정도 비용을 요구합니까?

- 1) 내라는 것은 전혀 없다.
- 2) 가정형편에 따라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부담한다.
- 3)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져 일부 비용을 내었다.
- 4) 학교에서 수시로 걷는다.

4-3. 현재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1) 교과서, 참고서 등 학습에 필요한 자료
- 2) 책상, 걸상, 칠판, 교편물 등 기본적인 자재
- 3) 체육기자재, 음악기자재 등 예술 계열의 자재
- 4)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등 디지털 기기 공급
- 5) 겨울 난방에 필요한 땔감과 식수 공급

4-4. 교과목 개편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컴퓨터 및 노트북을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 1) 국가에서 전 지역의 학교에 고르게 지원하였다. (학교에 대)
- 2) 국가에서 일부 지역의 특수학교에만 지원하였다.
- 3) 학교가 마련하였다. (학교에 대)
- 4) 학부모들이 제공하였다.

5)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만 집에서 사용한다.

4-5.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경우, 지원이 있습니까?

- 1)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있다.
- 2) 학교에서 지원한다.
- 3) 동료 학생 및 이웃이 돕는다.
- 4) 일부 학생은 수업을 결석하여 제대로 들을 수 없다.
- 5)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지원이 어렵다.

4-6.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학교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최근 3년 내에 무엇을, 얼마나, 자주 제공하였는지 적어 주세요.

	무엇을, 얼마나	횟수 (일 년)	기타 (노력 동원, 사람 고용 등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 학교 시설 보수비	돈 원 쌀 kg 담배_보루 시멘트 기타	회	
2) 노트북, 실험 도구	돈 원 기타	회	
3) 교원 지원	돈 원 쌀 kg 담배_보루 기타	회	
4) 난방	떨감	회	

5) 토끼가족	장	회	
---------	---	---	--

4-7.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학생의 '노력 동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 1) 겨울이면 난방을 위해 학생들이 산에 가서 직접 땀감, 도토리 줍기 등을 한다.
- 2) 학생들이 건설 현장, 농촌 지원을 나간다.
- 3) 학생들이 양묘장, 축산 등 학교 과업을 위해 동원된다.
- 4) 학생들이 단순한 미화, 마을 정비사업 등 간단한 작업에만 동원된다.
- 5) 부모가 비용을 낸 학생들의 경우 노력 동원에서 제외된다.

4-8. 학교 운영에 관해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이 있다면,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 1) 중앙에서 논의되어 내려온다.
- 2) 충분히 전달되어 잘 반영되고 있다.
- 3) 충분히 전달되지만, 비용이 부족하여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4) 전혀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 5) 전반적으로 어떻게 논의되는지 알 수 없다.

5부: 교육 접근권에 관한 질문

5-1. 만6세 미만 미취학 학생들은 소학교 입학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 1) 모두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2)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교육 받는다.
- 3) 가정 형편에 따라 가정교사를 둔다.
- 4) 대부분 소학교 입학 전 준비를 하지 못한다.
- 5) 소학교 입학 전 교육은 전혀 필요 없다.

5-2. 학생들은 보통 학교를 언제까지 다닙니까?

- 1) 유치원까지 다닌다.
- 2) 소학교까지 다닌다.

- 3) 초급중학교까지 다닌다.
- 4) 고급중학교까지 다닌다.
- 5) 대학교까지 다닌다.

5-3. 자녀가 가길 희망하는 교육 기관이 있다면 선택해 주세요. (여러 개 선택 가능)

- 1) 금성학원
- 2) 평양외국어학원
- 3) 각 시도 외국어 학원
- 4) 제1고등중학교
- 5) 기술고등중학교
- 6) 일반중학교

5-4. 희망하는 각 교육 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주세요.

- 1)
- 2)
- 3)

① 뛰어난 성적 ② 출신 성분 및 토대 ③ 뇌물(경제력) ④ 입학에 관한 정보
⑤ 집안 배경 및 힘 ⑥ 기타 (적어주세요)

5-5. 보통 가정교사에게 수업 받는 교과목과 매월 제공해야 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교과목 명 (전부 적어주세요)
- 2) 비용 : 쌀 / 중국 돈 / 기타

5-6. 통상 한 학급에 남녀 학생의 대학 입학 비율이 어떻습니까?

- 1) 전체 학급의 학생 수 몇 중

2) 남학생__명, 여학생 __명

5-7. 도시 농촌 간 대학 입학자 수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 1) 농촌 지역의 교원의 자격과 교육 수준이 낮다.
- 2) 농장원 집안에서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 수가 적다.
- 3) 오히려 국가 혜택으로 농촌 지역에서 더욱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다.
- 4) 도시 농촌의 차이보다, 가정 형편 및 뇌물이 중요하다.
- 5) 도시 농촌의 차이보다, 지역별 차이가 더 크다.

5-8.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성적이 좋지 않아 원하는 대학 입학이 힘들다.
- 2) 토대가 좋지 않아 원하는 대학 입학이 힘들다.
- 3) 가정 교사를 둘 형편이 못되어 대학 입학을 준비할 수 없었다.
- 4) 뇌물을 제공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 5) 여학생이기 때문이다.

5-9. 교원 및 부정 입학이 만연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 1) 부정 입학을 단속해야 한다.
- 2) 부족한 교육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 3) 성분이 좋지 않아도 뇌물로 인해 입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4) 뇌물로 인해 부정입학이 있는 것이 상관없다.
- 5) 실제로 부정 입학이나 뇌물이 심각하지 않다.
- 6) 기타 (적어주세요)

6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6-1. 고졸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시오.

- 1) 사상교육을 이수했다는 증거가 된다.
- 2) 간부가 되기에 필수적이다.
- 3) 직장을 얻기 위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4) 현장에서 일을 잘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 것이다.
- 5) 사람으로서 세계관이 넓어지고 필요한 지식을 갖추게 된다.

6-2.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서 다음 중 누구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1) 신분에 상관없이 수재 중심으로
- 2)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진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 3) 여성을 중심으로
- 4) 가난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 5)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6-3. 당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 1)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편하였다.
- 2)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한다.
- 3) 여학생, 남학생 차별 없이 대한다.
- 4) 성적이 낮거나 떨어지면 더 많이 교육한다.
- 5) 불공평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

6-4.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기본적으로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2)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하다.
- 3) 기관의 간부 및 주요 요직에 가기 위해서 중요하다.
- 4)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중요하다.
- 5) 남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에 반드시 입학해야 한다.

6-5. 불공평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기준으로 대학을 가야 합니까?

- 1) 학교 성적
- 2) 출신 성분 및 토대
- 3) 재력 4) 남학생 위주

5) 기타 (적어주세요)

6-6. 여성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 1) 가정 살림이나 아이를 키우는 일을 맡아야 한다.
- 2)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에 고졸중학교 졸업도 하지 않는 게 좋다.
- 3) 생계 활동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 4) 남성이 좋은 직업을 더 가지도록 남학생이 대학에 가는 것이 좋다.
- 5) 간부 등 여성이 좋은 직업을 가지는 기회가 먼저 보장 돼야 한다.

6-7. 취약 계층이 교육을 충분히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이미 지원을 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다.
- 2) 어려운 계층은 적극적으로 돕고 장학금 등 교육을 시켜야 한다.
- 3) 어차피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를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 4) 교육을 해도 형편이 달라지지 않아 필요 없다.
- 5) 장애인 등을 위주로 교육 지원을 해야 한다.

6-8. 보통 학생들이 미래(직업)를 어떻게 결정하니까? (여러 개 선택 가능)

- 1) 대부분 군입대를 하여 당원이 되고자 한다.
- 2) 출신성분이 좋으면 대학에 입학하여 간부가 되고자 한다.
- 3) 출신성분에 따라 원하지 않은 곳에 배치된다.
- 4) 출신성분은 알기 어렵고 성적을 함께 고려하여 배치된다.
- 5) 희망한다면 어떤 곳이든 갈 수 있다.

6-9. 학생들은 주로 언제 자신의 출신 성분을 알게 됩니까?

- 1) 소학교, 고등중학교에 우수한 인재 선발에 제외되면서
- 2) 군대 입대가 좌절되면서
- 3) 대학 입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 4)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할 때

5) 사회 진출 이후에 간부에 탈락하면서 알게 된다.

6-10. 토대에 의해 직업(직장)이 정해지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 1) 매우 옳다.
- 2) 바람직한 편이다.
- 3) 일부는 불공평하다.
- 4) 불공평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
- 5) 옳바르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

감사합니다.

Survey on North Koreans' Access to Education

ID			
----	--	--	--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this survey, designed for parents of school-attending children. Our goal is to improve access to education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Please be assured that your responses will be used exclusively for research purposes. We are committed to ensuring that your participation in this survey does not lead to any disadvantages for you. We value your honest responses and once again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in this important research.

Part I. Basic Questions

1-1. What is your gender? (1) Male (2) Female

1-2. What is your year of birth? Year (____)

1-3. Which region (province) do you live in? Please select only one.

- (1) Chagang Province (2) North Hamgyong Province (3) South Hamgyong Province
- (4) North Hwanghae Province (5) South Hwanghae Province (6) Ryanggang Province
- (7) Gangwon Province (8) North Pyongan Province (9) South Pyongan Province (10) Pyongyang

1-4. What is your occupation?

- (1) Merchant or contraband trader
- (2) Trader or foreign currency earner
- (3) Healthcare personnel (doctor, pharmacist, etc.)
- (4) Teacher or researcher (at primary schools, middle schools, universities, etc.)

- (5) Administrative worker (administrative supervisor, diplomat, etc.)
- (6) Party organ official
- (7) Public security officials or military personnel
- (8) Laborer
- (9) Agricultural, fisheries or forestry worker
- (10) Dependent (housewife)
- (11) Student
- (12) Unemployed
- (13) Culture or art worker
- (14) Retiree
- (15) Other: _____

1-5. What is your highest level of education? Please select only one.

- (1) No education
- (2) Dropped out of primary school
- (3) Graduated from primary school
- (4) Graduated from junior high school
- (5) Graduated from senior high school
- (6) Graduated from college
- (7) Dropped out of university
- (8) Graduated from university
- (9) Dropped out or graduated from postgraduate schools or postgraduate research institutions
- (10) Other _____

1-6. What is your monthly income level in North Korean currency?

- (1) Less than KPW 300,000
- (2) KPW 300,000 - 500,000
- (3) KPW 500,000 - 1,000,000
- (4) KPW 1,000,000 - 2,000,000

(5) KPW 2,000,000 or more

(6) Other _____

1-6-2. Alternatively, please enter your annual income in KPW _____.

1-7. What is the gender of your eldest child? If you have multiple children, please select one child only and provide the gender of the selected child.

(1) Male

(2) Female

1-8. What is your child's year of birth? Year (____)

1-9. In which region (province) does your child attend school? Please select only one.

(1) Chagang Province

(2) North Hamgyong Province

(3) South Hamgyong Province

(4) North Huanghai Province

(5) South Huanghai Province

(6) Ryanggang Province

(7) Gangwon Province

(8) North Pyongan Province

(9) South Pyongan Province

(10) Pyongyang City

1-10. Which school does your child attend? Please select from the following.

(1) Primary school

(2) Junior high school

(3) Senior high school

(4) College

(5) University

(6) Other _____

Part II. General Questions on Compulsory Education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Ordinance on Enforcing Universal 12-Year Compulsory Education in 2013, North Korea introduced a new education policy. This policy extended the mandatory education period from 11 to 12 years and modified the number of teaching hours allocated to individual subjects. As a result of this policy change, senior high school has become compulsory for all students.

2-1. What is your opinion on the expansion of the compulsory education period?

- (1) Positive (Please explain your reasons)
- (2) Negative (Please explain your reasons)

2-2. How do you feel about students going to school during regular times?

- (1) They should always attend school. (Please proceed to Question 2-3.)
- (2) They could preferably attend school. (Please proceed to Question 2-3.)
- (3) They don't necessarily need to attend school. (Please proceed to Question 2-4.)
- 4) They don't need to attend school at all. (Please proceed to Question 2-4.)

2-3. If you must send your child to school, why? Please select multiple answers if applicable.

- (1) School education will help my child get good grades and gain admission to prestigious universities.
- (2) School education is important for achieving a good social status (family origin).
- (3) (If my child is a boy) School education is a must.
- (4) School education will help my child secure a good job and improve their standard of living.
- (5) School education is important for developing a student's character and values.
- (6) Other (Please explain your reasons)

2-4. Why do you have a negative view of school education? Please select multiple answers if

applicable.

- (1) Small groups 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more helpful for my child to gain admission to prestigious universities.
- (2) School education doesn't benefit my child because our family origin is not favorable.
- (3) School education is not considered important for girls.
- (4) School education is not advantageous for my child due to our challenging family situation.
- (5) School education does not contribute to building my child's character and values.
- (6) Other (Please explain your reasons)

2-5. If students do not attend school voluntarily, what are the reasons? Please select multiple answers if applicable.

- (1) They can't secure the job they desire due to their background.
- (2) They are dissatisfied with the educational content.
- (3) There is a significant amount of mobilization of the labor force and tasks beyond regular classes.
- (4) They lack interest in school life, including making friends.
- (5) They believe it's more beneficial to work and earn money.
- (6) Other (Please explain your reasons)

2-6. Is it possible to graduate without attending school?

- (1) Attendance does not significantly impact graduation.
- (2) Yes, as long as the minimum number of days is met. (If yes, how many days are required?)
- (3) Yes, under special circumstances. (If yes, please specify the reasons.)
- (4) Generally, it is not possible
- (5) Never. It is impossible.

2-7. What action does the state and school take when a student is absent from school?

- (1) Ensure the student receives compulsory education through a “review of school life” and

punishment.

- (2) Arrange for teachers and classmates to visit and persuade the student.
- (3) Allow the student to continue without intervention as long as he/she meets the minimum required attendance.
- (4) Allow the student to continue without intervention if he/she is from an affluent family and offers bribes.
- (5) Take no action.

2-8. What is the student attendance rate under the COVID-19 pandemic?

- (1) Nearly 100% attendance.
- (2) More than 80% attendance.
- (3) More than 50% attendance.
- (4) More than 30% attendance.
- (5) Almost no attendance.

2-9. If the attendance rate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why?

- (1) It hasn't changed much.
- (2) Students were often absent when they didn't feel well due to social distancing.
- (3) Students were often absent due to family economic difficulties.
- (4) More students attend school because schools actively manage absent students.
- (5) More students attend school due to stronger control stemming from the expanded political thought education.

Part III. Questions about Educational Content

3-1. Please choose and number the three subjects you consider most important for your child to learn at school.

- (1)
- (2)
- (3)

- ① National language (literature)
- ② English
- ③ Math
- ④ Natural science (physics, chemistry, and biology)
- ⑤ Socialist morality
- ⑥ Art
- ⑦ Physical education
- ⑧ Basic skills
- ⑨ Music
- ⑩ History
- ⑪ Korean geography
- ⑫ Revolutionary history
- ⑬ Computer science
- ⑭ Other (Please explain your reasons)

3-2. Why did you choose the above subjects?

- (1) To improve my child's knowledge and abilities.
- (2) To help my child receive good evaluations (report cards) during their school life.
- (3) To assist my child in gaining admission to prestigious universities.
- (4) To equip my child with skills needed for the workplace.
- (5) To align with my child's interests.

3-3. If you are aware of your child's typical school day activities within the past week, please provide a brief description, including the names of the subjects.

	(Please Enter) Subject Name	Mobilization of Labor Force (O)	Children's Union or Youth League Activities (O)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Class 5			
Class 6			
Extracurricular or small group activities 1			
Extracurricular or small group activities 2			

3-4. The education reform emphasizes computer, science and technology,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What is your opinion on the importance of these subjects for students?

1) Computer education

① Beneficial for students

② Not necessary for students

2) Sci-tech education

① Beneficial for students

② Not necessary for students

3) Foreign language education

① Beneficial for students

② Not necessary for students

3-5. Do you believe that your child's school is effectively teaching the subjects mentioned above?"

(1) Teachers are not well prepared for classes.

(2) It depends on the teacher; some prepare diligently on their own.

(3) The competence level of teachers varies depending on the region where the school is located.

(4) The state provides training for all teachers to prepare for classes.

(5) I have no information as I am not interested.

3-6. Which group of students excels at using computers?"

(1) Ordinary students excel at it.

(2) Gifted students who were educated in special institutions excel at it.

- (3) Students who have received intensive training at school excel at it.
- (4) Students with access to a private tutor or a personal computer at home excel at it.

3-7. What is your opinion on the increase in the teaching of political thought in the classroom?

- (1) Beneficial for students (Please proceed to Question 3-9.)
- (2) Not necessary for students (Please proceed to Question 3-8.)

3-8. If you find it unnecessary, why?

- (1) There is no need to expand it because students are already receiving sufficient education in this area.
- (2) It is not being taught well in schools.
- (3) Mor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expanding practical subjects such as computer science and foreign languages.
- (4) The proportion of basic subjects required for university entrance should be increased.
- (5) Emphasis should be on teaching good values and virtues needed in society.

3-9. If there is a difference in educational content between schools, how do you resolve it?

Please select multiple answers if applicable.

- 1) Transfer my child to another school to align with the new curriculum.
- (2) Organize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my child to complement the curriculum.
- (3) Take no action because changing schools is challenging, given my family origin.
- (4) Forgo any action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 (5) Raise the issue with the government and school authorities to address the problem.

Part IV. Evaluation of Free Education

4-1. Which organization is financially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your child's school?

- (1) The county or provincial party committee
- (2) The Ministry of Education
- (3) The school itself



(4) The Youth League

(5) Parents

(6) None

4-2. How much money does the school request from parents?

(1) No amount is requested.

(2) Families pay voluntarily based on their financial capability.

(3) I recently contributed to partially cover the cost due to difficulties stemm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4) The school asks for contributions occasionally.

4-3. What are the most important materials that students currently need?

(1) Learning materials, including textbooks and reference books.

(2) Basic classroom materials, such as desks, chairs, chalkboards, and teaching aids.

(3) Artistic and physical education materials, including musical instruments and sports equipment.

(4) Digital devices, such as computers, laptops, and televisions.

(5) Essentials, such as firewood for heating in winter and drinking water.

4-4. How were new computers and laptops provided for in your child's school as required by the curriculum reform?

(1) The state distributed them evenly across schools nationwide.

(2) The state provided them only to special schools in select regions.

(3) The school procured them independently.

(4) Parents were responsible for providing for them.

(5) Only students from affluent families use their own at home.

4-5. Is there any support available for students from poor families?

(1) The state operates a national scholarship program.

(2) The school offers support.

- (3) Assistance comes from fellow students and neighbors.
- (4) Some students do not attend school, and therefore, they have no information about support measures.
- (5) Many students are unable to attend school due to poverty, making it challenging to provide them with support.

4-6. As a parent, what school-related expenses have you paid? Please specify the types of expenses, the amounts, and how frequently you paid them over the last three years.

	Type of Payment & Amount	Frequency (Times per year)	Other (Please feel free to elaborate on any additional contributions such as mobilization of labor force, hiring services, etc.)
1) School facility renovation	Cash: KPW _____ Rice: _____ kg Tobacco: ___ cartons Cement: _____ Other: _____	No. of times	
2) Laptops and laboratory equipment	Cash: KPW Other:	회	
3) Teacher support	Cash: KPW Rice: kg Cigarettes: cartons Other:	No. of times	
4) Heating	Firewood	No. of times	
5) Rabbit skin	No. of pieces	No. of times	

4-7. If the school forced your child to provide “labor mobilization” in the past three years, what

kind of work were they assigned to? Please select multiple answers if applicable.

- (1) During the winter season, students collect firewood and acorns in the mountains for heating.
- (2) Students are dispatched to work on construction sites and farms.
- (3) Students are mobilized for school tasks, such as tree planting and livestock breeding.
- (4) Students are assigned only simple tasks like beautification and village repair work.
- (5) Students can be exempted from mobilization of the labor force if their parents make a payment on their behalf.

4-8. Are the opinions of parents and students, if any, effectively communicated to and addressed by the school?

- (1) They are discussed centrally and communicated in a top-down manner.
- (2) They are effectively conveyed and reflected in school operations.
- (3) They are well-received but not adequately addressed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 (4) The opinions of parents and students are not reflected at all.
- (5) Overall, I am not aware of how discussions regarding school operations are conducted.

Part V. Questions about Access to Education

5-1. How are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prepared for entry into primary schools? Please select multiple answers if applicable.

- (1) All children under six have access to preschool education.
- (2) Parents educate their children under six at home.
- (3) Parents hire a tutor for their children if they can afford one.
- (4) Most parents do not actively prepare their children before entering primary school.
- (5) No specific pre-school education is considered necessary.

5-2. Up to which level do students typically attend school?

- (1) Until graduating from kindergarten.
- (2) Until graduating from primary school.

- (3) Until graduating from junior high school.
- (4) Until graduating from senior high school.
- (5) Until graduating from university.

5-3. Please select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you would prefer for your child to attend, if any.

Please select multiple answers if applicable.

- (1) Gumsung School
- (2) Pyongyang School of Foreign Languages
- (3) School of Foreign Languages in other cities and provinces
- (4) No. 1 Senior High School
- (5) Technical Senior High School
- (6) Regular Middle School

5-4. What conditions do your child need to fulfill in order to be admitted to each of your desired educational institutions? Please list two in order of importance. (①~⑥)

- (1)
- (2)
- (3)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Outstanding grades② Family origin and foundation③ Bribes (financial resources)④ Admission policy information⑤ Family background and power⑥ Other (Please explain your reasons) |
|---|

5-5. What subjects does your child learn from tutors, and how much do you pay each month for these services?

- (1) Subjects: _____ (Please list all subjects your child is taught.)
- (2) Payment: Rice / Chinese currency / other

5-6. In a typical classroom, what is the ratio of male to female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ies?

(1) Out of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in the class: _____

(2) Number of male students: _____

Number of female students: _____

5-7. What are the reasons, if any, for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urban and rural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ies? Please select multiple answers if applicable.

(1) Teachers in rural areas tend to be less qualified and have lower levels of education.

(2) There is a lower inclination among students from farming households to pursue university education.

(3) On the contrary, more students from rural areas enter university due to preferential treatment.

(4) Family finances and the capacity to offer bribes play a more significant role than urban-rural disparities.

(5) Regional differences within the country have a more substantial impact than mere urban-rural disparities

5-8. If your child finds it difficult to gain university admission, what are the reasons?

(1) My child's poor grades make it difficult for him/her to gain admission to the desired university.

(2) Our family's modest "foundation" makes it challenging for my child to enter the desired university.

(3) I couldn't afford a tutor to help my child prepare for university admission.

(4) I lack the financial means to pay bribes for university admission.

(5) It is because my child is a female student.

5-9. What is your opinion on the prevalence of teacher involvement and fraud in college admissions? Please select multiple answers if applicable.

(1) The state must crack down on admission fraud.

(2) Such fraud is inevitable due to inadequate funding in education.

- (3) Bribery has enabled students without good family origin to enter prestigious universities.
- (4) I don't care if there is bribery in university admissions.
- (5) In reality, admission fraud and bribery are not significant issues.
- (6) Other (Please explain your reasons)

Part VI. Social Perceptions of Education

6-1. What is the implication of having completed compulsory education up to senior middle school? Please select the most important one.

- (1) It serves as proof of having completed ideological education.
- (2) It is essential for qualifying as a cadre.
- (3) It is necessary for securing employment.
- (4) It provides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excel in the workplace.
- (5) It broadens your worldview as a person and equips you with essential knowledge.

6-2. Which group do you think should receive more support to ensure compulsory education in North Korea?

- (1) Gifted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social status
- (2) Students from elite classes with good family backgrounds
- (3) Female students
- (4) Economically disadvantaged or vulnerable groups
- (5) Students in regions with poor educational conditions

6-3. What actions should the party and the state take to eliminate educational inequality at the national level?

- (1) Expanded compulsory education period to 12 years.
- (2) Provide support to students from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 (3) Ensure equal treatment of girls and boys without any discrimination.
- (4) Offer additional educational support to students with low or failing grades.
- (5) Take no action because there is no inequality.

6-4. Why is it important for your child to enter university?

- (1) To ensure my child receives a quality education.
- (2) To increase my child's chances of finding a good job.
- (3) To enable my child to attain cadre positions and key roles in organizations.
- (4) To improve the overall livelihood of our family.
- (5) To fulfill societal expectations for male students.

6-5. What should college admission be based on to reduce inequality?

- (1) Academic grades
- (2) Family origin and foundation
- (3) Family wealth
- (4) Preferential treatment for male students
- (5) Other (Please explain your reasons)

6-6. What are the reasons for undereducation among women? Please select multiple answers if applicable.

- (1) Girls should focus on household chores and child-rearing.
- (2) Girls don't have to complete senior middle school because they need to enlist in the military.
- (3) Girls shouldn't enter university because they must become the breadwinner.
- (4) Boys should enter university so that they can secure more prestigious jobs.
- (5) Girls should be given the first opportunity to secure decent jobs, including cadre positions.

6-7. What is your opinion on the sufficient educational opportunities provided to vulnerable groups?

- (1) They are already receiving adequate support for education.
- (2) Underprivileged groups should receive more active support, including scholarships.
- (3) The focus should be on gifted students, as resources for support are limited.
- (4) Educational support is not essential, as it is unlikely to change their socioeconomic

status.

(5) Educational support should primarily focus 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6-8. How do students typically determine their future (job path)? Please select multiple answers if applicable.

(1) Most students aspire to enlist in the military and become a party member.

(2) Students from a good family origin often aim to enter university and pursue cadre positions.

(3) Some students are placed in positions based on their family origin, which may not align with their personal desires.

(4) Family origin is not easily accessible information, and students are placed in positions in consideration of academic grades.

(5) Students can choose any position they want.

6-9. When do students typically become aware of their family origin?

(1) When they fail in the gifted student selection process in primary school or senior middle school.

(2) When they fail to enlist in the army.

(3) When they encounter difficulties in gaining admission to university.

(4) When they fail to secure their desired job.

(5) When they fail to get promoted to cadre positions in their workplace.

6-10. What is your opinion on the idea that your job (workplace) is determined by your “foundation”?

(1) It is entirely appropriate.

(2) It is a preferable practice.

(3) It is somewhat unfair.

(4) It is unfair and needs to be changed.

(5) It is not right, but it seems unchangeable.

Thank you.

